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黃 珪 喜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사기 · 향우본기》, 《사기 ·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王的盛宴)》의  
서사 연구

201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慧 元

《사기·항우본기》, 《사기·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王的盛宴)》의

서사 연구

黃 珄 喜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慧 元

# 認 准 書

李慧元의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准함.

2015年 5月

審査委員長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사기(史記)》는 뛰어난 사건전개와 인물묘사로 높은 예술성과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1년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왕적성연(王的盛宴)》은 제왕이 된 유방의 심리에 따라 《사기》를 재해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에 본고는 서사와 모티프로 <항우본기(項羽本紀)>, <고조본기(高祖本紀)>, 영화 《왕적성연》을 비교분석하여, 《사기》의 서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항우본기(項羽本紀)>, <고조본기(高祖本紀)>, 영화 《왕적성연》의 모티프인 항우와 유방의 영웅적 일생이 인구에 회자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1절에서 영웅은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 항우와 유방이 과연 영웅으로 불리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절과 3절에서는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주인공의 유형을 밝힐 수 있는 조셉 캠벨(Joseph Campbell)과 크리스토퍼 보글러(Christopher Vogler)의 영웅서사이론과 노스롭 프라이(Northrop Frye)의 신화전이 이론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항우본기>, <고조본기>가 항우와 유방이라는 인물유형에 부합하는 영웅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음과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인물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언어 서사물인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상 서사물인 영화 《왕적성연》의 관계를 논하였다.

IV장에서는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표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와 유방의 일생에 대한 서사를 전달하고 있지만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서사표현

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항우본기>, <고조본기>는 항우와 유방의 인물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인물 유형을 부각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영화 《왕적성연》은 유방이 항우와 한신과 겪는 갈등,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카메라 구도, 색채로 나타내어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해당 장면에 정서와 부합하는 음향을 삽입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사기》가 전해져 내려온 시기만큼 《사기》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왔다. 본고는 영상매체가 주요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오늘날 모티프 제공의 역할을 하며 여전히 위엄을 유지하고 있는 《사기》의 서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항우, 유방, 사마천, 사기, 서사, 영웅

# 目 次

## 논문개요

|                                  |           |
|----------------------------------|-----------|
| <b>I. 서론</b> .....               | <b>1</b>  |
| 1. 연구목적 및 방법 .....               | 1         |
| 2. 기존연구 개황 .....                 | 8         |
| <b>II. 영웅서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b> ..... | <b>16</b> |
| 1. 영웅의 의미 .....                  | 16        |
| 2.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서사 .....           | 22        |
| 3. 프라이의 신화 전이 .....              | 27        |
| <b>III. 이야기 분석</b> .....         | <b>30</b> |
| 1. <항우본기> 이야기 분석 .....           | 31        |
| 2. <고조본기> 이야기 분석 .....           | 40        |
| 3. 영화 《왕적성연》 이야기 분석 .....        | 50        |
| <b>IV. 서사표현의 비교분석</b> .....      | <b>63</b> |
| 1. <항우본기>, <고조본기> 서사표현 이해 .....  | 63        |
| 2. 영화 《왕적성연》 서사표현 이해 .....       | 88        |

V. 결론 ..... 106

부록

참고문헌

ABSTRAC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방법

중국의 대표적인 사서(史書) 《사기(史記)》는 사마천(司馬遷, B.C. 145?~B.C. 86?)이 상고 시대의 황제(黃帝)에서부터 한무제(漢武帝, B.C. 156~B.C. 87)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 최초의 통사체(通史體) 사서이다. 《사기》는 현재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중국 한무제(漢武帝)때 편찬되었으나 기나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등으로 전환되어 모티프<sup>1)</sup> 제공의 역할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왕적성연(王的盛宴)》은 《사기》를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영상 서사물로 다시금 《사기》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필자는 《사기》가 활자 매체 또는 영상매체<sup>2)</sup>로 모습을 바꾸어가며 이야기를 전달하

- 1) 모든 서사물은 모티프를 지닌다. 모티프란 용어는 전통적 서사 문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가리키는데, 모티프에 대하여 톰젠(1946)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거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전통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는 텍스트의 요소로 특징짓는다고 하였다. 휘티(1962)는 개별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도 완결된 관계 영역으로서 전통 가운데 지속되는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라고 하였다. 《세계 문학의 모티프》의 저자 엘리자베스 프렌첼(Elisabeth Frenzel)은 모티프를 ‘어떤 태도라든가 배우들이 개별화되지 않는 어떤 객관적인 기본적 상황 같은 것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배경’에 대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모티프는 이야기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는 다른 모티프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엘리자베스 프렌첼, Horst S.와 Ingrid G. Daemmrich, Jean-Charles Seigneuret는 그들의 저서 《세계 문학의 모티프》, 《문학의 주제와 모티프》, 《문학 주제와 모티프 사전》에서 모티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2)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인류의 역사를 1)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 2) 문자 또는 필사 시대 3) 구텐베르크 시대 4) 전자 시대로 나누었다. 구텐베르크(1400?~1468)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됨으로써 책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구텐베르크 시대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필사에서 인쇄의 시대로 변화된 시대를 가리킨다. 《사기》는 사마천이 필사로 저술한 사서로 맥루한이 분류에 따르면 필사시대에 탄생한 저서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기》는 인쇄본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므로 활자매체에 속한다. 송태현, <문자와 이미지>, 《프랑스학연구》 제33집, 2005, p. 124. 각주 3) 재정리.

지만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전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본고는 《사기》의 다양한 활용성과 전환성에 착안하여 연구가 시작되었고, 《사기》와 《사기》를 각색한 서사물의 서사와 수용관계를 영웅모티프의 시각으로 밝히고자 한다.

활자매체와 영상매체가 상호 전환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우리는 ‘서사’<sup>3)</sup>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는 사건 전개와 인물묘사가 뛰어나 오늘날의 서사학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높은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sup>4)</sup> 《사기》의 체례 중 <표(表)> 10편<sup>5)</sup>과 <서(書)> 8편<sup>6)</sup>을 제외 한 <본기(本紀)> 12편,

- 
- 3) 스페인 어문학자 오네가는 서양의 60년대 이후의 서양의 주요 서사이론들을 검토하여, ‘시간적으로나 인과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된 일련의 이벤트들의 기호학적인 표출’이라는 광의의 서사를 제시하였고, ‘영화 연극 연속만화 소설 뉴스 영화 일기 연대기 역사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협의의 서사는 ‘전적으로 언어학적인 현상, 즉 서술자 혹은 이야기하는 자와 언어 텍스트에 의해 이뤄지는 언어 행위’이며, ‘장편소설 단편소설 서사시 발라드 재담 등 문학 장르들’이 협의의 서사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서사는 ‘서술자 혹은 이야기하는 자와 언어 텍스트에 의해 이뤄지는 언어 행위’인 협의의 서사와 ‘시간적으로나 인과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된 일련의 이벤트들의 기호학적인 표출’인 광의의 서사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활자매체와 영상 매체의 이야기와 이야기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사의 의미를 활자매체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광의의 서사로 해석하고자 한다. 한일섭, 《서사의 이론》, 한국문화사, 2009, pp. 19~20. 재정리.
- 4) 김학주 서울대 명예교수는 소설류에 속하는 《列女傳》, 《說苑》, 《新序》, 《西京雜記》, 《笑林》과 비교하여 “司馬遷의 《史記·列傳》들이나, 趙曄의 《吳越春秋》같은 史書중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小說에 더 가까운 內容과 形式을 지닌 좋은 文章들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기》의 문학성을 인정하였고, 陰法魯 북경대학 교수는 《사기》를 “인물 형상이 뚜렷하고 글이 간결하고 생동감 넘쳐 예술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역대로 우수한 문학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刻畫人物形象鮮明, 語言簡潔生動, 具有高度的藝術性, 歷來又被認爲是一部優秀的文學作品).”라고 하였다. 김학주, 《중국문학개론》, 현대문화사, 1992, p. 416; 陰法魯, 《古文觀止譯註(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 237.
- 5) ‘표’는 <삼대세표(三代世表)>, <십이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 <육국연표(六國年表)>, <진초지제월표(秦楚之際月表)>, <한흥이래제후연표(漢興以來諸侯年表)>, <고조공신후연표(高祖功臣侯年表)>, <혜경간후자연표(惠景間侯者年表)>, <건원이래후자연표(建元以來侯者年表)>, <건원이래왕자후자연표(建元以來王子侯者年表)>, <한흥이래장상명신연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총 1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기》는 인물중심의 기전체이나 ‘표’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하(夏)’, ‘은(殷)’, ‘주(周)’ 3대에서부터 한흥이래(漢興以來)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엮은 것이다. 3대의 일은 사마천이 ‘너무 멀어 구체적인 연대를 살피볼 수 없다(維三代尙矣, 年紀不可考)’고 말하였듯이 자세하게 기록하기에 어려워 함께 묶어 ‘세표(世表)’라 하였고, 이후의 일은 연도별로 기록하였는데 사건이 많은 것은 월별로 기록하였다.
- 6) ‘서’는 <예서(禮書)>, <악서(樂書)>, <율서(律書)>, <역서(曆書)>, <천관서(天官書)>, <봉선서(封禪書)>, <하거서(河渠書)>, <평준서(平準書)>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제도하

<세가(世家)> 30편, <열전(列傳)> 70편은 해당 편의 인물이 등장한다. <본기> 12편은 황제(黃帝)부터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의 업적을 기술한 편<sup>7)</sup>이며, <세가> 30편은 천자를 보필하여 충신의 도를 행한 중신(重臣)들을 기록한 편<sup>8)</sup>이다. <열전> 70편은 당대의 천하에 공명을 떨친 사람들의 일에 관한 기록으로 자객, 협객, 상인, 책사, 관료, 군인, 사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사기》가 인물중심으로 저술하였고 인물중심의 서사가 전체 130편 중 112편, 즉 약 8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이렇게 인물중심의 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에서 사마천은 인물마다 개성을 부각<sup>10)</sup>시키면서 한 인물의 일생 전말을 기록하였다. 이인호는 군체(群體)나 집단(集團)의 활동에

천문, 치수 등과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

- 7) <秦本紀>, <項羽本紀>, <呂后本紀>의 기록은 분명 帝王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本紀에 설정함으로써 후대학자들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중에서도 <項羽本紀> 설정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項羽本紀>를 비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논거는 <本紀>가 帝王의 年代記라는데 귀착되고 있다. 하지만 司馬遷이 <本紀>편에 帝王의 사적을 기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司馬遷이 생각한 帝王의 의미는 帝王이라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치의 大權을 가진 자라는 내용적인 것에 있었다. 노윤희, <사마천의 생애와 작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각주 87).
- 8) ‘世家’란 작위와 녹봉을 받으며 그 지위를 대대로 세습하여 물려주고 물려받는 터전이며 과거의 《世家》에 연원을 둔다. <世家>는 춘추전국 이래 분봉 받은 주요 제후국들과 한 이래 역대 황제들이 봉한 유씨 종실 및 개국에 협조한 창업 공신들을 포함한 諸侯, 귀족의 역사를 기록하여 당대를 주도한 역사의 주역들인 이들의 행적과 부침을 입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孔子世家>와 <陳涉世家>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며 또 <皇后本紀> 혹은 <皇后列傳>과 같이 생각되는 성격이 특수한 <外戚世家>도 있다. 이하진, <사마천의 사기 저작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 74.
- 9) 鼎文書局 史記標點本에 의하면 《사기》의 字數는 555,660 字, 총 등장인물은 4,044 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열전> 70편에는 과반수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승신, <《史記·列傳》人物形象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 19.
- 10) 茅坤은 《사기》의 몇 편을 예로 들어 “요즘 사람들은 (史記) 遊俠傳을 읽으면 곧 생사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고, 屈原賈誼傳을 읽으면 곧 눈물이 쏟아지려 하고, 莊周·魯仲連傳을 읽으면 곧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러 하고, 李廣傳을 읽으면 곧 싸움이라도 하려하고, 石建傳을 읽으면 허리가 절로 숙여지려 하고, 信陵君·平原君傳을 읽으면 곧 식객을 양성하러 한다(今人讀游俠傳, 卽欲輕生; 讀屈原·賈誼傳, 卽欲流涕; 讀莊周·魯仲連傳, 卽欲遺世; 讀李廣傳, 卽欲立鬪; 讀石建傳, 卽欲俯躬; 讀信陵·平原君傳, 卽欲養士)”라고 평하였는데 이는 사기의 인물들이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인호, <史記人物描寫研究(1)>, 《중국어문논총》 제7집, 1994, p. 49. 원문 재인용.

기술의 주된 목적이 있는 편년체에 비하여 《사기》의 기전체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인물의 일화와 대사건을 조화시켜 인물의 성격을 충분히 그려내고 있다<sup>11)</sup>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기》의 기전체가 성공적인 인물묘사의 결정적 요인의 하나<sup>12)</sup>라고 밝히면서 《사기》의 체제와 인물묘사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사기》의 체제와 인물묘사의 우수함으로 《사기》의 서사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한 대(漢代) 학자들과 당대(唐代) 유지기(劉知幾)가 서사에 대해 논한 것에서 《사기》의 전환성과 활용성을 모색할 수 있다.

반고(班固)는 《한서·사마천전(漢書·司馬遷傳)》에서 “유향, 양옹이래로 책을 널리 읽고 잘 아는 무리들은 사마천이 훌륭한 사관의 재능을 지녔다고 칭찬하였으니, 일의 이치에 차례를 잘 세우고 분별하지만 화려하지 않으며, 질박하지만 속하지 않고 그 문장은 곧으며 그 일은 진실 되어 헛되이 찬미하거나 악함을 숨기지 않아 이를 탄복하여 실록이라 하였다.”<sup>13)</sup>라고 기록하여 《사기》의 서사방식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평을 남겼다. 유지기는 서사의 체제를 ‘재능과 행실을 직접 기록하는 것, 사적만을 쓰는 것, 말을 통해 알 수 있게 하는 것, 논찬을 통해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것’ 네 가지로 구분<sup>14)</sup>하였다. 반고의 기록에 따르면 한대에 이미 사마천의 서사방식이 문장을 지을 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으며, 당대 유지기가 구분한 서사의 네 가지 체제는 인물의 행위 기술, 사건의 인과관계 전달, 대화 기법, 논찬을 운용하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서사방식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11) 이인호, 위의 논문, p. 53.

12) 이인호, <史記人物描寫研究(2)>, 《중국어문논총》 제13집, 1997, p. 49.

13) 然自劉向、揚雄博極羣書，皆稱遷有良史之材，服其善序事理，辨而不華，質而不俚，其文直，其事核，不虛美，不隱惡，故謂之實錄。 漢 班固 撰，唐 顏師古 注，《漢書》，中華書局，1997，p. 2738.

14) “蓋敘事之體，其別有四：有直紀其才行者，有唯書其事跡者，有因語言而可知者，有假讚論而自見者。” 안예선, <중국 고문의 서사론 연구:선진양한역사산문의 서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59집, 2013, pp. 107~108 재정리.

있다. 서사방식과 등장인물의 유형은 하나의 서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서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sup>15)</sup> 《사기》는 다양한 유형을 지닌 등장인물들의 일생에 대한 전말을 밝히면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생략·축약하면서 서사를 전개시켜나가고 있다. 문학적성과 예술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서사전개로 인하여 《사기》는 다른 서사물로의 전환이 용이하며, 다양한 인물유형으로 인하여 모티프를 제공할 수 있는 ‘모티프 제공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사기》는 기전체 사서로 백성부터 제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사기》의 체례에 대하여 중국학자 李荷蓮은 “<본기>, <세가>, <열전> 중 <본기>와 <세가>는 등장인물의 신분으로 인하여 사마천이 주관적으로 해당 인물을 그려내기가 어렵다.”<sup>16)</sup>고 하였다. 그러나 사마천은 제왕이 아닌 항우를 <본기>에 수록함으로써 《사기》의 편찬 취지 아래 항우라는 인물 유형을 만들어 내었다. 항우는 진(秦)과 한(漢)의 과도기에 봉기한 인물로 거병한 지 3년 만에 천하를 호령하는 서초패왕(西楚霸王)이 되었다. 그러나 항우는 일반 백성 출신인 유방과 오랜 시간 동안 대치하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항우를 거론하게 되면 어김없이 함께 등장하는 인물 유방은 일반 백성에서 일어나 한의 건국 황제가 된 인물로 항우와 동시대를 살면서 항우와는 또 다른 인물 유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동시대를 살면서 다른 삶을 보여준 항우와 유방은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있다. 항우와 유방의 일생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를 조셉 캠

15) 채트먼은 서사물의 구성요소를 표현질료, 표현형식, 내용질료, 내용형식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채트먼에 구분에 따르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인물과 중심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어떠한 전달방식, 문자로 서사를 전달하는 서사물일 경우에는 어떠한 서사기법으로 전달하느냐는 서사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6) “由于本紀和世家人物的特定身份問題，使得司馬遷難以作出更多的主觀傾向的取舍與表現”  
李荷蓮，〈淺析《史記》的悲劇人物及其精神〉，《貴陽民族學院學報》第5期，2011，p. 129.

벨의 영웅서사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셉 캠벨은 인간의 무의식이 투사된 영웅, 말하자면 인간의 집단이 그려낸 영웅 신화는 거의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sup>17)</sup>는 것에 주목하였다. 캠벨이 말한 영웅 신화라는 것은 주인공이 고난을 겪게 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게 되는 인류 보편적 성장이야기를 가리킨다. 이 영웅 모티프는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삶이 고단하다고 느끼는 시절에는 더더욱, 누군가 뛰어난 인물이 난국을 수습해주기를 고대한다.<sup>18)</sup> ‘뛰어난 인물’, 즉 영웅은 결국 현재의 힘든 삶에서 밝은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진(秦)의 포악한 정치로 반란이 들끓었을 때 초(楚)의 장군가문으로 거병하여 3년 만에 강대한 진을 멸망시켰으나 패왕으로만 그쳤던 항우와 일반 백성으로 일어나 패왕 항우를 제거하고 마침내 한을 세웠던 유방의 일생은 영웅적인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세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sup>19)</sup>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 실존했던 영웅이라 칭하였던 이들을 오늘날 다양한 매체로 다시 기억해내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싶다.

본고는 《사기》가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인구에 회자되고 다양한 매체로 전환되어 온 것에 주목하여, 근래까지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sup>20)</sup>로 각색되어 온 <항우본기>와 <고조본기>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자료로는 1959년 중화서국(中華書局出版)에서 간행한 《史記》(全十冊)의 <항우본

17) 조셉 캠벨 지음,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p. 491.

18) 박지향,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p.17.

19) 박지향, 위의 책, p. 19.

20) 드라마 《초한전기(楚漢傳奇)》(2012), 《초한쟁웅(楚漢爭雄)》(2011), 《초한풍운(楚漢風雲)》(2006), 영화 《홍문연전기(鴻門宴傳奇)》(2011) 등

기>(第一冊)와 <고조본기>(第二冊)<sup>21)</sup>를 저본(底本)으로, 번역서는 《史記9·본기2》<sup>22)</sup>를 참고본(參考本)으로 한다. 그리고 《사기》의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와 함께 연구할 영상 서사물은 201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개봉한 루촨(陸川) 감독의 《왕적성연(王的盛宴)》, 한국 개봉 시 영화 이름 《초한지: 영웅의 부활》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II장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절에서 영웅의 의미를 살펴보고 항우와 유방이 지닌 영웅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영웅서사구조를 단계화 한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서사이론을, 3절에서는 영웅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인공의 능력과 사회와의 맺는 관계에 따라 문학작품의 수준을 제시한 프라이의 이론을 설명하였다.

III장에서는 조셉 캠벨, 크리스토퍼 보글러, 프라이의 이론으로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주인공 항우와 유방의 활약상과 인물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항우본기>, <고조본기>가 《사기》를 각색한 현대 서사물인 영화 《왕적성연》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서사구조와 인물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전달 매체는 다르지만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IV장에서는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매체적 특징에 따른 서사표현을 분석하여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화 《왕적성연》의 수용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21) 漢 司馬遷 撰, 宋 裴駟 集解, 唐 司馬貞 索隱, 唐 張守節 正義, 《史記》, 中華書局出版發行, 1959.

22) 사마천 지음, 김병충 옮김, 《史記》, 집문당, 1994.

## 2. 기존연구 개황

《사기》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사기》가 세상에 나온 지 약 200년 후인 후한(後漢)때의 반고(班固)부터 시작<sup>23)</sup>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고대로부터 1994년까지의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중국에서만 근 300부의 저서와 3500편이 넘는 논문이 나와 있고 특히 1980년 이후로는 해마다 평균 10부 이상의 저서와 100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논문이 나왔다.<sup>24)</sup> 후한(後漢)이래 《사기》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양이 방대하므로 모든 《사기》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영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상 서사물을 비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영웅을 주제로 하여 <항우본기>, <고조본기>의 서사를 논의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하며, 영화 《왕적성연》과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영화가 부흥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sup>25)</sup>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사기》 서사 연구는 크게 《사기》의 저술에 대한 연구, 《사기》와 타 사서와의 비교 연구, <열전>의 저술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홍상훈은 <傳統時期 中國의 敍事論에 관한 研究>(1999)에서 중국의 서사 발전을 당대(唐代)와 명대(明代)의 두 분기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중국 초기의 서사의 발전에서 《사기》의 의의를 알아보았다. 홍상훈

23) 이인호, 위의 논문, p. 51.

24) 양중석, <《史記·列傳》의 重出事件 敍述 樣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p. 2~3.

25) 중국의 문화대혁명(1966~1976)이후 다시 문을 연 베이징영화대학 78학번들이 1982년 배출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련의 새로운 창작경향과 실험적 스타일이 중국영화에 출연했다. 이들을 5세대라 한다. 이들은 색채와 과격구도 등을 활용한 영상스타일을 실험하였고, 과거의 문화대혁명과 중국 사회현실에 대하여 우화적 비판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아 영화작품의 질적 전환을 이끌었다. 강내영, <중국영화의 6세대와 포스트 6세대 사이:루촨(陸川)감독론>, 《중국문화연구》 제44집, 2011, p. 197. 재정리.

은 초기 중국의 서사가 신성한 지식의 전달이라는 목적 지향적 ‘기술(記述)’이었으나 왕권통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술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의의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고 새로이 고안해낸 서사방식, 즉 《사기》의 기전체가 창의적이면서 주체적인 서사라고 평가하였다. 이하정은 <司馬遷의 《史記》著作에 관한 研究>(2010)에서 사마천의 생평과 저작동기, 저작방법, 저작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김지민은 <‘發憤著書’에서 ‘窮而後工’까지>(2009)에서 《사기》가 높은 문학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마천의 ‘發憤’이라는 창작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마천의 ‘發憤著書’說을 한유(韓愈)의 ‘不平則鳴’說, 구양수(歐陽脩)의 ‘窮而後工’說의 문이론과 비교하면서 작가의 창작환경과 작품성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은 살펴볼만하다. 《사기》는 역사산문 발전사에서 신기원을 이룬 사서로 타 사서와 비교 대상이 되어왔다. 양중석은 <《漢書》의 《史記》變容 樣相을 통해 본 史官의 글쓰기>(2012)에서 사마천의 역사적 인식과 저술 목적을 설명하면서 《사기》의 저술 특징을 기전체와 인물중심 서술로 꼽았고, 《한서》의 저자인 반고의 비판적 《사기》 계승, 저술배경과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기》의 서사에 관한 연구 중 <열전>에 관한 연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열전>의 인물분류, 인물형상, 인물 묘사방법, 한국과 일본의 <열전>과의 비교 연구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원은 <사기열전의법연구(史記列傳義法研究)>(1989)에서 <열전>체제와 등장인물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열전>의 서술방법과 후세에 끼친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양중석은 <《史記·列傳》의 重出事件 敘述 樣相>(2005)에서 기전체에서 부딪치게 되는 역사적 사건 서술의 중복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된 서술양상과 이러한 서술양상이 어떻게 인물을 형상화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지원은 <《사기·열전》과 《삼국사기·열전》·《오카가미·대신열

전》의 비교 고찰>(2012)에서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한문 문명권<sup>26)</sup>에 포함되며 전(傳)이라는 양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에 관심을 두며, 한국의 《삼국사기·열전》과 일본의 《오카가미·대신열전》의 인물선정과 서술방식, 논찬부를 비교연구하면서 《사기·열전》의 영향과 수용관계를 논의하였다. 이승신은 <《史記·列傳》人物形象 研究>(1993)에서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신료, 공자, 열녀, 기타로 선별하여 이들이 사마천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논의하였고, 김성일은 <史記列傳의 人物描寫技巧研究>(1994) 제2장에서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을 주전(主傳)인물, 부전(附傳)인물, 기타 인물로 나누어 분류했다. 또한 인물묘사기법을 장면묘사, 요약, 기술, 평론의 방법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사기》의 다섯 체례 중 <열전>이 가장 인물을 생생하게 그렸다고 평가하였다.

《사기》의 영웅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조진곤의 <한·중 영웅열전의 비교연구: 《사기(史記)》·《삼국사기(三國史記)》 소재 영웅열전을 중심으로>(2005)가 유일하다. 조진곤은 《사기》와 《삼국사기》의 <열전> 중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등장인물을 정치적, 군사적 인물로 구분하였고 이 인물들을 다시 성공적, 비극적으로 분류하여 《사기》와 《삼국사기》의 특징과 수용관계를 고찰하였다. 김진옥은 <司馬遷의 現實主義 文學 研究>(1998)에서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할 때의 역사 소재 선택기준, 인물에게 부여한 전형적 형상, 논찬부 추가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항우본기>를 체례에 편입한 이유와 항우라는 인물의 전형적 성격에 관한 목차를 추가하여 항우를 영웅적인 인물로 평가하였으나 영웅적 인

26) 조동일은 ‘공동문어’라는 용어를 통해 한문과 한문학이 중국의 문학이 아닌 중국과 한국, 일본, 월남 등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문학임을 명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문학은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를 편찬하고 공문서를 기록하는 용도로 쓰였다. 또한 한시를 쓰고 한문으로 된 글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문학 활동 이었다고 한다. ‘한문문명권’이라는 용어를 통해 조동일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였다. 정지원, <《사기·열전》과 《삼국사기·열전》·《오카가미·대신열전》의 비교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 1.

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조진곤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sup>27)</sup>

《사기》를 서사학의 관점으로 연구한 국내 논문은 총 20편이 있으며,<sup>28)</sup> 그 가운데 영웅을 주제로 《사기》를 연구한 논문은 조진곤<sup>29)</sup>이 유일하다.

《사기》를 서사학의 시각으로 연구한 논문 외에도 《사기》의 번역연구<sup>30)</sup>, 三家注 연구<sup>31)</sup>, 문학비평연구<sup>32)</sup>, 감생신화 연구<sup>33)</sup> 등이 논의되고 있어 국내

27) 조진곤의 연구처럼 영웅 모티프로만 《사기》를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그러나 조진곤은 영웅 모티프로 《사기》를 연구하였으나 <열전>의 등장인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항우와 유방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본고와는 연구대상이 다르다. 김건옥의 연구와 같이 항우를 영웅적 인물로 평가한 논문으로는 김이식의 <《史記》及其傳記文學之研究>(2005)이 있다. 김용하는 <秦의 統一과 分立傾向>(2014)에서 항우가 진을 멸망시킨 후 18왕을 분봉하게 된 배경과 항우의 역할을 분석하였을 뿐 항우의 인물유형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양중석은 <《漢書》의 《史記》變容 樣相을 통해 본 史官의 글쓰기>(2012)에서 《사기》와 《한서》에서 묘사된 항우와 유방의 인물형상을 비교하였다. 《사기》의 인물 유형 중 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을 거론한 논문으로는 이승신, <《史記》列傳 人物形象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성일, <史記列傳의 人物描寫技巧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이식, <《史記》及其傳記文學之研究>, 국립대만사범대학 국문연구소, 박사학위논문, 2005; 이하정,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이 있다.

28) 李河貞,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강현정, <사마천의 인간관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노윤희, <사마천의 생애와 작품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한재환, <司馬遷의 士 觀念과 立言意識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건옥, <司馬遷의 現實主義 文學 研究>,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정진, <司馬遷 《史記》의 史論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홍상훈, <傳統 時期 中國의 敘事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지민, <‘發憤著書’에서 ‘窮而後工’까지>,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정호민, <사기의 문학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유신, <《史記》戰爭 敘事文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史記》所載 戰國時代 策士 遊說文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한상우, <중국 문인에게 나타나는 역경의 순기능화에 대한 연구: ‘시다궁이후공’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양중석, <《漢書》의 《史記》變容 樣相을 통해 본 史官의 글쓰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정지원, <《사기·열전》과 《삼국사기·열전》·《오카가미·대신열전》의 비교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이영실, <독서교육 자료로서 《사기·열전》의 활용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승신, <《史記·列傳》 人物形象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김성일, <《史記·列傳》의 人物描寫 技巧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양중석, <《史記·列傳》의 重出事件 敘述 樣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29) 조진곤, <한·중 영웅열전의 비교연구: 《史記》·《三國史記》 소재 영웅열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30) 김윤경, <대상독자의 차이에 따른 중한 번역 사례 분석:스코포스 이론으로 본 《사기열전》의 번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31) 신아사, <《史記》 三家注 音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의 《사기》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국에서의 《사기》 연구로는 총 1360편으로 256편의 박사논문과 1104편의 석사논문이 나와 《사기》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사학의 관점으로 《사기》를 연구한 논문은 인물분석연구<sup>34)</sup>, 비교연구<sup>35)</sup>

32) 권은영, <《史記》를 통해 본 司馬遷의 문학 비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33) 조성윤, <《史記》의 感生神話 受容과 意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34) 陳遠爲, <《史記》劉邦與其集團成員關係研究>, 廣西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李曉宇, <《左傳》《史記》敘事寫人比較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段寶華, <《史記》中戰國食客的形象塑造及其特点>,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閻婧男, <史記游俠形象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毛素文, <《史記》人物的陽剛美與陰柔美>,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蔣秋華, <《史記》相形象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樂嘉, <論《史記》中漢武帝時期入仕文人的 人格與命運>, 重慶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高曉慶, <論《史記》中士的文化人格>,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陳鑫, <《史記》中的謀士形象研究>,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夏敏, <從《史記》中功成身敗的悲劇英雄說起>,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高慶峰, <論《史記》中孔子形象之獨特性>,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高發香, <試論《史記》中的女性形象>,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陳靜, <《史記》中漢初政治女性形象研究>, 重慶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趙騫, <《史記》女性群像論略>, 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張毅, <《史記》中的《游俠列傳》研究>, 復旦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任剛, <司馬遷對傳主心理動力的探掘>, 內蒙古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潘定武, <《史記》寫人成就探略>,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郭春雨, <《史記》的中下層人物形象分析>,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常昭, <《史記》士形象論>,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0; 葛剛岩, <論《史記》人物形象的崇高美及其形成原因>,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葛剛岩, <論《史記》人物形象的崇高美及其形成原因>,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賈利芳, <從《史記》人物塑造看司馬遷的人格理想>,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0; 宋麗軍, <司馬遷《史記》中的女性形象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997; 王次梅, <論《史記》中的人物傳記悲劇>,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986 등

35) 李曉宇, <《左傳》《史記》敘事寫人比較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李越, <《左傳》《史記》同事異文自動發現及分析>,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王瑜, <《左傳》記夢與《史記》記夢對比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袁喜竹, <《左傳》與《史記》史實相同部分的比較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王星芳, <《史記》與《戰國策》中策士形象比較研究>, 重慶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明娟, <《史記》、《漢書》中的女性形象>,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劉新華, <《史記》與晚清傳記>,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廖穎, <《左傳》與《史記》>, 貴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許勇強, <《史記》與《水滸傳》敘事藝術比較研究>, 重慶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王廣福, <《史記》采《戰國策》考論>, 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范艷清, <《史記》與魏晉南北朝文學>, 長沙理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呂靜, <《史記》神鬼物怪記載與六朝志怪小說>,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李燦, <論陳直先生的《史記》和《漢書研究》>,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張祖偉, <從《史記》、《漢書》、《後漢書》看《論語》在兩漢的流傳>,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黃二宇, <《左傳》《史記》寫人之比較研究>, 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沙志利, <《史》《漢》比較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羅芹, <司馬遷《史記》與希羅多德《歷史》之比較研究>, 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별로 《사기》의 수용연구<sup>36)</sup>도 진행되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이밖에 陳思의 <《史記會注考証》標点集考><sup>37)</sup>와 李輝의 <《史記·世家》三家注引文考校><sup>38)</sup>, 胡大海의 <《史記》論贊研究><sup>39)</sup>, 曹凱의 <《文選》李善注引《史記》輯校><sup>40)</sup> 등의 연구 주제는 《사기》의 사마천의 《사기》저술동기와 저술방법, 《사기》의 체재 구성

文, 2004; 王廣福, <《史記》采《戰國策》考論>, 西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曲萌, <《史記》《漢書》藝術風格之比較>,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998 등.

- 36) 樊婧, <《史記》在元代的傳播接受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余學娟, <辛弃疾詞對《史記》的接受研究>, 重慶工商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辛謙, <魏晉詩歌對《史記》的接受研究>, 重慶工商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安子毓, <《史記》所載秦代史事辨疑>,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耿文風, <唐代《史記》傳播研究>, 青島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趙洪梅, <《史記》在元雜劇中的接受研究>, 重慶工商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胡家驥, <東亞紀傳體史書的敘事模式:以《史記》、《漢書》和《三國史記》爲中心>, 復旦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黃愛華, <蘇教版《〈史記〉選讀》選修課的開設現狀與教學策略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董焱, <清代《史記》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王齊, <《史記》在明代的傳播與接受>,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應朝華, <《史記》在唐代的接受>,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虞黎明, <論《史記》在宋代的接受>,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元南, <論清代的《史記》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郭濤, <宋代浙東學派的史記研究>,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1994 등.
- 37) 陳思, <《史記會注考証》標点集考>,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판본과 관련된 연구는 이 외에도 劉廳, <《史記》中華書局點校本標點志疑>,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郭林, <文淵閣《四庫全書》本與中華書局點校本《史記》比勘札記>,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芮文浩, <《史記》百衲本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蘇芑, <南宋黃善夫本《史記》校勘研究>, 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등이 있다.
- 38) 李輝, <《史記·世家》三家注引文考校>,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주석과 관련된 연구는 이 외에도 聶亞紅, <《史記》“三家注”訓詁比較研究>, 湖北師範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吳昱昊, <《史記會注考證校補》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陳思, <《史記會注考証》標点集考>,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李輝, <《史記·世家》三家注引文考校>,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王曉君, <《史記》三家注與《漢書》顏注對比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등이 있다.
- 39) 胡大海, <《史記》論贊研究>,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논찬과 관련된 연구는 이 외에도 鄧燕, <論《史記》中的“太史公曰”>, 重慶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劉嘉, <《史記》“太史公曰”文体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蓋業明, <《史記》“太史公曰”研究作>, 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李艷麗, <“太史公曰”、“異史氏曰”比較研究>, 內蒙古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張家國, <《史記》《漢書》論贊研究>, 武漢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등이 있다.
- 40) 曹凱, <《文選》李善注引《史記》輯校>,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비평 관련된 연구는 이 외에도 劉漪穎, <史傳批評的批評:以《文心雕龍·史傳》爲中心>, 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朱晶晶, <明清《史記》評點研究:以程餘慶《史記集說》爲例>,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등이 있다.

과 특징, 인물묘사 방법 및 인물형상 등의 주제로 치중되어 있는 국내 연구에 비해 연구주제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사기》를 영웅의 주제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王迎新의 <英雄史觀的歷史合理性>(2008)을 주목할 만 하다. 王迎新은 역사에서의 한 인물의 작용과 그 인물로 인하여 역사가 창조 되었다는 영웅역사관으로 항우를 분석하여, 실패한 영웅으로서의 항우의 형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현대 중국에 팽배해진 영웅관을 연구하였다. 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영웅상을 현대 중국에서 요구하는 영웅상과 연관한 연구이므로 살펴볼 만하다. 항우와 유방의 인물유형을 논한 논문으로는 關秀嬌의 <論《史記》的悲劇精神>(2007), 唐會霞의 <《史記》悲劇藝術論>(2003), 任剛의 <《史記》人物取材研究>(2007) 등이 있다. 關秀嬌은 사마천의 비극적 의식으로 인해 《사기》의 등장인물은 비극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충돌로 인한 비극, 개인과 자아의 충돌로 인한 비극, 신구의 갈등으로 인한 비극 세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關秀嬌은 항우를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극적 말로를 맞이한 영웅의 예시로 들었다. 唐會霞는 《사기》의 등장인물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항우는 關秀嬌의 유형 분류와 마찬가지로 비극적 말로를 맞이한 영웅으로 분류하였다. 任剛은 시대별로 사마천이 수록한 인물의 유형과 그 원인을 밝혀 진(秦)과 한(漢) 사이의 중요 인물인 항우와 유방의 인물 성격 구축에 대해 논하였다.

이상으로 《사기》의 연구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의 선행 연구는 《사기》가 전해져 내려온 기간만큼 많은 연구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는 주로 중국 서사 발전사에서의 《사기》의 의의, 인물 형상 연구, 비교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주석연구나 문화사 관점으로 《사기》를 연구한 논문도 발견되나 일부에 그치고 있다. 기존 연구 중에서도 서사라는 주제로 《사기》를 연구한 논문이 많이 나왔으나 《사기》와 《사기》

를 각색한 영상 서사물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연구 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sup>41)</sup> 또한 항우와 유방이 다른 유형의 영웅적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에 비해 유방의 인물유형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항우와 유방의 영웅유형을 살펴보고,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와 서사표현을 비교분석하여 영상시대에서 《사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중국 문학작품과 영상 서사물을 비교 논의한 국내 논문으로 유경훈, <소설 《活着》과 영화 《活着》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진성희, <張愛玲 소설과 영화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황지은, <매체 전이 시 나타나는 서사 요소의 변화:소설 《紅高粱》과 영화 《紅高粱》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민주, <王朔 소설의 대중문화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강환엽, <산해경과 포켓몬스터 캐릭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옥란, <韓·中 兩國의 《三國志演義》 장르 變貌 樣相>,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안창현, <문화콘텐츠 원천소스로서 《서유기》의 구조분석과 활용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등이 있다. 국외 논문으로는 李天驥, <《活着》의困境——小說與電影的探尋>(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劉敏, <《活着》:小說與電影敘事藝術之比較>(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唐及超, <電影改編中的敘事轉換 ——以小說《活着》的電影改編為例>(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張睿, <張愛玲小說影視改編研究>(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劉四, <莫言小說的電影改編>(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高日暉, <《水滸傳》接受史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付勇, <從小說到電視劇 ——大眾文化背景下電視劇改編藝術研究>(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孫士生, <小說《紅嫂》及其跨媒介傳播研究>(蘇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朱杰, <選擇與傳播 ——中國現代文學的當代影視轉換>(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王燕飛, <《牡丹亭》的傳播研究>(上海戲劇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韓霄, <《三國演義》的現代傳播 ——以小說文本的傳播為例>(武漢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등이 있다.

## II. 영웅서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와 유방이라는 두 인물이 패권을 둘러싸고 일으킨 사건을 중심 내용으로 한 서사물이다. 초의 장군가문에서 태어난 항우는 진의 폭정으로 인하여 혼란할 때 반기를 들어 다섯 제후들을 이끌어 서초패왕이 되었고, 유방은 민간에서 거병하여 장량, 소하, 한신과 함께 서초패왕인 항우를 제거하고 한을 세웠다. 항우와 유방은 동시대를 살면서 영웅이라 칭하여졌고 이들의 일생은 오늘날까지 소설, 연극, 드라마 등으로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시대를 뛰어넘는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두 인물의 일생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절에서는 영웅의 의미를 알아보고, 2절과 3절에서는 영웅서사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이론과 영웅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웅의 의미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sup>42)</sup>를 지닌다. 사전적 의미로 영웅을 해석하자면 영웅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 또한 용맹하여 보통 사람들은 해내지 못하는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라

---

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웅이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영웅의 일생과 모험담을 다룬 ‘영웅서사’는 이야기의 기원이 되어온 신화와 민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sup>43)</sup>

영웅이 갈등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야기 주인공의 기능에 주목한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 1895~1970)의 이론은 살펴볼 만 하다. 프로프는 《민담형태론》<sup>44)</sup>에서 러시아의 민담들을 분석하여 등장인물의 행동을 31가지<sup>45)</sup>로 도식화하였다.<sup>46)</sup> 프로프의 등장인물 행동기능 31가지를 살펴보면

- 
- 43) 배주영, 최영미, <게임에서의 ‘영웅 스토리텔링’ 모델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집 4호, 2006, p. 111.
- 44)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어건주 옮김, 《민담형태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45) 1. 부재(기호:β) :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나있다. 2. 금지(기호:γ) : 주인공에게 금지가 내려진다. 3. 위반(기호:δ) : 금지를 위반한다. 4. 탐색(기호:e) : 적이 정보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5. 누설(기호:ζ) : 적에게 희생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6.속임수(기호:η) : 적이 희생자나 그가 가진 것을 획득하기 위해 희생자를 속이려 한다. 7. 방조(기호:θ) : 희생자가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적을 돕게 된다. 8. 가해(기호:A) : 적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힌다. 8-a. 결여(기호:A) :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에게 무언가 부족하거나 그가 무언가를 갖기를 원한다. 9. 중개연결요소(기호:B) : 불행 또는 결여가 알려지고 주인공에게 요청 또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주인공이 파견되거나 출발이 허락된다. 10. 대항개시(기호:C) : 탐색자가 저항을 결심하거나 동의한다. 11. 파견(기호:↑) : 주인공이 집을 떠난다. 12. 증여자의 첫 번째 기능(기호:D) : 주인공이 시험당하거나 심문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등 마법의 도구나 조력자를 얻는 발판을 마련한다. 13. 주인공의 반응(기호:E) : 주인공이 미래의 증여자의 행동에 반응한다. 14. 마법의 도구 획득(기호:F) : 주인공이 마법의 도구를 획득한다. 15. 두 나라 사이의 공간이동여행안내(기호:G) : 주인공이 그가 찾는 대상이 존재하는 장소로 옮겨지거나 인도되거나 안내된다. 16. 투쟁(기호:H) : 주인공과 적이 직접적인 싸움에 돌입한다. 17. 낙인(기호:J) : 주인공이 표지를 받는다. 18. 승리(기호:I) : 적이 패배한다. 19. 해소(기호:K) : 최초의불행 또는 부족이 해소된다. 20. 귀환(기호:↓) : 주인공이 돌아온다. 21.추적(기호:Pr) : 주인공이 추적당한다. 22. 구조(기호:Rs) : 주인공이 추적에서 벗어난다. 23. 은밀한 도착(기호:°) : 주인공이 집이나 다른 나라로 몰래 들어간다. 24. 부당한 요구(기호:L) : 가짜 주인공이 부당한 요구를 제안한다. 25. 난제(기호:M) : 주인공에게 어려운 과제가 부여된다. 26. 해결(기호:N) : 과제가 해결된다. 27. 인지(기호:Q) : 주인공을 인지한다. 28. 폭로(기호:Ex) : 가짜주인공 또는 적의 정체 드러난다. 29.변신(기호:T) : 주인공에게 새로운 모습이 부여된다. 30. 처벌(기호:U) : 적이 벌을 받는다. 31. 결혼(기호:W) : 주인공이 결혼을 하고 임금님이 된다.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어건주 옮김, 위의 책, pp. 61~114. 재정리.
- 46) 어건주는 프로프는 민담의 형태적 특성과 기본적 단위, 그들의 결합을 지배하는 내적인 구조 규칙만을 연구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연구 대상에 대한 의미 내용 정립이

주인공은 각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을 당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대적하는 인물을 물리치어 마침내 왕좌에 오르게 된다는 구조이다. 프로프의 31가지 기능에서 주인공은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력자 또는 도움을 주는 도구가 등장하며 적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데 프로프는 이 기능들이 모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생략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로프가 제시한 이야기의 31가지 기능은 모든 이야기가 지니는 구조이며 영웅서사에도 프로프가 제시한 이야기의 31가지 기능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프가 러시아의 민담으로 31가지의 이야기 기능, 즉 이야기의 모티프를 제공했다면 노스롭 프라이(Northrop Frye)는 개개의 문학 작품은 신화가 수준을 달리해 재배치<sup>47)</sup>된 것이라는 문학작품의 신화적 수준을 제시하였다. 프라이가 말하는 신화는 주인공의 행동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속한 환경보다 뛰어난 환경에 처해있는 수준을 가리킨다. 이 때 신화는 일반적으로 신적인 이야기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서 영웅은 일반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프로프와 프라이가 서양의 문학을 바탕으로 영웅의 의미를 제시했다면 조동일은 한국의 설화를 수집 및 분석하여 영웅의 의미와 영웅 이야기의 분류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동일은 영웅이야기를 영웅의 성패(成敗)와 능력을 분류하면서 영웅을 정의하였고, 영웅은 예사 사람은 지닐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며 반드시 세계와 심각하게 부딪쳐서 승패를 결정하는 인물이라고 하였다.<sup>48)</sup>

---

부재한 상태에서 형식만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단면적 분석에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건주, <프로프의 《민담 형태론》과 동화 분석:안테르센의 《눈의 여왕》을 대상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2집, 2010, p. 220.

47) 김공숙,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웅서사구조 분석: 《시크릿가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16.

48)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pp. 108~132. 재정리.

영웅은 대체로 비범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웅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복수, 분노, 경쟁심, 절망 등의 감정을 느낀다. 또한 치명적 결점이나 결핍이 존재하여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지혜를 습득하여 마침내 이상을 이루게 된다.<sup>49)</sup> 이렇듯 영웅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닌 인간 보편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은 영웅의 성장을 통하여 ‘나’의 성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웅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추앙되는 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항우와 유방은 오랜 세월동안 연극화, 소설화되어 우리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영웅으로 그들의 삶은 잊혀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항우와 유방이 영웅으로 칭송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사마천은 ‘진(秦)이 실정을 하자 진섭 등이 먼저 난을 일으켰고 호걸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다.’<sup>50)</sup>라고 하였다. 제일 먼저 난을 일으킨 진섭(陳涉) 등이 진의 멸망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成封侯之業’과 ‘割地有土之業’에 치우쳐 군현을 도륙하자<sup>51)</sup> 일부 군현의 관리와 백성들은 도살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의<sup>52)</sup> 하였다. 진의 실정으로 천하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살육이 난무해지자 백성들의 목숨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

49) 크리스토퍼 보클러 지음, 함춘성 옮김,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무우수, 2005, pp. 78~90. 재정리.

50) 夫秦失其政，陳涉首難，豪傑蜂起，相與并爭，不可勝數。 司馬遷，〈項羽本紀〉，《史記》第一冊，中華書局，1959，p. 338.

51) 진(陳)을 점령하자 그곳의 호걸과 부로(父老)들이 진섭에게 초의 사적을 복원하고 또 잇따라 일어날 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도 왕으로 자립할 것을 권유하자 진섭은 이를 장이(張耳)와 진여(陳餘)에게 상의하였다. 장이와 진여는 진섭에게 지금 왕으로 자립한다면 기의자들이 서로 왕으로 자립하여 천하는 흩어질 것이라며 왕으로의 자립보다는 제업(帝業)에 뜻을 두고 진을 공략하는 한편 진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관동(關東) 등 각지로 사람들을 보내 공략할 것을 제의하였다(今始至陳而王之，示天下私。願將軍毋王，急引兵而西，遣人立六國後，自爲樹黨，爲秦益敵也。敵多則力分，與衆則兵強，如此野無交兵，縣無守城，誅暴秦，據咸陽以令諸侯。諸侯亡而得立，以德服之，如此則帝業成矣。今獨王陳，恐天下懈也)。

〈西漢 帝國의 建國과 序二等 封建〉,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p. 32.

52) 박선희, 위의 논문, p. iii.

기에 진의 멸망이라는 대의 아래 봉기를 한 항우와 유방은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다.

항량은 살인을 저지른 후 오중(吳中)으로 피신하였으나 오중의 현명한 대부들의 존중을 받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중에서 명망이 있었다. 또한 항량은 초의 명장 항연(項燕)의 아들로 초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항우는 이러한 항량과 함께 하였으며 반진(反秦)을 위하여 회계군수(會稽郡守)를 베고 일어났다. 이어서 초 회왕(懷王)의 자손 심(心)을 세워 초 백성의 민심을 얻고<sup>53)</sup> 초의 부흥을 바라는 세력을 흡수하여 세력을 확장시켰다. 또한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사졸들을 위하여 경자관군(卿子官軍)을 배어 제후들에 의하여 대장군으로 추대 되었고 반진의군의 강력한 주역으로 떠올랐다.

패현(沛縣)의 현령, 소하(蕭何), 조참(曹參) 역시 도륙을 피하고자 유방을 불렀으나 현령은 곧 후회하고 소하와 조참을 주살하고자 하였다. 소하와 조참은 유방에게 피신하였고 유방은 패현의 백성들에게 진의 관리인 패현의 현령으로 인하여 결국 반란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패현의 백성은 현령을 죽이고 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유방을 패공(沛公)으로 추대한 것이다. 결국 유방의 봉기는 패현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유방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봉기 이후 유방은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으나<sup>54)</sup> 초의 노

53) 범중은 항량에게 진이 여섯 국가를 멸망시켰는데 그 가운데 초가 가장 죄가 없었고 초 백성들은 초 회왕을 아직도 가엽게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초에 3 가구만 있어도 진을 멸망시키는 것은 초다’라는 말도 있었듯이 진에 대한 초 백성들의 적개심은 가히 깊었다. 그렇기에 진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초의 백성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居鄆人范增, 年七十, 素居家, 好奇計, 往說項梁曰: “陳勝敗固當。夫秦滅六國, 楚最無罪。自懷王入秦不反, 楚人憐之至今, 故楚南公曰: “楚雖三戶, 亡秦必楚”也。今陳勝首事, 不立楚後而自立, 其勢不長。今君起江東, 楚讎午之將皆爭附君者, 以君世世楚將, 爲能復立楚之後也)。 司馬遷, <項羽本紀>, 위의 책, p. 300.

54) 항량이 전사한 뒤 초 회왕은 여신(呂信), 항우(項羽)의 군권을 빼앗은 것과 달리 유방의 군권만은 빼앗지 않은 것과 유방이 관중을 향하여 진군할 때 유방이 진섭과 항량의 흠어진 군사들을 거두어 비로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유방의 세력은 초 회왕이 경계해야 할 정도가 못 되었다. 박선희, 위의 논문, p. 69.

장(老將)들은 유방을 유덕자라고 하여 진의 폭정에서 진의 백성들을 구할 인물은 유방뿐임을 주장하였다. 유방이 남양군수(南陽郡守)의 투항을 받아주면서 이후 제후들은 유방의 관인함에 모두 유방을 따랐고, 진군을 분란시켜 마침내 입관하게 된 유방은 혼란으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3장(章)의 법을 약속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진 자영(秦子嬰)을 죽이고 의제(義帝)를 시해하며 제후들의 반란을 일으킨 항우를 제거하고 한의 황제가 된다. 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국호를 대초(大楚)로 하여<sup>55)</sup> 먼저 일어났으나 진의 멸망이라는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제업을 이루고자 한 진섭으로 인하여 천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 민심을 살피고 강력한 군사로 진에게 대항한 항우와 백성의 안위를 먼저 하여 세력을 키워나간 유방은 안정된 삶과 생업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적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와 유방은 백성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인물로 이들이 겪는 시련과 위기는 곧 백성들의 시련과 위기이며, 항우와 유방이 봉기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되는 성공은 바로 백성들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이다. 진에게 시달린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 진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에게 해방을 안겨준 항우와 유방은 영웅으로 칭송받을 만 하며, 백성들의 주체화 과정을 반영<sup>56)</sup>하고 있는 항우와 유방의 일생은 영웅서사로서 모든 이야기가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 원형을 지니고 있다.

55) 진섭과 오광(吳廣)은 술졸(戍卒)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었으나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참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이들은 감독하던 위(尉)를 살해하고 참수한 머리로 제사를 올렸으며 초의 풍습대로 우단(右袒)하고 국호를 대초(大楚)라고 칭했다. 사타케 야스시산(佐竹靖彦)은 우단은 초의 풍습임을 논증하였다. 진섭과 오광이 봉기하면서 내세운 초의 풍습과 국호를 통하여 이들은 진에 의해 멸망당한 초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비쳤다. 김용하, <秦의 統一과 分立傾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pp. 26~27. 재정리.

56) 최정은, <NHK 드라마 《요시쓰네》에 나타난 영웅서사구조의 원형과 변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집 2호, 2012, p. 164.

## 2. 캠벨과 보글리의 영웅서사

캠벨은 서로 접촉이 없는 세계 각 문화권의 무수한 영웅 신화와 심층 심리학의 꿈 해석에서 재발견되는 영웅의 상징체계를 분석하였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들 가운데서 하나의 영웅, 즉 모든 영웅 신화의 원형이 되는 하나의 영웅<sup>57)</sup>을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곧 ‘세상 모든 이야기에는 일반적인 기본 구조가 있고, 이것들은 다 비슷하다’<sup>58)</sup>고 주장한 캠벨의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캠벨은 신화의 핵심은 보편적인 인간이 성장하기 위한 필연적 통과의례라고 보았으며 이 통과의례를 구조화하여 <출발>, <입문>, <귀환> 세 단계와 세부 17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1>와 같다.

표1. 캠벨의 17단계 영웅 서사모델<sup>59)</sup>

| 단계 | 세부 단계    | 서사 내용   |
|----|----------|---|
| 출발 | 모험에의 소명  | 영웅은 부지중에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세력과의 관계 속으로 끌려가며 전령관(고지자)은 영웅에게 모험에의 소명을 알린다. |
|    | 소명의 거부   | 모험을 향하여 나가기를 거부하고 주저한다. 영웅이 누리던 화려한 세계는 황무지가 되고 삶의 의미는 무의미해진다.              |
|    | 초자연적인 조력 | 모험을 시작하게 된 영웅은 초자연적인 조력자를 만나게 되며 조력자는 영웅을 보호하고 적에게 맞설 호부(護符)를 준다.           |
|    | 첫 관문의 통과 | 영웅은 모험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한 단계 더 어려운 영역에 이르고 입구에서 관문의 수호자를 만난다. 새             |

57) 조셉 캠벨 지음, 이윤기 옮김, 위의 책, p. 491.

58) 노혜선,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 한 MMORPG에서의 서사 방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 11.

59) 조셉 캠벨 지음, 이윤기 옮김, 위의 책, pp. 69~314. 재정리.

|           |                  |   |
|-----------|------------------|---|
|           |                  | 로운 경험역을 지나기 위해 첫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
|           | <b>고래의 배</b>     | 영웅은 관문을 지키는 세력을 정복하거나 그 세력과 화해하는 대신 그 미지의 힘에 빨려 들어가 결보기에는 죽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웅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
| <b>입문</b> | <b>시련의 길</b>     | 영웅은 초자연적인 조력자의 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위협을 넘긴 뒤 예비적인 승리를 거둔다. 신화와 모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단계이다.  |
|           | <b>여신과의 만남</b>   | 여신은 영웅에게 일련의 변형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영웅은 여신을 만나 은혜(자비, 즉 운명애의 사랑)를 얻기 위해 영웅이 맞는 마지막 재능의 시험을 맞는다. 주인공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치르는 마지막 모험은 여신과의 신비스러운 혼례로 표상된다. |
|           | <b>유혹자로서의 여성</b> | 여신과의 결혼으로 영웅의 삶이 완성되었다. 여신과의 결혼으로 어머니 상은 파괴되었고 시련을 겪게 되는 아버지가 곧 자신이라는 것을 영웅은 깨닫게 된다.  |
|           | <b>아버지와의 화해</b>  | 영웅은 조력자인 여성에게서부터 아버지의 입문의식을 보호받고 위기를 견디어 나가며 결국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다.   |
|           | <b>신격화</b>       |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영웅은 모든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고 변화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신적인 상태를 획득한다.  |
|           | <b>홍익</b>        | 개인적인 한계를 넘는 고통은 곧 정신의 성숙에 따른 고통이며 인간이 한계의 지평을 넘고 드넓은 자각의 영역으로 건너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로써 영웅은 적을 쓰러뜨리고 관문을 지나면서 우주 전체에 자신이 갈망하는 신의 모습으로 채우게 된다.  |
| <b>귀환</b> | <b>회귀의 거부</b>    | 남성이나 여성, 인간이나 동물로 화신한 자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영웅의 임무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웅은 생을 역전시키는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영웅은 이를 회피한다.                              |
|           | <b>불가사의한 도주</b>  | 영웅이 그가 속한 사회를 구원할 불사약을 가지고 복귀할 때 전리품이 수호자의 의지에 반한 상태에서 영웅의 손에 들어갔거나 영웅의 귀환 의사가 신이나 악마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추격전이 벌어진다.                              |

|  |           |  |
|--|-----------|--|
|  | 외부로부터의 원조 | 영웅은 외부의 지원을 빌려 모험에서 귀환하게 된다.   |
|  | 귀환 관문의 통과 | 영웅은 자신의 속한 세계에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원래 자신이 속한 세계로 귀환하게 된다.                       |
|  | 두 세계의 스승  | 두 세계는 일상적인 이승의 세계와 시간을 초월한 저승의 세계를 가리킨다. 영웅은 두 세계를 깨달아야만 위대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
|  | 삶의 자유     | 영웅은 모험을 통하여 시간적 현상,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불멸의 삶과의 진정한 관계를 깨닫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게 된다.      |

보글러는 융의 심리학과 조셉 캠벨의 신화연구를 현대 영화와 고전 영화에서 도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영웅서사이론을 설명하였다. 캠벨이 모든 이야기는 보편적 이야기 구조를 지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영웅 서사를 도출해내었다면 보글러는 한 발 더 나아가 작가 및 감독이 글을 쓰는 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웅의 여행’이라는 서사이론을 제시하였다.<sup>60)</sup> 보글러가 제시한 영웅의 여행은 캠벨의 3단계 서사구조를 시나리오의 보편적인 3막 구조로 변형하고 단계별 요소도 12단계로 변형하거나 생략하였다.<sup>61)</sup>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0) 보글러는 ‘이 책은 작가를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로 의도되었지만, 고금의 모든 스토리내에 세심하게 구축된 삶의 교훈에 대한 길잡이로도 읽힐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여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난을 예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 지침서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책의 요지를 드러냈다. 크리스토퍼 보글러 지음, 함춘성 옮김, 위의 책, p. 14.

61) 이후석,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영웅의 유형별 스토리텔링 연구>,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 16.

표2. 보글리의 12단계 영웅 서사모델<sup>62)</sup>

| 단계          | 세부 단계            | 서사 내용  |
|-------------|------------------|--|
| 제1막<br>(출발) | 일상세계             | 영웅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단계로 스토리의 바탕이 되는 요소를 설명한다.                                    |
|             | 모험의 소명           | 영웅은 일상세계에서 떠나 모험을 향해 나아가기를 요구받으며 자발적으로 모험을 선택하기도 하나 대부분 거부하고 외면한다.         |
|             | 소명의 거부           | 영웅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모험의 관문 앞에서 소명을 거부하며 주저한다.                                    |
|             |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 영웅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정신적 스승을 만나게 된다.  |
| 제2막<br>(입문) | 첫 관문의 통과         | 영웅은 모험을 가로막는 존재를 제거하고 첫 관문을 통과하고 특별한 세계로 들어선다.                             |
|             | 시험, 협력자, 적대자     | 이 단계는 영웅이 훈련을 받는 단계로 적대자와 협력자를 만나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비한다.                        |
|             | 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 지금까지의 훈련을 실행하여 시련의 정점을 향해간다.   |
|             | 시련               | 적과 정면으로 마주하여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
| 제3막<br>(귀환) | 보상               | 시련의 위기를 넘긴 후 영웅은 검 또는 영약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
|             | 귀환의 길            | 보상을 받은 영웅은 다시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되며 다시 적과 마주하게 된다.                                 |
|             | 부활               | 영웅은 부활의 단계에서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대개 부활한다. 그러나 비극적 영웅은 실제로 죽음을 맞게 된다. |
|             | 영약을 가지고 귀환       | 영웅은 영약을 가지고 귀환하여 모험을 마치게 된다.   |

62) 크리스토퍼 보글리 지음, 함춘성 옮김, 위의 책, pp. 135~329. 재정리.

캠벨과 보글러의 서사구조를 대조하면 보글러의 영웅서사구조가 캠벨의 서사구조보다 확실히 간략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캠벨의 출발 단계는 보글러의 제1막에서 충실히 반영하였다. 다만 캠벨이 ‘모험에의 소명’으로 하여 모험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다면 보글러는 이를 ‘일상세계’와 ‘모험에의 소명’으로 구분하여 앞으로 영웅이 나아갈 특별한 세계와 비교할 만한 세계를 만들었다. 또한 보글러는 캠벨의 ‘고래의 배’ 단계를 제2막 ‘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으로 대치하여 스토리 상 위기 장면에 대응하게 만들었다.<sup>63)</sup> 보글러의 제2막은 캠벨의 ‘입문’단계에서의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험, 협력자, 적대자’로 통합되었고, ‘신격화’, ‘홍익’은 보상으로 통합되었다. 캠벨의 ‘귀환’단계 역시 보글러의 제3막에서 집약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글러는 캠벨의 ‘입문’, ‘귀환’의 단계를 축약하고 변형하여 갈등의 고조와 여러 번의 위기를 만들어 내면서 이야기의 전개를 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상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서사구조를 대조한 결과, 캠벨은 영웅의 성장과 시련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면 보글러는 캠벨 영웅서사구조를 축약하여 서사전개에 속도를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캠벨의 영웅서사단계가 명확한 것은 각 단계를 통과하면서 성장한다는 통과 의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벨의 영웅서사이론은 영웅적 신화나 민담이 원형인 서사물의 서사적 맥락을 파악<sup>64)</sup>하기에, 보글러의 영웅서사 이론은 신화와 민담의 요소들을 축약·변형한 서사물의 서사적 맥락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63)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제42집, 2008, p. 507.

64) 한교경,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2013, p. 165.

### 3. 프라이의 신화 전이(轉移)

프라이는 문학의 형식을 소급하여 그 혈통을 간추리면 맨 처음, 즉 최초의 문학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화라고 말한다.<sup>65)</sup> 즉, 모든 문학은 신화로부터 출발하며 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프라이는 모든 문학이 지니고 있는 신화의 원형성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용 수용<sup>66)</sup>된다고 하였다. 프라이가 제시하고 있는 신화의 변형은 등장인물의 탁월성의 차이<sup>67)</sup>에 따라 문학작품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절에서 출발하고 있다. 프라이는 주인공의 행동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들보다 그 주인공의 행동능력이 더 큰가, 더 작은가, 또 같은가 하는 기준에 따라 문학작품을 ‘신화-로맨스-상위모방-하위모방-아이러니’ 다섯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그들의 환경보다 뛰어난 환경에 처해있다면 ‘신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뛰어남이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로맨스’, 주인공이 뛰어난 권위·열정·표현력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적 비판뿐만 아니라 자연적 질서에도 영향을 받으면 ‘상위모방’,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또한 자신의 환경보다도 뛰어나지 않으면 ‘하위 모방’,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경멸에 찬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받게 될 경우 ‘아이러니’ 양식<sup>68)</sup>에 속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는 또한 주인공이 사회와 맺는 관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문학

65) 최민성, 위의 논문, p. 508.

66) 한교경, 위의 책, p. 174.

67) 등장인물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작품(fiction) 속의 등장인물이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가 아닌가, 또는 더 악한 가 아닌가의 정도를 가리킨다. 노스롭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pp. 95. 재정리

68) 노스롭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위의 책, pp. 96~97. 재정리

작품을 비극적 경향과 희극적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69)</sup> 주인공이 사회와 대립하는 것으로 끝나면 비극적,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희극적이라는 것이다.<sup>70)</sup>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이 두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비극적 이야기가 ‘신화’에 적용될 때 이 이야기들은 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영웅이 여전히 반 정도의 신에 지나지 않는 ‘로맨스’에서 주인공의 죽음이나 고립은 오만과 과오라는 아이러니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영웅주의를 보여준다. ‘상위모방’에서는 주인공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로 주인공의 몰락은 주인공이 속한 사회와 관계있다. 주인공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하위모방’에서는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 상상적인 현실과 사회의 공동의지에 의해서 구축된 현실과의 대립 등으로 몰락해가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아이러니’는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주인공은 불행의 희생물이 된다.

희극적 서사 양식에서 ‘신화’는 주인공이 어떻게 신들의 사회에 의해 수용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며, ‘로맨스’는 사회로부터의 도피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기에 전원이나 변경의 단순한 생활을 이상화한다. ‘상위모방’의 희극 양식은 주인공이 방해자를 차례로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며 주인공은 종종 이 승리에서 다시 태어난 신의 영예가 부여된다. ‘하위모방’에서 주인공은 흥미로운 사람은 아니나 사회적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며 주인공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희극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 상승의 결말을 이룬다. 아이러니 양식 희극은 관객이 언제나 감상적인 분위기, 엄숙성, 그리고 정절과 공중도덕의 최종적인 승리를 갈구하고 있다고 가정

---

69) 이때 비극적, 희극적이라는 말은 극의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플롯의 일반 양상을 가리킨다. 노스럽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위의 책, p. 100.

70) 노스럽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위의 책, pp. 29~30. 재정리

하고서 관객을 조소하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는 경향을 띤다.<sup>71)</sup>

프라이는 서사구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화 수준과 인물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문학작품의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캠벨과 보글러가 신화적 원형으로 영웅서사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다면, 프라이는 문학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이야기 구조를 시대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할 수 있는 통시적인 이론을 제공하였다. 필자는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서사이론을 <항우분기>, <고조분기>가 지니고 있는 서사적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프라이의 신화전이이론을 항우와 유방의 영웅적 특성과 영웅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하여 <항우분기>, <고조분기>, 영화 《왕적성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

71) 노스롭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위의 책, pp. 95~131. 재정리

### Ⅲ. 이야기 분석

롤랑 바르트는 ‘인물이란 개념은 부차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플롯<sup>72)</sup>에 종속된 것이다’<sup>73)</sup>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인물의 특성만으로는 인물을 분석할 수 없으며 인물은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과 인물이 겪는 사건에서 대립하는 인물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과 대립은 한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한 인물의 성장과정을 캠벨은 신화의 원형이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웅서사구조를 제시하였다. 진말 난세에 일어나 진을 멸망시키고 천하의 안정을 이루고자 한 항우와 유방은 붕기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웅으로 거듭났다. 영웅으로 불리는 항우와 유방의 일생을 담은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영웅 서사물이며,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서사이

72) 20세기에 들어 서사구조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사람들과 그 용어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구조의 이분법적 요소

|          |          |          |
|----------|----------|----------|
| E.M. 포스터 | story    | plot     |
| 쉬쿨로프스키   | fabula   | sujet    |
| 토마쉘프스키   | fabula   | sujet    |
| 토도로프     | historie | discours |

여기서 fabula는 이야기의 재료(materials)에 해당하는 것이고, sujet는 그 재료를 예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토마쉘프스키의 경우 fabula는 모티프의 총체를, sujet는 모티프의 총체를 예술적으로 배열하여 만든 것을 의미함이고, 토도로프의 historie는 현실생활의 인물들과 서로 혼동될 수 있는 인물들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여, 책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전달된다고 하였다. discours는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가 있고 독자가 있어, 진술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이분법적 개념들을 살펴보면 스토리·파블라·이야기는 소재·재료·원료적인 개념이고, 플롯·취제·담화는 미적으로 구성된 완성품적 개념이어서 Vorlek는 전자를 서사구조의 심층구조, 후자를 표면구조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p. 73. 각주 15) 재인용.

73) 한국현대소설학회, 위의 책, p. 158.

론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 항우와 유방의 영웅적 면모와 영웅의 유형을 프라이의 신화전이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항우본기>, <고조본기>의 서사구조와 주인공의 인물유형을 분석하여 사마천의 영웅서사모델을 이해하고자 하며, 《사기》를 각색한 영화 《왕적성연》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1. <항우본기> 이야기 분석

### 1) 출발

#### (1) 모험에의 소명

항우의 가문은 대대로 장군을 지낸 가문이다. 어렸을 적 항우가 서도와 검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자 항량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만인의 적을 대항하는 법을 청하자 항량은 항우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항량이 살인을 하여 항량과 항우는 오중(吳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항량과 항우가 함께 진시황제의 순행을 보았는데 항우가 “저놈을 대신해서 내가 들어서야겠다.”고 외치자 항량이 입을 막았으나 기특해하였다. 항우의 신장과 힘과 재기로 오중의 젊은이들이 모두 항우를 두려워했다. 진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항량은 항우에게 회계군 군수(會稽郡郡守)를 벨 것을 말한다.

#### (2) 소명의 거부

항우는 회계군 군수를 벨 것을 요구하는 항량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주저 없이 회계군 군수의 머리를 베었다. 회계군 군수가 죽자 관저 내 무리들이 어지러워지니 항우는 1백 여인을 죽였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시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항량은 회계군 군수가 되고 항우는 부장(副將)이 됨으로써 항량과 항우는 진의 반란 흐름에 뛰어들게 된다.

### (3) 초자연적인 조력

항우는 항량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고 항량과 함께 모의하여 회계군수를 베고 오(吳)에서 거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에게 항량은 언제나 함께 하는 조력자였다. 항우와 항량이 거병하고 난 뒤 또 다른 조력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범증(范增)이다. 범증은 설(薛)로 향하여 항량을 만나 진승이 먼저 거사하였으나 세력이 장구하지 않은 것은 초왕의 자손을 세우지 않고 자립한 것 때문이라 하였다. 항량은 옳다고 여겨 초 회왕 자손심(心)을 세워 초 회왕으로 삼아 민의를 따르고자 하였다. 범증의 계책으로 항량은 심을 초 회왕으로 세웠고 이후 초군의 위세는 점차 커져간다.

### (4) 첫 관문의 통과

오에서 거병한 뒤 항량과 항우는 세력을 점차 넓혀간다. 성양(城陽), 북양(濮陽), 옹구(雋丘)를 차례로 격파하고 이유(李由)를 베었다. 승승장구로 교만한 빛을 보인 항량은 결국 정도(定陶)에서 진군에서 대과당하여 전사하였다. 회왕은 항량의 전사로 인해 두려워하여 항우와 여신의 군권을 빼앗아 자신이 수장이 되었다. 항량의 전사로 인하여 초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항우 역시 거병 이후 위기를 맞게 된다.

## (5) 고래의 배

항랑이 전사한 후 조(趙)가 구원을 요청해오자 초왕은 송의(宋義)를 상장군으로, 항우를 차장으로, 범증을 말장으로 삼아 조를 구하게 했다. 초군이 안양(安陽)에 이르러 46일간 진발하지 않자 항우가 조왕이 거록(鉅鹿)에 포위되어 있으니 초군이 성 밖에서 공격하고 조군도 호응하면 진군이 격파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송의는 진과 조를 싸우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며 듣지 않았다. 항우는 기근으로 식량이 바닥났으며 강대한 병력의 진군은 조를 쳐 이기고 더욱 강해질 것인데 송의는 사사로운 일에 힘을 들인다고 말하며 이른 아침 송의의 목을 베었다. 제장들이 떨며 굴복하였고 항우를 세워 대장군으로 삼았다. 회왕은 항우를 대장군으로 삼았으며 당양군(當陽君)과 포장군(蒲將軍) 등이 항우에게 소속되었다. 송의를 죽인 후 항우의 위세가 초에 떨쳐지고 명성이 제후 사이에 들리게 되었다.

## 2) 입문

## (6) 시련의 길

항우가 함곡관(函谷關)에 도달했으나 병사들이 문을 수비하여 닫고 있어 입관할 수 없었고, 유방이 이미 함양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항우는 대노하여 유방을 치고자 했다. 항백은 이 소식을 장량에게 전하였고, 유방은 다음날 항우에게 사죄하기로 한다. 항우는 유방을 위해 주연을 베풀다. 범증이 자주 눈짓하여 항우에게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으나 항우는 응하지 않았다. 범증이 항장(項莊)을 불러 검무하다가 유방을 죽이라 한다. 항장이 검무

를 청하여 춤을 추었으나 항백이 검을 빼어 춤을 추면서 몸으로 유방을 보호해 치지 못했다. 군문에 있던 변쾌는 장량에게 위급한 상황인 것을 듣게 되고 주연 자리에 난입한다. 얼마 안 되어 유방이 일어나 변소로 가는 척 하며 도망쳤다.

(7) 여신과의 만남 / (8) 유혹자로서의 여성 / (9) 아버지와의 화해 / (10) 신격화

<항우본기>에는 항우가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여신과 성장하면서 부딪치면서 화해하게 하는 인물, 즉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항우는 자신의 능력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으며 신이 아닌 패자(覇者)로 추앙되어진다.

(11) 흥익

수일이 지난 후 항우는 함양을 무찌르고 진의 항복한 왕인 자영을 살해했으며 진의 궁실을 불사른 뒤 진의 보화와 부녀자를 몰수하여 동행(東行)했다. 항왕이 회왕을 높여 의제로 삼고 자신은 서초 패왕이 되었으니 천하를 분할해 제장을 세우고 후왕(侯王)으로 삼았다.

3) 귀환

(12) 귀환의 거부

어떤 사람이 관중은 사면으로 막혀있고 비옥한 땅이니 도읍하면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항우는 진의 궁실이 타서 파괴된 것을 본 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하여 부귀하게 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말한다.

### (13) 불가사의한 도주

유방은 마땅히 관중의 왕이 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관중을 되찾고자 하였다. 항우와 유방은 팽성(彭城), 형양(滎陽), 성고(成皐), 광무(廣武)에서 접전하였다. 항왕과 유방은 해하를 사이에 두고 포진하였다. 항우는 병사의 수도 적고 식량도 다하자 밤을 틈타 도망쳤다. 한군이 이를 알아차려 항우를 추격했다. 한군이 바짝 뒤쫓아 오고 따르는 기병 수도 적어지자 항우는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항우는 따르는 기병에게 곤궁하게 된 것은 하늘이 망하게 한 것이지 전투에서 약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죽음을 무릅쓰고 적장을 배어 이를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항우는 한군의 도위(都尉)를 베고 수 백 명의 사람을 죽였다. 항우는 다시 동으로 향하여 도망쳤다.

### (14) 외부로부터의 원조

항우는 동으로 가 오강(烏江)을 건너려고 했다. 오강의 정장이 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며 한군이 이르더라도 건너지 못할 것이니 강동의 땅이 작지만 왕자가 되기에는 충분하니 서둘러 강을 건너갈 것을 말한다. 급박하게 적에게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항우는 도움을 받게 된다. 항우는 정장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가게 되면 강동의 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항우는 정장의 도움을 거절하며 스스로

위험을 선택한다.

### (15) 귀환 관문의 통과

항우는 기사들에게 명하여 말에서 내려 보행하게 하고 단병(短兵)으로 한군과 접전했다. 항우 혼자서 죽인 한의 군사만 해도 수백 명이 되었다. 항우가 한의 기사마(騎司馬) 여마동(呂馬童)을 보고 옛 친구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여마동이 항우를 보고 왕예(王翳)에게 이 사람이 항왕이라고 말했다. 항우는 이에 자신의 머리에 걸린 상금을 그대를 위해 배풀겠다고 말한 뒤 자결한다.

### (16) 두 세계의 스승 / (17) 삶의 궁극적 자유

항우는 귀환을 도와주고자 하는 정장의 도움을 거부하고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한다. 이는 항우의 죽음으로 영웅이 마땅히 완성해야 할 여정이 완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항우본기>의 서사를 캠벨의 영웅서사구조를 운용하여 살펴본 결과, <항우본기>의 서사는 캠벨이 제시한 영웅서사와 일부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소명의 거부’, ‘귀환 관문의 통과’,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 화해’, ‘신격화’, ‘두 세계의 스승’, ‘삶의 자유’ 단계는 변형 및 생략되고 있는데, 이는 <항우본기>의 주인공 항우의 인물유형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캠벨의 ‘소명의 거부’ 단계에서 주인공은 영웅의 모험을 회피하지만 항우는 진을 대항하는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기 때

문에 <항우본기>에서 주인공은 소명을 받들고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우본기>는 영웅을 도와 영웅의 삶을 완성시키는 여신과 성장하면서 부딪히지만 화해하게 되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존 인물에 대한 전기이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우는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영웅이므로 귀환 관문을 통과하고 영웅적 삶을 살아가는 <귀환>의 마지막 세 단계 역시 변형·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입문>의 ‘시련의 길’ 단계까지는 영웅이 모험을 떠나 시험을 겪고 예비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 단계로 <항우본기>는 이 서사구조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삽입된 사건들을 통하여 항우가 영웅으로서 지닌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마천은 항씨가 대대로 초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면서 항씨가 장군의 기질을 가졌음을 암시하였고, 어린 시절 항우가 항량에게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sup>74)</sup>라고 한 것이나 진의 시황제가 순행하는 것을 보고 “저놈의 자리를 빼앗아 대신하겠다.”<sup>75)</sup>라고 직접 얘기하도록 하면서 항우가 항씨 가문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사마천은 ‘회계군수의 머리를 베자 무리들이 놀라 어지럽게 되었다. 항우가 1백 인을 죽였고 이로 인하여 모두 겁에 질려 앞드려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항량은 회계군 군수가 되고 항우는 부장이 된다.’<sup>76)</sup>라는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항우가 봉기에 대하여 거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설정하였다. ‘소명의 거부’는 영웅이 모험을 거부하고 조력자의 도움과 지혜를 얻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우본기>에서는 항우가 소명

74) 項籍少時，學書不成，去學劍，又不成。項梁怒之。籍曰：“書足以記名姓而已。劍一人敵，不足學，學萬人敵。” 司馬遷，〈項羽本紀〉，위의 책，pp. 295~296.

75) 秦始皇帝游會稽，渡浙江，梁與籍俱觀。籍曰：“彼可取而代也。” 司馬遷，〈項羽本紀〉，위의 책，p. 296.

76) 項梁持守頭，佩其印綬。門下大驚，擾亂，籍所擊殺數十百人。一府中皆懼伏，莫敢起。 司馬遷，〈項羽本紀〉，위의 책，p. 297.

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서사를 지니고 있어 항우의 용맹성과 적극성이 부각되었고, 진에 대한 봉기는 항우가 거부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 필연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이라는 당위성을 심어주고 있다.

항량이 전사한 이후 항우는 잠시 세력이 위축되었다. 항우는 조가 구원을 청하였을 때 진발하지 않는 송의 장군에게 진언을 올렸으나 거절당함으로써 반대 세력과 봉착하게 된다. 항우가 반대세력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진의 멸망은 어렵게 된다. 송의가 46일간 진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들 환송 연회를 베풀자 항우는 백성과 사졸들의 고달픔과 진군과의 전황을 걱정한다. 국가와 백성들의 안위와 사졸들의 고달픔을 돌보는 것 역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사람들을 이롭게<sup>77)</sup> 해야 하는 영웅의 덕목 중 하나이다. 항우는 한랭한 기후와 큰 비를 맞아 사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또한 초의 모든 병력을 쫓 송의가 조의 멸망으로 더욱 강대해질 진과 접전하게 된다면 초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으로 과감히 송의를 배어버렸다. 항우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할 호국안민(護國安民)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항우는 거록성의 전쟁을 계기로 여러 제후들의 추종을 받게 되었고 이후 초 뿐만 아니라 제후국에 명망을 떨치게 된다.

<출발>단계에서 항우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며 시련을 극복해나갔다. <출발>단계에서 갈등과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진 항우는 <입문>의 ‘시련의 길’ 단계에서 다시 시험에 들게 된다. 항우는 거록성의 전쟁에서 상장군 송의를 배고 대장군으로 추대되었으며 제후들 사이에 이름을 날렸다. 함곡관에 도착한 항우는 문을 닫아 입관하지 못하게 막는 유방으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이 시련의

---

77) 이종복, <애니메이션의 통과의례 서사 연구: 《마당을 나온 암탉》과 《쿵푸팬터》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23.

문제는 흥문연에서 폭발하게 된다. 항우는 시련을 이겨내고 적을 제거해야만 진을 멸망시키고 천하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항우는 이 시련에서 유방이라는 적을 제거하지 못하고 서초 패왕이 되었다. 이후 진을 멸망시킨 항우는 제후들의 논공(論功)문제로 제후들의 반기에 부딪히게 된다. 항우는 한왕 유방과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게 된다. 항우는 해하의 전쟁에서 패주하였고, 오강 정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도움을 거부하고 자결함으로써 일생을 마감한다. 그리하여 <항우본기>는 영웅이 관문을 통과하여 귀환하는 내용은 생략되고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항우본기>는 <출발>단계를 제외하고는 캠벨이 제시한 영웅서사구조와 완벽히 부합하지 않으나 영웅적 면모를 지닌 주인공 항우가 비극적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장군 가문의 출신으로 출생에 있어서부터 남들과 다른 신분이었으며 환경적으로도 뛰어난 조건을 지닌 항우는 지도자가 될 만한 적격인물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라이가 제시한 인물 능력의 수준으로 항우를 분석하면 항우는 보통사람들보다 우월하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에 속한다. 상위모방 양식에 속하는 주인공은 사회에 국가에 부응하여 지도자가 된다. 항우는 폭정하는 진에 반기를 들었고 초 회왕 후손인 심을 세워 민의를 따랐다. 또한 진왕 자영을 몰아내어 서초 패왕이 됨으로써 프라이가 제시한 인물상에 상응한다. 그러나 항우는 해하의 전쟁에서 패하여 오강에서 죽음을 선택한다. 제왕의 역할을 하던 영웅의 죽음은 독자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항우의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 ‘하늘의 뜻’이었는지 ‘항우의 과오’였는지 우리는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항우의 인생은 ‘지도자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프라이는 주인공이 사회와 맺는 관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주인공이 사회와 대립하는 것으로 끝나면 비극적,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희극적<sup>78)</sup>이라고 하였다. 항우가 진을 멸망시켰으나 공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한왕 유방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항우본기>는 비극적이다. <항우본기>는 원형적인 영웅 서사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주인공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생략과 축약이 이루어져있으며 주인공의 능력과 사회와 맺는 관계로 보았을 때 항우는 영웅적 기질을 가진 비극적 인물이다. 그러므로 <항우본기>는 비극적 영웅인 항우를 주인공으로 한 비극적 상위모방 양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고조본기> 이야기 분석

### 1) 출발

#### (1) 모험에의 소명

<고조본기>는 유방의 비범한 출생으로 전기의 시작을 알린다. 유방의 모친 유온(劉媪)의 배 위에 교룡(交龍)이 꿈틀거린 뒤 유방이 태어남과 높은 콧마루와 용안(龍顏)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유방이 패현에서 현령으로 오르기 전의 유방의 삶은 출생뿐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일상세계를 지니고 있다. 자주 외상으로 술을 마셨으나 취하여 쓰러진 유방의 몸 위에서 용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길을 막아선 뱀을 죽

---

78) 노스롭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위의 책, pp. 29~30. 재정리

인 일화, 한 노인이 유방에게 귀하게 될 관상이라고 한 것 그리고 진시황이 동방으로 순행할 때 산중 바위에 숨어도 유방이 있는 곳에서는 운기(雲氣)가 있어 찾을 수 있는 일 등이 모두 유방의 비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2) 소명의 거부

진섭이 일어나 진(陳)에서 왕이 되자 제 군현에서 그들의 관리들을 죽이고 이에 호응하고자 했다. 패현(沛縣)의 현령도 두려워하여 호응하려고 하였고 소하와 조참(朝參)이 번쾌를 명하여 유방을 불렀다. 그러나 패현의 현령은 이를 후회하여 소하와 조참을 주살하고자 하였고, 소하와 조참은 도망쳐 유방으로 갔다. 유방은 제후들이 패현을 쉽게 무찌를 것이니 현령을 죽이고 적합한 인물을 세워 제후들에게 응하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편지를 써 성 안으로 쏘아 보냈다. 패현의 사람들이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현령인 패공으로 추대하였다.

## (3) 초자연적인 조력

<고조본기>에서는 유방을 돕는 조력자로는 소하, 조참, 번쾌, 장량 등이 있다. 패공이 된 이후 소하, 조참, 번쾌가 패현의 자제 2~3천을 모아 호릉(胡陵)과 방여(方輿)를 공격하고 돌아와 풍읍(豐邑)을 지켰으며, 장량은 유방이 관중의 서쪽을 공격하라는 초왕의 명을 받아 서진하면서 완(宛)을 무너뜨리지 않자 후환이 될 것이므로 수복할 것을 진언한다. 또한 남양군수(南陽郡守) 기(齮)의 문객 진회(陳恢)의 계책으로 인하여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 (4) 첫 관문의 통과

한 원년 10월 유방의 군대가 가장 먼저 패상에 이르렀다. 진 자영(子嬰)이 수레를 끌고 나와 목에 인끈을 걸고 황제의 새(璽), 부(符), 절(節)을 봉인해 지도정(軹道亭) 옆에서 항복했다. 많은 장수들이 진왕을 주살해 버리려 간했으나 회왕이 본인을 보낸 것이 관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죽이지 않고 형리에게 넘기고 여러 현의 유지들과 호걸들에게 ‘법은 3장 뿐’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고기와 술을 헌상하려고 했으나 유방은 사양했고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여 패공이 진왕이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어떤 유지가 항우가 장한을 관중의 왕으로 삼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항우가 도착하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니 함곡관을 지켜 다른 제후들이 입관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유방에게 간하니 유방은 이를 따랐다.

#### (5) 고래의 배

항우의 군이 입관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유방이 이미 관중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하여 경포 등을 보내어 함곡관을 공격했다. 항우 군이 희(戲)까지 진출하자 패공의 좌사마 조무상은 항우가 노하여 유방을 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유방이 관중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자영을 재상으로 삼고 보물들을 다 차지하였다고 말하며 이로써 봉을 받고자 하였다. 항백이 장량을 살리고자 밤중에 장량을 만나러 갔고, (항백이) 항우에게 “패공이 먼저 입관하지 않았으면 공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대공(大功)이 있는 자를 치는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항우는 유방을 치려고 것을 그쳤다. 유방이 1백 여기를 이끌고 홍문으로 이르러 항우를 만나 사죄하였다. 이에 항우는 유방의 좌사마 조무상이 말하지 않았

으면 어찌하여 그랬겠는가라고 한다. 유방은 변패와 장량으로 인하여 벗어나 진중에 되돌아갈 수 있었고, 진중에 돌아가 조무상을 죽였다.

## 2) 입문

### (6) 시련의 길

항우가 자립하여 서초 패왕이라 하고 9개 군의 왕이 되어 팽성으로 도읍하였다. 항우는 약속을 위배하고 패공을 한왕(漢王)으로 삼아 남정(南鄭)에 도읍시켰는데 유방이 남정에 도착했을 때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도망쳐버렸고 병사들도 노래를 부르며 동쪽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한신은 유방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진하여 천하를 쟁탈할 것을 말한다. 유방은 한신의 말을 따른다. 유방이 낙양에 이르러 의제가 항우에게 시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후들에게 항우를 칠 것을 전한다. 항우와 유방은 팽성(彭城), 형양(滎陽), 성고(成臯), 광무(廣武)에서 접전하였다. 유방은 항우와 광무에서 대치할 때 항우가 행해온 죄과 10가지를 꾸짖으며 항우를 토벌할 것임을 선포한다. 한 5년, 유방은 제후의 군과 초군을 공격했고 항우와 해하에서 승부를 내고자 했다. 유방은 초군을 공격했고 초군은 해하에서 대패당했다. 유방은 기장 관영(灌嬰)을 시켜 항우를 추격하여 동성(東城)에서 죽였고 초군 8만 명을 베고 초 지역을 점령하였다.

(7) 여신과의 만남 / (8) 유혹자로서의 여성 / (9) 아버지와의 화해 / (10) 신격화

<고조본기> 역시 <항우본기>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여신과 성장과정에서 대립관계를 이루지만 화해하게 되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유방은 여신이 아닌 장량, 한신, 번쾌, 진평 등의 조력자들에게서 장애를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으며 천자의 위에 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7단계~10단계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11) 홍익

5년 2월 갑오일(甲午日), 유방은 사수(泗水) 북쪽에서 황제 위에 올랐다. 천하는 모두 평정되었고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 제후 모두 신하로서 유방을 따랐다.

### 3) 귀환

#### (12) 회귀의 거부

유방은 천자의 위에 올라 낙양에 도읍하였다. 유방이 낙양에 영구히 도읍을 하려 하자 장량이 관중으로 도읍을 할 것을 간하였고 유방은 바로 관중으로 도읍하였다.

#### (13) 불가사의한 도주

유방은 한을 세우고 난 이후 끊임없이 반란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되며 이들을 평정하기 위하여 출정하게 된다.

#### (14) 외부로부터의 원조

유방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정벌할 때 대부분 친절하여 멸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방을 돕는 지원군은 등장하지 않는다.<sup>79)</sup>

#### (15) 귀환 관문의 통과

유방은 장도(臧荼), 이기(利畿), 한신(韓信), 신(信), 관고(貫高), 진희(陳豨), 조리(趙利), 팽월(彭越), 경포(鯨布) 등의 반란을 차례로 진압하고 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16) 두 세계의 스승

유방이 경포를 정벌할 때 화살에 맞아 병상에 눕게 되었다. 의사가 병을 고쳐드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유방은 민간에서 일어나 삼척의 검으로 천하를 얻었는데 이것이 천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치료를 받지 않고 금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여후가 백년 이후에 소(蕭) 상국이 죽으면 누가 대신하여 상국이 되면 좋을지 묻자 조참이라고 답하였다. 여후가 조참 이후에는 누가 좋을지 묻자 왕릉이 좋지만 강직한 진평이 보좌해야 하나 혼자서는 힘들 것이니 문재(文才)가 미약하나 신중한 주발이 유씨(劉氏) 도와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이니 태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여후가 재차 묻자 고조는 이후의 일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

79) 팽월, 이기, 신, 경포, 진희는 유방이 친절하였다. 진희는 친절하였으나 주멸하지 못하였고 장군을 보내어 대파시켰다. 한신은 모반을 일으킨다는 상서로 제왕(齊王)에서 회음후로 봉하여졌고 이후 모반을 했다는 이유로 삼족을 멸하였다. 관고 역시 유방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삼족이 멸족 당했다.

## (17) 삶의 자유

4월 갑진일(甲辰日) 유방이 장락궁에서 봉어했다. 군신들이 유방은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난세를 평정하고 정도(正道)로 돌이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한의 개국황제이자 공로 역시 가장 높으니 고황제(高皇帝)라 칭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조본기>는 캠벨의 <분리>, <입문>, <귀환>단계를 대체로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다만 <분리>단계의 ‘소명의 거부’와 <회귀>단계의 ‘회귀의 거부’,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변형되었고, <입문>단계의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의 화해’, ‘신격화’는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발> 단계에서 ‘소명을 거부’하지 않고 진을 대항하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용맹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유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입문>단계의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의 화해’, ‘신격화’가 생략되어 유방이 한의 황제가 되는 과정이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다. <귀환> 단계에서 황제가 된 이후 천하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행적과 삶을 마감하는 유방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캠벨의 영웅의 모험 과정에서 귀환은 주인공이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승리를 거두고 신비스러운 모험에서 그의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어 현실로 돌아온다<sup>80)</sup>는 것을 의미한다. 캠벨의 영웅의 모험은 수많은 신화를 수집하여 분석한 신화적 모험인 반면 <고조본기>는 신화가 아닌 희극적 하위모방 양식<sup>81)</sup>에 속한다.

80) 김공숙, 위의 논문, p. 21. 재정리.

81) 프라이어는 최초의 문학 형식을 신화라고 하면서 모든 문학이 지니고 있는 신화의 원형성이 시대에 따라 변용된다고 하였다. 신화의 변용은 주인공의 행동능력에 따라 ‘신화-로맨스-상위모방-하위모방-아이러니’ 다섯 양식으로 분류하였고, 사회와의 화합 여부에 따라 비극적, 희극적으로 분류하였다. <고조본기>의 주인공 유방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루는 결말을 이루고 있어 ‘희극적 하위모방’ 양식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의 귀환은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삶의 세계로의 귀환이 아닌, 진을 멸망시키고 다시 혼란을 일으킨 서초패왕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천하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야하는 황제로의 귀환이다. 이렇게 <고조본기>는 영웅이 출생하여 모험에의 소명을 받아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마침내 귀환하게 된다는 영웅서사에 해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고조본기>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면서 유방이 출생하여 한의 황제가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도전에서 드러나는 유방의 인물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고조본기>에서는 유방이 모험의 소명을 받기 전의 일상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고조본기>에서 보이는 유방의 출생은 신화적인 색채를 띤다. 이 외에도 유방의 외모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화는 유방의 일생에 신화적인 모습을 더하였다. 유방의 외모에 대하여 사마천은 ‘콧마루가 높고 용안(龍顏)’<sup>82)</sup>을 지녔다고 하였는데 ‘헌원은 용의 얼굴을 하였다.’라는 황제(黃帝) 헌원(軒轅)의 모습<sup>83)</sup>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방이 천명을 받은 왕조의 제왕이 될 징조<sup>84)</sup>를 보이고 있다.<sup>85)</sup> 뿐만 아니라 단보인(單父人) 여공(呂公)<sup>86)</sup>과 밭에서 만나게 된 한 노인<sup>87)</sup>이 유방의 관상이 귀하다고 한 것 역시

82) 高祖爲人，隆準而龍顏，美須髯，左股有七十二黑子。 司馬遷，〈高祖本紀〉，《史記》第二冊，中華書局，1959，p. 342.

83) 조성윤, <《사기》의 감생신화 수용과 의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 16.

84) 조성윤, 위의 논문, p. 59.

85) <고조본기>에서 유방의 출생과 일화는 신화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유방이 평민의 신분으로서 하나의 왕조가 창시자가 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조성윤, 위의 논문, p. 47. 재인용)일 뿐이며 이러한 신격화의 요소를 걷어낸다면 그의 신분이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뛰어나지 않다. 그러나 유방의 인간적인 면모와 지략으로 인하여 천하의 민심을 얻고 뛰어난 인재를 모으게 되었으며 황제라는 사회적 지위 상승을 누리게 되었다.

86) 呂公者，好相人，見高祖狀貌，因重敬之，引入坐。蕭何曰：“劉季固多大言，少成事。”高祖因狎侮諸客，遂坐上坐，无所誚。酒闌，呂公因目固留高祖。高祖竟酒，後。呂公曰：“臣少好相人，相人多矣，無如季相，顧季自愛。臣有息女，願爲季箕帚妾。”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 p. 344.

87) 呂后與兩子居田中耨，有一老父過請飲，呂后因饋之。老父相呂后曰：“夫人天下貴人。”令相兩子，見孝惠，曰：“夫人所以貴者，乃此男也。” 相魯元，亦皆貴。老父已去，高祖適從旁舍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어서 유방은 소하와 조참을 주살하고자 하는 패현 현령을 몰아내고 진을 대항하여 일어난다. 소하, 조참, 번쾌, 장량 등의 도움과 관대함으로 제일 먼저 관중에 도착하는 공을 세우고 홍문연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한다. <고조본기>의 경우 유방의 출생과 일상생활이 상세하고 영웅의 모험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발성이 돋보인다. 또한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떠한 위기와 고난을 겪고 이겨냈는지의 서사 연결이 긴밀하여 <출발> 단계가 매우 탄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방이 일반 백성이지만 비범함을 지니고 있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입관과 홍문연에서 보인 유덕함과 지혜로움은 위기를 극복하고 진의 멸망이라는 대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영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입문> 단계에서는 유방이 적대 세력인 항우와 벌이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황제의 위에 오르는 장면을 긴박하게 연결하면서 서사전개를 극적으로 이끌어간다. <고조본기>에서는 ‘시련의 길’을 유방과 항우가 접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면서 시점, 장소, 등장인물간의 관계, 승패의 인과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서사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유방은 홍문연 이후 항우와 팽성, 형양, 성고, 광무, 해하에서 여러 차례 접전을 하게 된다. 유방은 광무에서 항우와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항우의 죄를 꾸짖었고 광무의 대치로 유방과 항우와의 전쟁은 절정을 향해 나아갔다. 마지막 전투인 해하의 전쟁으로 긴장감은 절정으로 치닫게 되고 마침내 유방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전투에서 승리한 유방에게 “평민의 신분으로 봉기하여 역도들을 주벌하고 사해를 평정하여 유공자를 왕후로 삼았으니 황제라 칭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한왕의 봉상(封賞)을 믿지 않을 테니 죽음으로써 칭을 올린다.”라고 군신들은 말한다. 군신들의 이 말로 유방이 그간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

---

來，呂后具言客有過，相我子母皆大貴。高祖問，曰：“未遠。”乃追及，問老父。老父曰：“鄉者夫人嬰兒皆似君，君相貴不可言。”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p. 346.

내고 승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귀환> 단계에서는 황제가 된 유방이 정권을 공고히 하고 천하를 안정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유방은 정권에 반기를 든 인물들을 차례로 제거해나가며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 제국의 기반을 다졌다. 유방은 황제가 되어 고향 패현에서 머물며 패현의 아이들 120명을 모아 노래를 가르쳤고 축(筑)을 타면서 ‘큰 바람이 일어나니 구름이 날린다. 위세가 천하에 더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니 어디서 맹사(猛士)를 얻어 사방을 지킬까.’<sup>88)</sup>라고 노래를 불렀다. 유방은 이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렸다. 유방은 미천한 신분에서 한 나라의 황제에 이른 인물이다. 그가 일어날 때 그의 나이는 48세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별때같이 일어나 천하를 호령한 항우를 제거하고 황제가 된 유방은 감회가 남달랐으리라. <귀환> 단계에서 유방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개하는 모습을 추가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유방의 대업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천하를 얻고도 병상에 눕게 되는 것을 천명이라 여기며 삶을 마감하는 결말로 유방의 전기는 끝이 난다.

<고조본기>에서 <입문>의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 화해’, ‘신격화’를 생략된 것 외에 일부 단계가 변형되었으나 캠벨의 영웅서사 구조와 일치하고 있으며 단계마다 겪는 사건을 통하여 유방이 지니고 있는 영웅적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웅서사 구조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고조본기>의 문학양식을 살펴보자. 유방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고조본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방이 황제의 위에 오르게 될 때 군신들이 유방이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황제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비(類比)를 위하여 ‘미천한 신분’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

88) 大風起兮雲飛揚，威加海內兮歸故鄉，安得猛士兮守四方！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p. 389.

유방의 신분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유방이 맡은 직책도 말단의 직책인 정장(亭長)<sup>89)</sup>으로 사회적 위치도 높지 않았다. 게다가 유방은 생계를 걱정하지도 않고 주색을 좋아하며 관리들을 깔보았다. 이러한 유방의 위인됨으로는 그가 영웅적 자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포착하기 힘들다. 하지만 유방은 한의 황제로 올랐기에 유방이 영웅적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프라이는 이러한 양식을 희극적 하위모방 양식이라 하였다. 프라이는 희극적 하위 모방 양식의 영웅은 ‘자신 앞에 나타나는 방해자나 착취자를 차례차례 물리치고 … 마지막 영웅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sup>90)</sup>라고 설명하였다. 유방은 소하, 장량, 빈쾌의 도움으로 패공이 되었다. 또한 진군을 대파하고 진왕 자영의 옥쇄를 받아 관중을 제일 먼저 평정하였고 이후 한왕으로 분봉 받은 뒤 의제를 시해하고 공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았던 항우에게 반기를 들어 수차례의 전쟁을 치룬 뒤 마침내 천하를 제패하게 되었다. 천하를 통일한 이후 고조에게 반란을 일으킨 임강왕 환, 연왕 장도, 이기, 한신, 한왕 신, 조의 재상 관고, 조의 상국 진희, 양왕 팽월, 회남왕 포를 멸하여 천하의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방의 일생을 종합하여 보면 <고조본기>는 희극적 하위 모방 양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영화 《왕적성연》 이야기 분석

영화 《왕적성연》은 주인공 유방의 내레이션으로 이야기가 전개됨으로써

89) 秦法에는 十里마다 1亭이 있고 亭長은 亭을 주관했다. 사마천 지음, 김병춘 번역, 위의 책, p. 124.

90) 노스립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위의 책, p. 116.

유방의 시각에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한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달리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영화 《왕적성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화의 씬(Scene)<sup>91</sup>들을 나누어 연대기로 재배열을 하여야 한다. 자연적 시간 경과로 이 서사 전개 과정을 나열하면 항우와의 만남, 적이 되어 홍문연에서 회합하는 장면, 해하에서 최후의 결전을 펼치는 장면, 한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제1막

### (1) 일상세계

프롤로그에서 유방은 자신을 한(漢)의 황제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자신의 두 적을 지목하며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롤로그에서의 유방의 내레이션은 유방이 자신의 신분과 적대자를 이야기 도입부분에서 설정을 하면서 이야기의 배경과 서사의 진행을 설명해주고 있다. 유방의 일상세계는 설읍의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다. 장량, 번쾌 등과 어느 저자거리를 거니고 있는 유방은 위풍당당한 기병과 함께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의 시선을 받으며 등장하는 항우를 보고 반진의군의 영수이자 살아있는 전기인 항우와 자신을 비교한다.

### (2) 모험의 소명 / (3) 소명의 거부

---

91) 영상의 기본단위는 프레임, 샷, 컷, 씬, 시퀀스가 있다. 씬은 극영화의 구성 요소 중, 한 장소,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구절로 한 장면은 하나 또는 수개의 컷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수개의 씬의 집합은 시퀀스를 이룬다. 유재형, 《영화영상기술 용어집》, 영화진흥위원회, 1999, p. 693.

14년 전 항우 군영에 군대를 빌리러 간 것은 모험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명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항우에게 형제와 처자식들을 위하여 군대를 빌리고자 했던 유방은 항우에게서 군대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갑옷을 하사받게 된다. 또한 항우와 함께 검무를 추며 ‘진을 멸망시키자’라고 외치는 유방의 모습에서는 자발적 영웅<sup>92)</sup>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 (4)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신화와 민담에서 영웅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단련시키는 정신적 스승이라는 지혜로운 보호자가 등장하여 영웅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꼭 있어야 할 필수품, 지식, 용기를 얻게 한다.<sup>93)</sup> 그러나 영화 《왕적 성연》에서는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영화 중간 중간 유방의 대사와 내레이션을 통하여 유방이 지혜를 얻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유방이 고비를 맞이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유방이 천하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한신과 소하를 꼽은 장면, 오랫동안 장량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수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장면 등이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다.

#### (5) 첫 관문의 통과

B. C. 207년 유방이 진왕 자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진 왕궁에 입성하게 되었으나 항우의 입관을 막아 항우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항

92) 크리스토퍼 보글러 지음, 함춘성 옮김, 위의 책, p. 175.

93) 크리스토퍼 보글러 지음, 함춘성 옮김, 위의 책, p. 182. 재정리

우와 형제 같은 관계에서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 없는 적의 관계가 된 유방이 입관하게 된 후 유방은 시험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 2) 제 2막

### (6) 시험, 협력자, 적대자

진 왕궁의 물건과 여인을 탐하던 유방은 항우의 40만 대군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장량의 말로 인하여 홍문연이라는 시험의 국면에 부딪힌다. 영화에서는 이 홍문연 씬을 어두운 느낌과 빛이 거의 들지 않은 장막 안 그리고 항장이 검과 방패를 두드리는 소리로 표현하여 유방이 겪는 시험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나타내었다. 유방은 장량과 번쾌, 항백의 도움으로 홍문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칼로 내리치는 항장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항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여 각 인물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 (7) 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홍문연 이후 항우는 진 왕궁에 입성하게 되고 진왕 자영을 모든 이가 지켜보는 곳에서 사형을 시킴으로써 진의 멸망을 알렸다. 유방은 항우가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내레이션을 통하여 의문을 던진다. 또한 진 왕궁에서 호적을 훔치려던 한신 역시 죽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유방은 항우가 자신의 광명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욕망은 홀시하는 인물이며 이것이 항우의 착오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면은 헤하의 전쟁으로 넘어간다.

## (8) 시련

해하의 전쟁 장면에서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가 한군과 접전하는 장면과 전쟁을 위하여 우미인이 항우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교차하여 항우가 최후를 맞는 장면을 만들어내었다.

## (9) 보상

항우를 제거한 뒤 유방이 검 또는 영약 같은 보상을 받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방은 아직 항우를 죽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장량, 항백, 소하에게 한신이 자신에게로 온 이유를 추궁하고 자신의 최대적 한신과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 3) 제 3막

## (10) 귀환의 길

여후는 유방의 주도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며 유방의 모험을 돕는다. 늙은 자신들과 비교해 젊은 한신 그리고 유방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항우의 말로를 상기시켜 주는 여후에게 장량은 한신의 위세를 약하게 할 만한 계책들을 내놓는다. 유방은 장량의 계책으로 자신의 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적의 세력은 완벽히 사그라지지 않았고 유방 역시 적대 세력이 추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 (11) 부활

유방을 두려움에서 귀환의 길을 이끄는 또 다른 조력자 소하는 유방의 적인 한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유방으로 하여금 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였다. 유방은 죽은 한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의 평생 적인 항우와 한신을 제거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 (12) 영약을 가지고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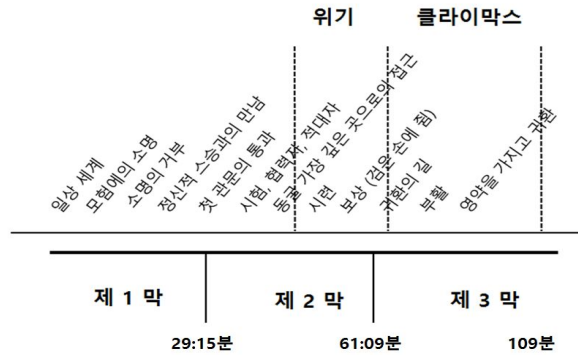
유방은 한신의 죽음을 확인한 뒤 곧 죽음을 맞는다. 에필로그에서 유방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홍문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홍문연 그 자체였다고 말한다. 유방은 홍문연에서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홍문연이고 이제 홍문연이었던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비록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였지만 유방의 인생은 적으로부터 벗어나 귀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글러는 캠벨의 영웅의 서사 여정을 현대의 극에 맞게 3막으로 구분하였다<sup>94</sup>). 보글러의 영웅서사구조에 따라 영화 《왕적성연》을 구분하면 1막은 29:15까지, 2막은 29:16~61:09, 3막은 61:10~109이다.

---

94) 영웅의 여행 모형을 극으로 제작할 때, 제1막은 약 30페이지 분량, 제2막은 60페이지 분량, 제3막은 30페이지 분량이다. 할리우드에서 스크린플레이 1페이지는 러닝 타임 1분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보글러 지음, 함춘성 옮김, 위의 책, p. 53.

표3. 영웅의 여행 모형



제1막은 영웅의 여행 단계 중 제1단계~5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사의 전개부분에 해당한다. 제1막에서는 유방이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과거 항우를 제거하는 과정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적 한신과의 갈등과 분규가 일어나고 있다. 제2막 중 전반부는 제6단계와 7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방은 홍문연으로 인해 항우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영화는 제2막 후반부로 들어서게 된다. 유방은 해하의 전쟁에서 항우와 접전하게 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 유방은 과거의 적 항우를 회상을 마치고 현재의 적 한신에게 눈을 돌린다. 영화는 제3막 클라이막스 단계로 전환되고 유방과 한신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유방은 여후, 장량, 소하 등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한신을 제거하게 되어 마침내 ‘인생의 홍문연’을 마치게 된다

영화 《왕적성연》은 ‘모험의 소명’과 ‘소명의 거부’단계가 변형되었고, 제2막 ‘보상’의 단계가 생략되어 분량은 줄어들고 제3막의 분량이 늘어났다. <고조분기>에서 유방이 진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부분은 영화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예전에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병한 뒤로 용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sup>95)</sup>라는 범증의 말로 인하여 유방이 진을 대항하여 거병하였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방이 항우를 만나 군사를 빌리는 것이 ‘아내와 자식, 형제들을 구하기 위한 것’<sup>96)</sup>에서 진을 대항하기 위한 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항우를 회상하는 장면은 유방이 항우와의 만남과 항우와의 관계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방이 진을 대항하기 위하여 거병하였던 것과 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군대를 빌린 것은 변형되어 항우와의 첫 만남을 주로 다루고 있다. 유방은 프롤로그에서 자신이 한의 황제임을 알렸기에 영화에서 유방은 이미 황제로 설정되어 있어 영화 저변에는 유방이 이미 항우를 제거하고 황제가 되었다는 ‘보상’이 깔려있다. 영화는 유방이 자신의 숙적 항우와 한신을 제거해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즐거리로 하고 있다. 항우를 제거한 뒤 황제의 자리에서 오르는 장면은 생략되고 현재의 적인 한신을 제거하는 장면으로 바로 전환함으로써 영화는 적의 생존으로 인한 유방의 두려움을 이어 나갔다.

주인공이 다양한 종류의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해서 주인공의 자질을 검증받게 하는 제2막<sup>97)</sup>의 내용이 영화 《왕적성연》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비연대기적 서사를 이어가는 영화는 과거에서는 항우에 대한 유방의 회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현재에서는 한신과의 갈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 백성에서 황제가 되는 과정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과거 회상장면에서는 유방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항우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단지 길가의 쥐와 같다고만 표현할 뿐 거병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거병했다는 사실 역시 항우 군영에서 범증의 말로만 확인 가능할 뿐이다. 진 왕궁은 욕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95) “我以前沒說過你，可自打你一起兵開始，就有人說你是龍子” 영화 08:16~08:18

96) “大將軍，跟您說實話吧，我這次來借兵，就是想把老我老婆孩子，還有兄弟他們救出來”

영화 09:36~09:46

97) 김공숙, 위의 논문, p. 58.

있다. 유방은 진왕 자영이 처형될 때 자영이 진 왕궁으로 자신을 데려간 것은 욕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진의 대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진 왕궁에서 우물 안 개구리 같던 자신의 숨겨져 있는 욕망이 불타 올랐다고 한다. 이어 자신의 광명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욕망을 홀시하는 항우에게 이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항우를 제거하고자 했던 동기를 드러내었다. 항우를 제거한 뒤 황제가 되는 장면은 생략되었고, 황제가 된 이후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 내용에서 유방의 영웅적 면모는 숨겨져 있다.

유방의 적으로 등장하는 항우는 과거 시점에서 유방의 진술로만 묘사되고 있다. 유방은 항우를 처음 만난 지역과 당시의 항우의 외모,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직접 설명한다.<sup>98)</sup> 항우는 다른 계급에 속한 인물로 유방과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면서 유방은 당시의 자신을 다만 ‘길가의 쥐’와 같았다는 비유만 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항우의 군대에 가입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이후 유방은 항우가 함께 진을 멸망시키는 공통된 꿈을 가진 형제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앞으로 자신과 대립적인 세력이 된 것을 은유하였다. 흥문연에서 유방과 항우와의 갈등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장면은 대사와 내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영상과 음향만으로 대체된다. 유방은

---

98) “한신이 설읍(薛邑)에서 나를 만났다고 했지만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항우를 만난 것만 기억한다. 그때 항우는 24살, 나는 48살이었다. 항우는 귀족출신에, 멋진 외모, 건강한 신체, 강대한 군대, 아름다운 여인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는 이미 반진(反秦)의군의 영수이자 살아있는 전기였다. 그러나 나와 한신은 길가의 쥐와 같았다. 당시 나의 꿈은 항우의 군대에 가입하는 것이었다(韓信一直說他是在薛邑第一次見到的我, 我完全沒有印象, 我只記得我見到了項羽。那時的項羽才二十四歲, 我已經四十八歲了。他擁有一切: 貴族的身份、英俊的相貌、強壯而勇敢的身體和最強大的軍隊, 當然還有最美麗的女人。那時的他已經是反秦義軍的領袖, 是活着的傳奇, 而我和韓信還只是街邊的老鼠, 我們最大的夢想就是加入項羽的部隊)” 영화 5:33~7:13

홍문연에서 항우가 자신을 놓아준 것 같다고만 추측만 하였는데, 이는 영화 후반부 소하가 홍문연에서 유방을 보호하는 인물이 한신이며 한신으로 하여금 유방을 보호하도록 한 인물은 항우인 것이라는 말하는 장면을 삽입되면서 유방의 주관적 시각에 객관성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영화 전반에 걸쳐 유방의 시각 안에서만 묘사되며 반진의군의 영수에서 자결로 몰락하게 되는 인물로 한정되어 있다.

유방의 또 다른 적으로 등장하는 한신은 유방을 도와 항우를 제거한 인물이며 황제가 된 유방에게 모반혐의를 받고 결국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다. 항우가 자결한 장면의 회상이 종료된 뒤 장면은 바로 현재 유방이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유방은 항우를 회상하면서 항우를 제거한 한신이 모반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며 한신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낸다. 유방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장량, 소하, 항백은 한신이 모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유방은 의심을 그치지 않고, 여후의 계략으로 장량과 소하는 한신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한신은 여후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연회에 갔으며, 연회에 가는 길에 유방과 만났던 장면, 함께 항우를 제거해나가는 장면이 교차 삽입되어 죽음을 앞둔 한신의 심리를 묘사하였다. 유방의 조력자로는 여후, 소하, 장량이 있다. 소하와 장량은 유방이 거병하여 황제가 된 이후에도 조력자로 유방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장량에게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일을 상기시켜 주는 여후는 건국 초 권력을 공고히 하고 후환 세력을 없애는 것이 현재 유방에게 필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는 인물로, 유방의 다른 조력자들을 포섭하여 한신을 제거하는 주도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항우본기>와 <고조본기>가 각각 항우와 유방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서사를 전개시켜나갔다면 영화 《왕적성연》은 모든 사건을 유방과 등장인물

들의 시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는 오로지 유방과 등장인물에 의지하여 전개되어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의 서사와는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화 《왕적성연》은 《사기》를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항우와 유방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말은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와 다르지 않다. 일반 백성에서 일어나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방에게는 자신보다 더 귀하고 높은 인물은 없다. 영화는 유방의 영웅적인 면모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거병하여 남의 욕망을 홀시하는 서초패왕 항우에 대항하고 이러한 인물을 제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과 한신을 제거하여 한 제국의 안정을 바라는 모습으로 유방의 영웅적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유방은 일반 백성에서 황제가 되어 희극적 하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에 속하지만 항우를 죽인 인물인 한신이 살아있기에 황제가 된 이후로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은 희극적 하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이나 공포에 휩싸이고 불안한 삶으로 연민을 일으키는 비극적 아이러니 요소를 지닌 희극적 하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이다. <항우본기>에서 항우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상위모방 양식의 영웅이지만, 영화 《왕적성연》에서 항우는 남의 욕망을 홀시하고 한신과 유방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항우의 죽음에 대한 유방의 냉소적인 태도로 인하여 항우가 지도자의 몰락을 보여주는 비극적 상위 모방 양식의 인물임에도 희극적 아이러니적 요소가 존재한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을 분석하면서 항우와 유방의 영웅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른 유형의 영웅을 이야기하는 서사물의 서사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영웅의 통과의례를 구조화한 캠벨의 영웅서사구조를 차용하여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의 서사구조는 캠벨의 영웅서사구조와 완전히 부합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항우와 유방의 영웅성을 밝힐 수 있는 서사구조이다. <항우본기>의 주인공 항우는 서초패왕에서 한왕 유방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적 영웅이다. <항우본기>의 서사를 캠벨의 영웅서사구조를 적용하여 단계화시키면 ‘모험에의 소명-소명의 받듦-조력-첫 관문의 통과-고래의 배-시련의 길-홍익-귀환의 거부-불가사의한 도주-외부로부터의 원조-귀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함’이라는 서사구조를 도출할 수 있으며, <고조본기>는 ‘모험에의 소명-소명의 받듦-조력-첫 관문의 통과-고래의 배-시련의 길-홍익-귀환의 응낙-불가사의한 도주-자발적 해결-귀환 관문의 통과-두 세계의 스승-삶의 자유’라는 서사구조로 할 수 있다.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를 보글러의 영웅서사구조에 대입하면 ‘일상세계-모험의 소명-소명의 받듦-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첫 관문의 통과-시험-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시련-귀환의 길-부활-영약을 가지고 귀환’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는 ‘보상’단계가 생략된 것 외에 <고조본기>의 서사구조와 거의 흡사하다. 영화의 1~8단계는 <고조본기>의 1~6단계의 이야기와 <항우본기>의 1~15단계 이야기를 동시에 서술하고 있으며, 영화의 10~12단계는 <고조본기>에서 황제가 된 후 반란군을 친정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11~16단계의 이야기를 한신이라는 인물로만 범위를 좁혀 서술하고 있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인물유형을 비교분석하면서, 영화 《왕적성연》은 <고조본기>의 서사구조를 틀로 하고 있는 동시에 <항우본기>, <고조본기>의 이야기를 생략·축약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영화는 유방의 영웅적 모습보다 항우와 한신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고조본기>에서 보이고 있는 유방의 영웅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주인공을 유방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영화에서 항우의 역할이 패망한 지도자로 축소되어 그려졌다. 최민성은 ‘프라이의 다섯 단계의 수준을 염두 해두고 주인공의 특성과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첨가하면 스토리텔링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sup>99)</sup>이라고 했다. <항우본기>, <고조본기>는 사마천이 영웅서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웅서사구조에 부응하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어, 항우와 유방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 서사물을 제작할 때 해당 영웅이 지니고 있는 서사구조와 영웅의 특징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매체 시대에 언어서사물의 유의미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

99) 최민성, 위의 논문, p. 512. 재정리.

## IV. 서사 표현의 비교분석

하나의 서사물은 발신자(실제작가)와 수신자(실제독자) 사이에서 놓이게 되어 발신자에게서 수신자로부터 전달되게 되는데 서사적 진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서사적 진술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서사적 진술들, 즉 이야기는 달라지고 수신자는 서사물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전달 방식은 이야기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반대로 수신자는 이야기의 전달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의 전달은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본장은 <항우분기>, <고조분기>, 영화 《왕적성연》의 매체적 특징에 따른 서사표현의 상이함을 살펴보고, <항우분기>, <고조분기>와 영화 《왕적성연》의 수용관계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 1. <항우분기>, <고조분기> 서사표현 이해

채트먼은 서사물은 전달의 구체적인 언어적 매체, 혹은 다른 매체들의 표층구조(paroles)를 통해 운반된 심층구조(langues)<sup>100</sup>인 것<sup>101</sup>을 밝히며 이야

---

100) 기호학자 소쉬르(Saussure)는 언어를 기호들의 체계라고 보았으며 파롤(parole)과 랑그(langue)로 구분하였다. 파롤은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의 산물을 가리키며, 랑그는 언어의 형식적 체제로 파롤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파롤이 언술처럼 랑그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언어 행위이며 과정이라면 랑그는 파롤이 점차 규범화되어 이루어지는 언어의 추상적 체제이다. 소쉬르는 랑그와 파롤을 언어의 자의성으로 기표에 해당하는 시니피앙(signifiant)과 기의에 해당하는 시니피에(signifié)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레마스는 기호학적 사변형 이론을 제시하였고 기호는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첫 번째 층인 심층구조, 심층구조에서 생성된 의미를 조작 및 선택이 일어나는 두 번째 층인 표층구

기와 답론을 다시 질료와 형식으로 나누어 4등분 하였다. 채트먼이 분류한 이야기의 구성요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발현을 달리하는데 《사기》는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 문자를 매개로 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사물인 소설은 등장인물, 사건, 시간, 장소 등을 언어로 묘사하며 독자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그러나 글쓰기는 온전히 문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플로베르의 주장<sup>102)</sup>처럼 독자는 저자의 저술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문자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항우본기>와 <고조본기> 역시 예외가 아님을 알려준다.

사마천은 자신이 인식하였던 ‘고금의 변화(古今之變)’를 생생한 장면묘사,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기술, 호견법(互見法)<sup>103)</sup> 등의 방법들을 운용하여 《사기》를 저술하였고 130편에 이르는 《사기》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항우본기>, <고조본기>에서도 이러한 저술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에는 항우와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룬 기록이 남아있다. 항우와 유방이 갈등을 이루는 대목에서 사마천은 생생하면서도 사건의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두 인물이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 보

---

조, 심층구조와 표층구조에서 생성된 구조물을 형상화하는 마지막 층인 명시구조(담화층)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p. 287~289, 318~326 재정리.

101) S. 채트먼 지음, 한용환 옮김, 위의 책, p. 25.

102) 박지희, <활자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의 다시쓰기:플로베르의 《마담보바리》와 두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2005, p. 3.

103) 호견법은 분산기록을 가리킨다. 분산기록은 각 인물의 각기 다른 특징들을 근거로 각기 다른 構成을 巧妙하게 按排하여 특정한 체제 한곳에만 집중하여 기술하지 않고 體制 곳곳에 分散시켜 각기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그 인물과 사건을 보다 완전하고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의 활용은 인물에 대한 論贊을 보다 效果的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였으며 司馬遷의 論評을 理解할 수 있는 端緒를 提供해주기도 한다. 이하진, 위의 논문, pp. 46~47.

여주고 있다.

## 1) <항우본기> 서사표현 이해

항우는 오중(吳中)에서 거병하여 거록성의 전쟁에서 송의를 베고 대장군이 된 후 오강(烏江)에서 목숨을 끊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다. 어린 시절 항우가 보여주는 재기와 능력<sup>104)</sup>은 독자들로 하여금 항우의 영웅적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 오에서 항량과 함께 거병하여 제후군과 진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여 승세하였고, 거록성의 전쟁에서 송의장군을 베고 대장군으로 추대됨으로써 항우는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 가장 강력한 반진의군인 항우는 홍문연에서 유방이라는 후환을 남겨두어 서초패왕에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홍문연에서 항우와 유방의 회합장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패공은 이튿날 아침 1백 여기를 이끌고 항왕을 알현하기 위하여 홍문에 이르렀다. 패공은 항왕에게 “신이 장군과 함께 힘을 합쳐 진을 공격하기로 하여 장군은 하북(河北)에서 신은 하남(河南)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먼저 입관하게 되어 진을 격파하였고 여기에서 다시 장군을 뵈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인의 말로 인하여 장군과 신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항왕이 말했다. “이는 패공의 좌사마 조무상이 말한 것이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104) 項籍少時，學書不成，去學劍，又不成。項梁怒之。籍曰：“書足以記名姓而已。劍一人敵，不足學，學萬人敵。”於是項梁乃教籍兵法，籍大喜，略知其意，又不肯竟學。項梁嘗有櫟陽逮，乃請蕘獄掾曹咎書抵櫟陽獄掾司馬欣，以故事得已。項梁殺人，與籍避仇於吳中，吳中賢士大夫皆出項梁下。每吳中有大徭役及喪，項梁常爲主辦，陰以兵法部勒賓客及子弟，以是知其能。秦始皇帝游會稽，渡浙江，梁與籍俱觀。籍曰：“彼可取而代也。”梁掩其口，曰：“毋妄言，族矣！”梁以此奇籍。籍長八尺餘，力能扛鼎，才氣過人，雖吳中子弟皆已憚籍矣。 司馬遷，〈項羽本紀〉， 위의 책， pp. 295~296.

항왕은 패공을 머무르게 하여 주연을 베풀었다. 항왕과 항백은 동향하여 앉고, 아보는 남향하여 앉았다. 아보는 범증이이다. 패공은 북향하여 앉았고, 장량은 서향하여 앉았다. 범증이 항왕에게 몇 차례 차고 있던 옥결을 들어 눈짓하였으나 항왕은 아무 말도 없고 응하지 않았다. 범증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항장을 불렀다. 범증은 항백에게 “군왕께서 사람됨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그대가 나아가 장수를 축원하고, 축원이 끝나면 검무를 청하고, 검무를 하다 연석에서 패공을 쳐서 죽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족 모두 장차 패공에게 사로잡힐 것이요.”<sup>105)</sup>

항우와 유방의 대화만 보았을 때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 위하여 연회를 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항우와 유방의 대화가 종료된 후 홍문연의 장내 배치를 설명하고 범증은 항우에게 유방을 죽일 것을 여러 차례 눈짓한다. 그러나 항우는 이를 알면서도 응하지 않았다고 사마천은 서술하였다. 항우가 응하지 않자 범증은 직접 나서서 항장에게 검무를 청하여 유방을 칠 것을 명한다. 범증의 계책으로 홍문연에서의 긴장은 상승되고 있다. 항량이 검무를 청하여 검무하는 장면을 이어서 살펴보자.

항장이 검을 뽑아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항백 역시 검을 들고 춤을 찾고 몸으로 패공을 막아 보호해 항장이 공격하지 못했다. 그러자 장량이 군문으로 가 변패를 만났다. 변패가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량이 말했다. “몹시 급박합니다. 지금 항장이 검무를 하는데 이는 패공을 치고자 하는 것이요.” 변패가 “상황이 급박합니다. 청컨대

---

105) 沛公旦日從百餘騎來見項王，至鴻門，謝曰：“臣與將軍戮力而攻秦，將軍戰河北，臣戰河南，然不自意能先入關破秦，得復見將軍於此。今者有小人之言，令將軍與臣有卻。”項王曰：“此沛公左司馬曹無傷言之；不然，籍何以至此？”項王即日因留沛公與飲。項王、項伯東嚮坐，亞父南嚮坐。亞父者，范增也。沛公北嚮坐，張良西嚮侍。范增數目項王，舉所佩玉珥以示之者三，項王默然不應。范增起，出召項莊，謂曰：“君王爲人不忍，若入前爲壽，壽畢，請以劍舞，因擊沛公於坐，殺之。不者，若屬皆且爲所虜。” 司馬遷，〈項羽本紀〉， 위의 책， pp. 312~313.

들어가 패공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sup>106)</sup>

항장의 검무로 패공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나 항백이 바로 함께 검무를 추면서 항장의 공격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위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장량은 급하게 군문으로 나가 번쾌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번쾌는 상황의 급박함을 알아차리고 바로 연회자리로 향한다.

번쾌는 즉시 검과 방패를 차고 군문으로 들어갔다. (...생략...) 항왕이 검을 쥐고 양 무릎으로 일어나면서 “너는 무얼 하는 놈이냐?” 장량이 말했다. “패공의 참승(參乘) 번쾌입니다.” 항왕이 말했다. “장사로다. 그에게 술을 주어라.” (...생략...) 항왕이 말했다.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겠는가?” 번쾌가 말했다. “신 죽음도 피하지 않사운데 어찌 술을 사양하겠습니까. 무릇 진왕이 호랑(虎狼)과 같은 마음을 지녀 사람을 죽여도 다 죽이지 못하여 걱정하는 것과 같이 살인을 하였으며, 형벌을 내리는 것이 모든 형벌을 다 내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모두 진을 배반했습니다. 회왕이 ‘진을 격파하고 함양에 먼저 입성한 자를 왕으로 삼는다.’고 제장과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패공께서 먼저 진을 격파하고 함양에 입성하였으나 조금도 사유한 것이 없으며 궁실을 봉인하고 폐상으로 포진하여 대왕이 내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수를 보내어 함곡관을 지키게 한 것은 도적들의 출입과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고하고 공로가 높기가 이와 같지만 봉후의 상사가 없을 뿐더러, 소인배의 요언을 들으시고 유공자를 주살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멸망한 진을 계승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사사로이 아뢰옵건데 대왕께서는 이를 따르시지 않는 것이

106) 項莊拔劍起舞，項伯亦拔劍起舞，常以身翼蔽沛公，莊不得擊。於是張良至軍門見樊噲，樊噲曰：“今日之事何如？”良曰：“甚急。今者項莊拔劍舞，其意常在沛公也。”噲曰：“此迫矣，臣請入，與之同命。” 司馬遷，〈項羽本紀〉，위의 책，p. 313.

좋다고 여깁니다.” 항왕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말했다. “앉으라.”  
 번쾌가 장량 곁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패공이 일어나 변소로 가  
 번쾌를 불러 내었다. (…생략…) 패공이 말했다. “나올 때 인사를 드리  
 지 않고 나왔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번쾌가 말했다. “큰일을  
 행할 때는 사소한 근신(謹慎)은 돌아보지 않으며, 큰 예는 사소한 검양  
 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은 큰 도마와 같고 저희는 어육(魚肉)  
 과 같은데 무슨 인사 같은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떠나버리  
 기로 했다. 그리고 장량이 남아 사죄하기로 했다. (…생략…) 항왕이 말  
 했다. “패공은 어디에 계신가?” 장량이 답했다. “대왕께서 허물을 꾸짖  
 으려 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홀로 탈출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미 진영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항왕이 백벽(白璧)을 받아 좌상위에 두었다. 아보  
 가 옥두(玉斗)를 받아 바닥에 놓고 검을 빼어 쳐서 깨며 말했다. “아!  
 이런 애자식과 대사를 도모할 수 없겠구나. 항왕의 천하를 뺏는 자는  
 반드시 패공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패공의 포로가 될 것이다.”<sup>107)</sup>

홍문연에서 유방은 목숨을 잃을 뻔 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홍문연에서  
 유방의 심리적 상태와 반응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사를  
 드리지 않고 변소로 나왔을 때 번쾌에게 ‘어떻하면 좋겠는가?’라는 말로 근  
 심하는 유방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홍문연에서는 유방의 비중보  
 다 오히려 항장의 검무를 막는 항백, 지혜로 유방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107) 噲卽帶劍擁盾入軍門。(…생략…) 項王按劍而跽曰：“客何爲者？”張良曰：“沛公之參乘樊噲者也。”項王曰：“壯士！賜之卮酒。”(…생략…) 項王曰：“壯士，能復飲乎？”樊噲曰：“臣死且不避，卮酒安足辭！夫秦王有虎狼之心，殺人如不能舉，刑人如不恐勝，天下皆叛之。懷王與諸將約曰：‘先破秦入咸陽者王之。’今沛公先破秦入咸陽，毫毛不敢有所近，封閉宮室，還軍霸上，以待大王來。故遣將守關者，備他盜出入與非常也。勞苦而功高如此，未有封侯之賞，而聽細說，欲誅有功之人。此亡秦之續耳，竊爲大王不取也。”項王未有以應，曰：“坐！”樊噲從良坐。坐須臾，沛公起如廁，因招樊噲出。(…생략…) 沛公曰：“今者出，未辭也，爲之奈何？”樊噲曰：“大行不顧細謹，大禮不辭小讓。如今人方爲刀俎，我爲魚肉，何辭爲！”於是遂去。乃令張良留謝。(…생략…) 項王曰：“沛公安在？”良曰：“聞大王有意督過之，脫身獨去，已至軍矣。”項王則受璧，置之坐上。亞父受玉斗，置之地，拔劍撞而破之，曰：“唉！堅子不足與謀。奪項王天下者，必沛公也，吾屬今爲之虜矣。” 司馬遷，〈項羽本紀〉， 위의 책, pp. 313-315.

번쾌와 장량의 역할이 돋보인다. 항우는 유방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는 번쾌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유방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선물을 내려놓기만 했을 뿐 분노하여 옥두를 깨버린 범증과 반대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마천은 홍문연이라는 한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이들의 대화,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홍문연에서의 장면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인과관계를 명확해 하였고, 대화와 표정, 행동으로 인물들의 심리변화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홍문연은 항우와 유방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항우는 홍문연 이후 입관하여 서초패왕이 되었지만 유방이라는 후환을 남겨두게 되었고, 반대로 유방은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제후들에게 분봉을 하고 서초패왕이 된 항우는 한왕 유방과 형양(滎陽), 성고(成臯), 광무(廣武) 등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쇠락의 길을 걸어가던 항우는 해하(垓下)에서 유방군에 포위되어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항우는 해하에서 패주하여 오강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영웅적인 존재에서 한군에 둘러싸여 자살하는 모습은 비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항우가 해하에서 곤궁에 처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자.

항왕의 군은 해하에 누벽을 구축하였으나 병사의 수는 적고 식량도 떨어진 상황이었으나 한군과 제후군이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밤중에 한군이 사면에서 초가를 부르자 항왕은 크게 놀라며 “한이 벌써 초를 얻었다 말인가? 어찌하여 이렇게 초인이 많은 말인가! 항왕은 밤에 일어나 장막에서 술을 마셨다. 우(虞)라는 미인이 있어 늘 사랑을 받아 항우를 쫓았고, 추(騅)라는 준마는 늘 항우가 타고 다녔다. 이리하여 항우는 슬퍼하여 노래 부르고 강개하여 시를 지어 ‘힘은 산을 들어 올릴 만 하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하구나. 시기가 불리하여 추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야, 우야,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노래를 여러 차례 부르니 미인이 이에 화창하였다. 항왕이 눈물을  
흘리자 좌우 근신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sup>108)</sup>

이 단락은 항우가 해하에서 사면초가를 당하여 밤중에 술을 마시면서 슬  
퍼하는 장면을 서술한 단락으로 <항우본기>의 절정에 이르는 단락이다. 항  
우는 홍구(鴻溝) 서쪽은 한(漢)이, 동쪽은 초(楚)가 차지하기로 한 ‘割鴻溝’의  
맹약을 맺고 동진하였으나, 유방은 항우군이 지치고 군량이 부족할 때 처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장량과 진평의 계책을 듣고 항우를 해하에서 포위하  
였던 것이다. 사마천은 한군이 사면에서 부르는 초의 노래의 장면과 항왕이  
술을 마시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아끼는 준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  
면으로 항우군의 전세(戰勢)가 기울어졌음을 은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  
로 하여금 감성적으로 해하의 장면에 빠져들도록 이끌고 있다. 해하의 전투  
장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독자의 능동적 역할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전개로만 그려냈다면 사마천이 항우라는  
인물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십분 발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마천은 해하에서 항우가 “한이 벌써 초를 얻었다 말인가?”라고 직접 입을  
열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독자가 해하의 전쟁을 상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었고, 항우라는 인물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항  
우의 노래와 눈물로 항우에 대한 동정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은 항우가 사  
면초가를 당한 뒤 패주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

108) 項王軍壁垓下，兵少食盡，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夜聞漢軍四面皆楚歌，項王乃大驚曰：“漢皆已得楚乎？是何楚人之多也！”項王則夜起，飲帳中。有美人名虞，常幸從；駿馬名騅，常騎之。於是項王乃悲歌慷慨，自爲詩曰：“力拔山兮氣蓋世，時不利兮騅不逝。騅不逝兮可奈何，虞兮虞兮奈若何！”歌數闋，美人和之。項王泣數行下，左右皆泣，莫能仰視。 司馬遷，〈項羽本紀〉， 위의 책, p. 333.

항왕이 말에 올랐고 말을 타고 따르는 휘하의 장사들이 8백 여인이었다. 밤중에 포위를 뚫고 남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날이 밝자 한군이 이를 알아차리고 기장 관영(灌嬰)에게 명하여 5천 기를 끌고 추격케 하였다. 항왕이 회수(淮水)를 건널 때 따르는 자는 백 여인뿐이었다. 항왕이 음릉(陰陵)에 이르렀으나 길을 잃어 한 농부에게 길을 물었다. 농부는 왼쪽으로 가라고 속여 말하였다. 왼쪽으로 갔다가 커다란택지에 빠졌다. 이 때문에 한군이 항왕을 추격해 이르렀다. 항왕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동진하여 동성(東城)에 이르렀고 (이 때 항우를) 따르는 자는 28기뿐이었으나 한의 기병은 수천인 이었다.<sup>109)</sup>

우리는 ‘밤’, ‘다음날 날이 밝았다’라는 시간적 표지를 통하여 짧은 시간동안 항우가 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항우를 따르는 장사가 8백 여 인 이었다’라는 숫자와 ‘항우를 추격하는 한군이 5천 기였다’라는 숫자를 대비하여 항우의 열세를 더하였다. 그러나 항우의 불리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급박하게 도망치는 상황에서 농부의 속임에 빠져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군의 추격이 다가옴을 알리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항우가 잡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긴장감을 사고 있다. 사마천은 독자가 느끼는 긴장의 끈을 더욱 팽팽하게 당긴다. 항우는 밤을 틈타 탈출하였을 때 항우를 따르는 장사 8백 여 명이였다. 그러나 회수를 건널 때는 1 백 여 명, 동성에 이르렀을 때는 28 기 뿐 이었다. 사마천은 항우를 따르는 기병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함을 드러내어 장면의 구체성을 더하였고 항우의 기병수와 한군의 기병수라는 비교대상을 됴으로써 항우가 처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렇게 해하에서 패주하여 적으로부터 급히 쫓

109) 於是項王乃上馬騎，麾下壯士騎從者八百余人，直夜潰圍南出，馳走。平明，漢軍乃覺之，令騎將灌嬰以五千騎追之。項王渡淮，騎能屬者百余人耳。項王至陰陵，迷失道，問一田父，田父給曰：“左。”左，乃陷大澤中。以故漢追及之。項王乃復引兵而東，至東城，乃有二十八騎。漢騎追者數千人。 司馬遷，〈項羽本紀〉，위의 책, p. 334.

기는 항우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영웅이 위기를 극복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웅으로의 회귀를 바라도록 한다. 한군의 추격을 받는 항우가 한군과 교전하면서 보이는 모습은 이러한 독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8년이 되었다. 그동안 70여 차례의 전쟁을 겪었으나 적들을 모두 격파하여 복종시켰다.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천하를 호령하는 패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곤궁함을 당하게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전투에 약함 때문이 아니다.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그대들을 위하여 결전을 하고자 하니 반드시 승리하여 포위를 뚫어 적장을 베고 군기를 쓰러트리겠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전투에 약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에 기사를 4 대로 나누어 4면으로 향하게 하였고 한군은 이를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항우는 그의 기사들에게 “공들을 위하여 적장 한 명을 잡아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기사들에게 달려 나아가 공격할 것을 명하고 산의 동쪽에 세 곳에서 집결하기를 기약하였다. 항우는 크게 소리치며 나아갔다. 한군이 흩어졌고 항우는 드디어 한군의 장수 한 명을 베었다. 이 때 한의 기장 적천후(赤泉侯)가 항우를 쫓고 있었는데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니 적천후와 인마(人馬)는 모두 놀라 수리(數理)를 퇴각했다. (...생략...) 항우가 말을 달려 다시 한의 도위(都尉) 한 사람을 베고 백 수십명의 병사를 죽였다. 다시 그의 기사를 모으니 2기를 잃었을 뿐이었다.<sup>110)</sup>

110) 謂其騎曰：“吾起兵至今八歲矣，身七十餘戰，所當者破，所擊者服，未嘗敗北，遂霸有天下。然今卒困於此，此天之亡我，非戰之罪也。今日固決死，願爲諸君快戰，必三勝之，爲諸君潰圍，斬將，刈旗，令諸君知天亡我，非戰之罪也。”乃分其騎以爲四隊，四向。漢軍圍之數重。項王謂其騎曰：“吾爲公取彼一將。”令四面騎馳下，期山東爲三處。於是項王大呼馳下，漢軍皆披靡，遂斬漢一將。是時，赤泉侯爲騎將，追項王，項王瞋目而叱之，赤泉侯人馬俱驚，辟易數里。(…생략…) 項王乃馳，復斬漢一都尉，殺數十百人，復聚其騎，亡其兩騎耳。 司馬遷，〈項羽本紀〉，위의 책, pp. 334~335.

항우가 패주하면서 홀로 적장과 수백의 적의 병사들을 베는 모습은 마치 신장이 8척이고 힘은 정(鼎)을 들어 올릴 만하며 재기가 뛰어나 모두 항우를 두려워했다는 오중에서의 모습, 천하를 호령하였던 모습을 불러일으킨다. 항우가 해하에서 ‘힘은 산을 들어 올릴 만 하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 하구나!’라고 직접 말하였듯이 항우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그가 천하를 호령하던 패자에서 적에게 뒤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독자는 적에게 뒤쫓기면서도 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항우의 모습에서 과거 항우가 보여주었던 재기(才氣)와 용맹한 모습을 떠올리며 항우의 재기(再起)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항우가 오강에서 강동으로 가기를 거절하는 장면에서 무너지게 된다.

“강동의 땅이 작지만 천리(千里)의 크기이며 수십만 인이 살고 있는 곳이니 왕이 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원하옵건데 대왕께서는 속히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 배를 지닌 사람은 저 뿐이며 한군이 도착하여도 건널 수 없습니다.” 항우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늘이 나를 망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강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또한 함께 한 강동의 자제 8천 명이 강을 건너 서진하였으니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한들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몰 수 있겠는가?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마음속으로 부끄럽지 않겠는가?”<sup>111)</sup>

항우는 한군을 피하여 강을 건너기 위하여 오강으로 향하였다. 오강의 정

111) 於是項王乃欲東渡烏江。烏江亭長檣船待，謂項王曰：“江東雖小，地方千里，衆數十萬人，亦足王也。願大王急渡。今獨臣有船，漢軍至，無以渡。”項王笑曰：“天之亡我，我何渡爲！且籍與江東子弟八千人渡江而西，今無一人還，縱江東父兄憐而王我，我何面目見之？縱彼不言，籍獨不愧於心乎？” 司馬遷，〈項羽本紀〉， 위의 책， p. 338.

장이 배를 준비하며 강동으로 건너가 왕이 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우는 웃으면서 거절한다. 살기 위하여 도망쳤으나 도망가기를 원하는 정장에게서 항우는 자신을 따르던 자제들이 귀환하지 못한 것과 그러한 자신을 왕으로 삼는 강동의 부형들을 생각하면서 면목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항우가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웃으면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을 따르던 자제와 강동의 부형들에 대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영웅은 모험을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적과 싸우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에 대한 수궁과 인정으로 영웅은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되지만 항우는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죽음을 택하여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난세에서 구원을 얻게 해준 영웅이 귀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한을 남기도록 하였다.

해하에서 곤궁을 당하고 패주하여 오강에서 자결하기까지의 장면은 영웅이었던 인물이 어떤 말로를 밟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사마천은 이 과정들을 초가를 부르는 한군의 모습, 사면초가로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항우의 모습, 한군에게 맹렬하게 쫓기지만 제압하며 다시 도망치는 모습, 강동으로 도망칠 것을 원하는 오강 정장과의 대화 등을 삽입하여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죽음을 대하는 항우의 감정과 태도를 가감 없이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거병하여 단시간에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몰락하였으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생을 마감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시린<sup>112)</sup> 것인지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 2) <고조본기> 서사표현 이해

112) 김병건, <한문교육의 측면에서 본 항우의 두 가지 판단>, 《漢文學報》 제23집, 2010, p. 577.

패현에서 태어난 유방은 진의 실정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인물로 진을 멸망시킨 서초 패왕 항우를 제거하고 일반 백성에서 한의 황제에 올랐다. 유방은 용맹하나 포악했던 항우와 달리 덕을 쌓아 민심을 얻었으며 근신들의 계책을 수용하여 진을 이어서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고조본기> 도입부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유방이 비범성을 지닌 인물로 그리고 있다. 유방과 여공(呂公)이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자.

단보인(單父人) 여공(呂公)이 패현의 현령과 친분이 있었고 원수를 피해 패현 현령의 객이 되었다. 패현의 호걸들과 관리들이 중객(重客)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다. 주리(主吏)로 예물관리를 담당하는 소하(蕭何)가 “일천전을 낼 수 없는 손님은 당하로 앉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평소 관리들을 깔보던 고조는 거짓으로 ‘축하금 1만 전’이라 써서 내었으나 사실은 1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공은 이에 놀라 일어나 나가 고조를 맞이하였다. 평소 관상을 잘 보는 여공은 고조의 얼굴을 보고 매우 공경하게 대하였고 자리로 안내하였다. 소하는 여공에게 “유계는 허풍이 많고 일을 이루는 일이 적다.”고 말했다. 고조는 이로 제 빈객들을 희롱하였고 상좌에 앉아 전혀 겸양의 기색이 없었다. 주연이 무르익자 여공은 고조로 하여금 더 머무르게 하였다. 고조는 술에 취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공이 고조에게 “제가 관상을 잘 봅니다. 그동안 관상을 본 사람은 많지만 공과 같은 상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애(自愛)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여식이 하나 있는데 공께 드리고자 하니 청을 들어주십시오.” 주연이 끝난 후 여공의 아내가 화를 내며 “평소 딸을 귀인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패현 현령에게도 주지 않았던 딸을 어찌하여 함부로 유계에게 허락했습니까?”라고 말하자 여공은 “이는 아녀자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sup>113)</sup>

사마천은 여공과의 일화를 통하여 평소 관리들은 깔보았다는 유방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하였고, 허풍이 많고 이루는 일이 적다는 소하의 말과 빈객들을 희롱하고 상좌에 앉아 겸양의 기색이 없었다는 행위로 일반 백성으로 보잘 것 없었던 유방의 상황을 짐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상을 잘 보는 여공을 등장시켜 유방이 더할 나위 없는 관상을 지닌 인물이며 비록 현재는 하찮은 말직에 있지만 머지않아 크게 될 위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암시는 유방이 큰 뱀을 죽인 사건을 통하여 더욱 선명해진다.

고조는 현령으로 패현의 인부를 여산(廬山)으로 보내야 하는데 도중에 많은 인부들이 도망치자 여산에 도착하면 남은 사람이 몇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멈추어 술을 마시고 밤중에 인부들을 모두 놓아주며 “공들은 모두 돌아가시오. 나 역시 여기서 떠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인부 중 열 몇 사람이 고조와 함께 가고자 했다. 고조는 술에 취해 한밤에 택지를 지나가게 됐다. 고조는 한 사람을 시켜 길 앞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앞서 간 사람이 돌아와 “앞에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고조는 취하여 “장사의 길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앞을 향해갔다. 고조는 앞으로 가서 검을 뽑아들고 뱀을 쳐 죽였다. 뱀은 두 동강이 나고 길이 열렸다. 몇 심리를 가다 고조는 취한 나머지 길에 누워버렸다. 뒤에서 따르던 자가 뱀이 있는 곳에 이르러 한 노인이 밤중에 우는 것을 보았다. 노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노인은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여서 우는

113) 單父人呂公善沛令，避仇從之客，因家沛焉。沛中豪桀吏聞令有重客，皆往賀。蕭何爲主吏，主進，令諸大夫曰：“進不滿千錢，坐之堂下。”高祖爲亭長，素易諸吏，乃給爲謁曰“賀錢萬”，實不持一錢。謁入，呂公大驚，起，迎之門。呂公者，好相人，見高祖狀貌，因重敬之，引入坐。蕭何曰：“劉季固多大言，少成事。”高祖因狎侮諸客，遂坐上坐，無所誚。酒闌，呂公因目固留高祖。高祖竟酒，後。呂公曰：“臣少好相人，相人多矣，無如季相，願季自愛。臣有息女，願爲季箕帚妾。”酒罷，呂媼怒呂公曰：“公始常欲奇此女，與貴人。沛令善公，求之不與，何自妄許與劉季？”呂公曰：“此非兒女子所知也。”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 pp. 344~345.

것이시오.”라고 답했다. “아드님이 어찌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라고 물으니 노인은 “내 아들은 백제(白帝)의 아들이요 변화해 뱀이 되어 길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적제(赤帝)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노인을 이상히 여겨 해치우려고 하자 노인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는 고조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이 일을 고조에게 말하였더니 고조는 마음속으로 기뻐하였고 따르던 자들이 고조를 더욱 경외하였다.<sup>114)</sup>

적제의 아들이 백제의 아들인 자신의 자식을 죽였다는 노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백제와 적제는 오행설에 따른 상징적인 표현으로 백제는 상(商), 적제는 주(周)를 상징한다. 따라서 상을 계승한 진은 백제의 아들이 되고 주를 계승한 한은 적제의 아들이 되는데 사마천은 뱀과 노인의 일화를 통하여 뱀을 죽인 유방이 진 왕조를 한 왕조로 교체할 것이라는 복선을 일반 백성인 유방의 삶에서 미리 깔고 있는 것이다.<sup>115)</sup> 이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보낸 유방의 일화들을 통하여 사마천은 한 왕조를 세운 유방의 전기에 신성성을 부여하였고 또한 한이 진을 이은 전통왕조라는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합리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사마천은 유방이 패공으로 추

114) 高祖以亭長爲縣送徒鄴山，徒多道亡。自度比至皆亡之，到豐西澤中，止飲，夜乃解縱所送徒。曰：“公等皆去，吾亦從此逝矣！”徒中壯士願從者十餘人。高祖被酒，夜徑澤中，令一人行前。行前者還報曰：“前有大蛇當徑，願還。”高祖醉，曰：“壯士行，何畏！”乃前，拔劍擊斬蛇。蛇遂分爲兩，徑開。行數里，醉，因臥。後人來至蛇所，有一老嫗夜哭。人問何哭，嫗曰：“人殺吾子，故哭之。”人曰：“嫗子何爲見殺？”嫗曰：“吾子，白帝子也，化爲蛇，當道，今爲赤帝子斬之，故哭。”人乃以嫗爲不誠，欲告之，嫗因忽不見。後人至，高祖覺。後人告高祖，高祖乃心獨喜，自負。諸從者日益畏之。 司馬遷，〈高祖本紀〉， 위의 책， p. 347.

115) 《여씨춘추·응동편(呂氏春秋·應同篇)》에서는 “황제를 비롯한 오제(五帝)는 토의 덕을 받았으므로 황색(黃色)을 귀하게 여겼다. 하(夏) 우왕은 木의 덕을 받았으므로 청색(靑色)을 귀하게 여겼다. 은(殷) 탕왕은 金의 덕을 받았으므로 백색(白色)을 귀하게 여겼다. 주(周) 문왕은 火의 덕을 받았으므로 적색(赤色)을 귀하게 여겼다. 火의 덕을 대신 하는 자는 水의 덕을 받아야 하므로 흑색(黑色)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라는 역대 왕조가 숭상하는 색깔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노파의 이야기 속 백제와 적제는 각각 상과 주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성윤, 위의 논문, p. 55. 재정리.

대되고 황제가 되기 전까지의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유방이 천하를 통일 할 수 있었던 동력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 동력 중 하나로 유방의 유덕함을 꼽을 수 있다. 패현(沛縣)의 유지들은 유방의 신변에 진기하고 괴이한 일이 많고 점괘가 길하여 그를 추천하여 패공(沛公)으로 추대하였다.<sup>116)</sup> 유방은 패공이 되어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회왕이 조를 구원하기 위해 장수를 보낼 때 노장들은 유방이 ‘관인(寬仁)하고 유덕’하다고 평하였다.<sup>117)</sup> 유방이 거병하여 입관(入關)하기 전 유방의 성격에 대하여 묘사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유방이 거병할 때 유방이 추대된 것은 패현의 유지들이 유방이 고귀한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으며 이후 유방의 행적은 간략서술로만 기록되어 있어 유방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노장들의 평으로 인하여 유방이 어느 정도 민심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잔학한 항우와 비교하여 진 백성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유방의 유덕함이 드러나는 부분은 진의 백성들에게 법은 3장(三章) 뿐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대목이다.

여러분들이 가혹한 진의 형법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멸족이 되고 단순히 논하는 자들도 사형당하여 시장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먼저 입관한 자를 왕으로 삼는다는 제후들과 약속의 따라 관중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3 장(章)의 법만 약속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와 도적질 하는 자는 상응하는 죄를 물을 것입니다. 진의 모든

116) 諸父老皆曰：“平生所聞劉季諸珍怪，當貴，且卜筮之，莫如劉季最吉。”於是劉季數讓。衆莫敢爲，乃立季爲沛公。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 p. 350.

117) 懷王諸老將皆曰：“項羽爲人僂悍猾賊。項羽嘗攻襄城，襄城無遺類，皆隄之，諸所過無不殘滅。且楚數進取，前陳王、項梁皆敗。不如更遣長者扶義而西，告諭秦父兄。秦父兄苦其主久矣，今誠得長者往，毋侵暴，宜可下。今項羽僂悍，今不可遣。獨沛公素寬大長者，可遣。”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 pp. 356~357.

법은 없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안도하시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곳이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해를 없애고자 온 것이지 침략과 폭정을 일삼고자 온 것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회군하여 패상에 포진한 것은 제후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약속을 이행하고자 할 따름입니다.<sup>118)</sup>

유방은 진의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가혹한 형법을 없애고 그들에게 3장(三章)의 법만을 약속하며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유방이 진이 실정(失政)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진의 폭정을 이어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범증이 항우에게 홍문연에서 유방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범증은 유방이 이미 천하의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유방을 살려두면 반드시 천하를 쟁탈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유방이 진 왕조를 이어받아 한을 세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을 ‘인재(人才)’에서 찾을 수 있다. 유방의 인재로는 장량, 소하, 한신이 있었다. 유방은 고기(高起), 왕릉(王陵)과 천하를 보유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장량은 군중에서 책략을 세워 천리 밖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였고, 소하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량(軍糧)을 공급하고 양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한신은 백만 군사를 이끌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취한다고 평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높이 샀다. 이어 유방은 항우가 범증이라는 유능한 모사가 있음에도 그를 잘 쓰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항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장량, 소하, 한신

---

118) 父老苦秦苛法久矣，誹謗者族，偶語者棄市。吾與諸侯約，先入關者王之，吾當王關中。與父老約，法三章耳：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餘悉除去秦法。諸吏人皆案堵如故。凡吾所以來，爲父老除害，非有所侵暴，無恐！且吾所以還軍霸上，待諸侯至而定約東耳。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p. 362.

이라는 뛰어난 인재들을 사용할 줄 았에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sup>119)</sup> 유방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 이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항우와 비교하였을 때도 그러하다. 항우는 그 힘이 강하여 감히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홀로 한군과 접전했을 때 한군 백 여 명과 기장을 베기도 하였다. 이러한 항우의 능력을 유방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광무(廣武)에서 항우가 자웅을 겨루고자 하였을 때 힘보다는 지략으로 싸우고자 한 것이다.<sup>120)</sup>

유덕함과 인재를 통하여 얻은 지혜로 민심을 얻은 유방은 항우와 몇 차례 전쟁을 겪은 뒤 해하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된다. <고조본기>에서 기록한 해하의 전쟁 장면은 다음과 같다.

5년, 고조가 제후군과 함께 초군을 공격하여 해하에서 항우와 최후의 결판을 내고자 하였다. 회음후(淮陰侯)는 30만을 이끌고 항우군과 정면으로 대치하였고 공장군(孔將軍)은 좌측에서, 비장군(費將軍)은 우측에 포진하였고 황제는 후방에서, 강후(絳侯)와 시장군(柴將軍)은 황제의 뒤에 위치하였다. 항우의 군사는 10만에 달하였다. 회음이 먼저 공격하였다 불리하자 퇴각하였다. 공장군과 비장군이 합세하자 초군이 불리해졌고 회음후가 다시 승기를 타고 공격하여 초군을 해하에서 대파하였다. 항우의 병사들은 한군이 부르는 초가(楚歌)를 듣고 한군이 이미

119) 高祖置酒雒陽南宮。高祖曰：“列侯諸將無敢隱朕，皆言其情。吾所以有天下者何？項氏之所以失天下者何？”高起、王陵對曰：“陛下慢而侮人，項羽仁而愛人。然陛下使人攻城略地，所降下者因以予之，與天下同利也。項羽妒賢嫉能，有功者害之，賢者疑之，戰勝而不予人功，得地而不予人利，此所以失天下也。”高祖曰：“公知其一，未知其二。夫運籌策帷帳之中，決勝於千里之外，吾不如子房。鎮國家，撫百姓，給餽饈，不絕糧道，吾不如蕭何。連百萬之軍，戰必勝，攻必取，吾不如韓信。此三者，皆人桀也，吾能用之，此吾所以取天下也。項羽有一范增而不能用，此其所以爲我擒也。”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pp. 380~381.

120) 楚漢久相持未決，丁壯苦軍旅，老弱罷轉漕。項王謂漢王曰：“天下匈匈數歲者，徒以吾兩人耳，願與漢王挑戰，決雌雄，毋徒苦天下之民父子爲也。”漢王笑謝曰：“吾寧鬪智，不能鬪力。”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p. 328.

초의 땅을 모두 얻은 것으로 여겼고 이로써 항우가 패주하게 되자 초군은 붕괴되었다. (한왕은) 기장 관영에게 항우를 추격하게 하여 동성(東城)에서 죽였고, 목을 벤 초군이 8만 이었다. 이리하여 초의 땅을 공략하여 평정하게 되었다.<sup>121)</sup>

해하의 전쟁에서 사마천은 한군의 포진과 한군의 공격방법을 기록하여 한군이 어떤 전략을 써서 초군을 격파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유방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 그리고 후방으로 나누어 한군의 진영에 대하여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우를 공격하는 제후들이 어떻게 항우를 공격하였는지 기술하고 있다. <항우본기>에서 해하의 전쟁은 항우가 초가를 들고 슬피하여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리고 농부에게 속아 쫓기는 장면과 도망치면서 한군과 접전했던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고조본기>에서 이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고조본기>에서는 ‘항우가 패주하게 되자 초군은 붕괴되었다. (한왕은) 기장 관영에게 항우를 추격하게 하여 동성(東城)에서 죽였다.’라고 사건의 전개를 간략하게 설명할 뿐 해하에서 패주한 항우에 대한 사건의 경과와 배경 묘사를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이는 해당 인물의 전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이거나 해당 전기의 인물에게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항우에게는 해하에서 곤궁함을 당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유방에게는 적 항우를 공격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마천은 사건의 요약을 통해 해당 인물의 전기를 기술하였던 것이다. 유방이 항우를 대파시키고 마침내 황제의 위에 오른 장면을 이어서 살펴보자.

121) 五年，高祖與諸侯兵共擊楚軍，與項羽決勝垓下。淮陰侯將三十萬自當之，孔將軍居左，費將軍居右，皇帝在後，絳侯、柴將軍在皇帝後。項羽之卒可十萬。淮陰先合，不利，却。孔將軍、費將軍縱，楚兵不利，淮陰侯復乘之，大敗垓下。項羽卒聞漢軍之楚歌，以爲漢盡得楚地，項羽乃敗而走，是以兵大敗。使騎將灌嬰追殺項羽東城，斬首八萬，遂略定楚地。 司馬遷，<高祖本紀>，위의 책，pp. 378~379.

정월, 제후와 장상이 한왕을 높여 황제라고 칭하려 하자 한왕은 “듣기로 황제의 존호는 현명한 자만을 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언(空言)을 취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존호는 당치 않습니다.”라고 사양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이 “평민의 신분으로 봉기하여 역도들을 주벌하고 사해를 평정하여 유공자를 왕후로 삼았으니 황제라 칭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한왕의 봉상(封賞)을 믿지 않을 테니 죽음으로써 청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한왕은 세 번 사양했으나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 “신들이 적합하다 생각하면 국가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소.”라고 하였다. 2월 갑오일(甲午日) 한왕은 사수(泗水) 북쪽에서 황제 위에 올랐다. (...생략...) 천하는 모두 평정되었고 고조는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 제후 모두 신하로서 고조를 따랐다.<sup>122)</sup>

유방은 천하를 호령하던 서초 패왕을 격파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일반 무명의 백성에서 일어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차근차근 밟아온 유방의 여정은 한이라는 새 왕조의 시작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평민으로 일어나 역도들을 주벌하고 천하를 평정한 유방의 공로를 말하는 군신들은 유방이 천하의 주인이 될 만한 인물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군신들의 말화는 유방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범하게 출생하여 새로운 왕조를 열어갈 준비를 하면서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한의 황제가 된 유방의 일생을 주도면밀하게 서술한 <고조본기>를 통해서 한 왕조의 시조가 지닌 영웅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22) 正月，諸侯及將相相與共請尊漢王爲皇帝。漢王曰：“吾聞帝賢者有也，空言虛語，非所守也，吾不敢當帝位。”羣臣皆曰：“大王起微細，誅暴逆，平定四海，有功者輒裂地而封爲王侯。大王不尊号，皆疑不信。臣等以死守之。”漢王三讓，不得已，曰：“諸君必以爲便，便國家。”甲午，乃即皇帝位汜水之陽。(…생략…) 天下大定。高祖都雒陽，諸侯皆臣屬。 司馬遷, <高祖本紀>, 위의 책, pp. 378~380.

사마천은 항우와 유방이 겪었던 일대의 사건들의 경과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항우와 유방이 보이는 성격과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마천은 해당 인물의 전기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전기에 수록하여 더욱 입체적인 인물의 형상을 만들었다. 항우와 유방은 홍문연 이후 천하를 쟁탈하기 위하여 팽성, 형양, 성고, 광무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광무에서의 장면은 같은 장면이지만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 항우와 유방이 기나긴 대치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비교 대조하며 살펴볼 수 있다. 항우와 유방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군량의 부족과 군사들의 피로에 시달렸다. <항우본기>에 기술된 광무의 대치 장면은 다음과 같다.

항왕은 동해(東海)의 땅을 평정한 뒤 서진하여 한군과 광무(廣武)를 사이에 두고 수 개월간 대진하였다. 당시 팽월은 자주 양(梁) 땅에서 만란을 일으켜 초의 양식을 끊어 항왕이 이를 근심하였다. 항왕은 높은 도마를 만들어 태공(太公)을 그 위에 올려두고 한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 이에 한왕은 “그대와 함께 북면하여 회왕의 명을 받고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나의 부친은 곧 그대의 부친이니 그대의 부친을 꼭 삶아 죽여야겠다면 나에게 도국 한 그릇을 나누어 주시게나.”라고 답하였다. 항백이 항우에게 “천하의 일은 아직 알지 못하고 또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집을 돌보지 않습니다. 비록 태공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화를 키울 뿐입니다.”라고 말하자 항우는 이를 따랐다. 초와 한이 오랫동안 대치하고 결판이 나지 않자 장정은 군려(軍旅)에 고달파하고 노약자들은 군량을 운송하는 것에 지쳐하였다. 항왕은 한왕에게 “천하가 오랫동안 흉흉한 것은 우리 두 사람 때문이니 그대와 자웅의 결판을 내어 천하의 백성들을 헛되이 괴롭게 하지 말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왕

은 웃으면서 “내가 지혜로 싸울지언정 힘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요.”라고 거절하였다. 항왕은 장사를 명하여 싸움을 둔구었다. 한에는 누번(樓煩)이라는 뛰어난 기사가 있어 초가 여러 차례 싸움을 둔구었으나 누번이 모두 죽었다. 항왕이 대노하여 갑옷을 입고 극(戟)을 들고 직접 싸움을 하였다. 누번이 그를 쏘려고 하였으나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자 누번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손으로 활을 쏘지 못하여 누벽으로 돌아와 감히 다시 나가지 않았다.<sup>123)</sup>

<항우본기>에 기록된 광무의 대치는 주로 항우와 유방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광무의 대치’에서는 항우가 유방의 부친인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고 한 것과 자웅의 결판을 내자고 한 대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조본기>에서는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고 한 항우와 말과 유방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유방이 항우의 죄 10가지를 꾸짖고 있다.

초와 한이 오랫동안 서로 대치만 한 채 결판이 나지 않았다. 장정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노약자들은 군량 수송에 고달파했다. 한왕과 항우는 광무(廣武)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항우는 한왕에게 1대 1로 결판을 내자고 하였으나 한왕은 항우의 죄를 꾸짖었다. “그대와 함께 먼저 입관한 자가 관중의 왕이 된다는 회왕의 명을 받았으나 그대는

---

123) 項王已定東海來，西，與漢俱臨廣武而軍，相守數月。當此時，彭越數反梁地，絕楚糧食，項王患之。爲高俎，置太公其上，告漢王曰：“今不急下，吾烹太公。”漢王曰：“吾與項羽俱北面受命懷王，曰‘約爲兄弟’，吾翁卽若翁，必欲烹而翁，則幸分我一杯羹。”項王怒，欲殺之。項伯曰：“天下事未可知，且爲天下者不顧家，雖殺之無益，祇益禍耳。”項王從之。楚漢久相持未決，丁壯苦軍旅，老弱罷轉漕。項王謂漢王曰：“天下匈匈數歲者，徒以吾兩人耳，愿與漢王挑戰決雌雄，毋徒苦天下之民父子爲也。”漢王笑謝曰：“吾寧鬪智，不能鬪力。”項王令壯士出挑戰。漢有善騎射者樓煩，楚挑戰三合，樓煩輒射殺之。項王大怒，乃自被甲持戟挑戰。樓煩欲射之，項王噉目叱之，樓煩目不敢視，手不敢發，遂走還入壁，不敢復出。 司馬遷，〈項羽本紀〉， 위의 책, pp. 327~328.

약속을 저버리고 나를 한왕으로 삼은 것인 죄과의 하나요. 경자관군을 교살하고 상장군이 된 것이 죄과의 둘이요. 조를 구한 뒤 돌아와 보고 해야 하나 멋대로 제후들을 위협해 입관한 것인 죄과의 셋이요. 회왕이 진에서 포박하고 약탈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나 진궁을 불사르고 진시황의 무덤을 도굴하고 재화를 챙긴 것이 죄과의 넷이요. 투항한 진 자영을 죽인 것이 죄과의 다섯이요. 진의 자제 20만 명을 신안(新安)에 묶어 죽이고 장한을 왕으로 삼은 것이 죄과의 여섯이요. 각 제후의 장령들을 모두 좋은 지역에 봉하였으나 그 지역의 제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들의 군신들로 하여금 왕위를 쟁탈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이 죄과의 일곱이요. 의제를 팽성에서 내쫓아 자신이 그곳이 도읍하고 또한 한왕의 땅을 빼앗고 양과 초의 땅을 병합하여 자기의 소유로 한 것이 죄과의 여덟이요. 사람을 시켜 의제를 강남에서 시해한 것이 죄과의 아홉이요. 군신 된 자로 군주를 시해하고 자신에게 투항한 이들을 죽이며 위정이 공평하지 않고 신의가 없으며 이는 천하가 받아들일 수 없고 대역무도한 것이니 이것이 죄과의 열이요. 나는 의병과 제후들을 이끌고 잔학한 죄인을 토벌할 것인데 내가 도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항우는 크게 노하였고 궁수들을 매복시켜 한왕을 쏘아 맞혔다. 한왕은 가슴에 화살을 맞았지만 발을 만지며 “저 도적이 내 발을 맞혔구나.”라고 말하였다. 한왕이 화살에 맞아 병상에 누웠지만 장량은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순행할 것을 청하였다. 한왕은 군영을 시찰한 후 병세가 가중되어 성고로 되돌아갔다. 124)

124) 楚漢久相持未決，丁壯苦軍旅，老弱罷轉饑。漢王項羽相與臨廣武之間而語。項羽欲與漢王獨身挑戰。漢王數項羽曰：“始與項羽俱受命懷王，曰先入定關中者王之，項羽負約，王我於蜀漢，罪一。項羽矯殺卿子冠軍而自尊，罪二。項羽已救趙，當還報，而擅劫諸侯兵入關，罪三。懷王約入秦無暴掠，項羽燒秦宮室，掘始皇帝冢，私收其財物，罪四。又彊殺秦降王子嬰，罪五。詐阬秦子弟新安二十萬，王其將，罪六。項羽皆王諸將善地，而徙逐故主，令臣下爭叛逆，罪七。項羽出逐義帝彭城，自都之，奪韓王地，并王梁楚，多自予，罪八。項羽使人陰弑義帝江南，罪九。夫爲人臣而弑其主，殺已降，爲政不平，主約不信，天下所不容，大逆無道，罪十也。吾以義兵從諸侯誅殘賊，使刑餘罪人擊殺項羽，何苦乃與公挑戰！”項羽大怒，伏弩射中漢王。漢王傷匈，乃捫足曰：“虜中吾指！”漢王病創臥，張良彊請漢王起行勞軍，以安士卒，毋令楚乘勝於漢。漢王出行軍，病甚，因馳入成皐。 司馬遷，〈高祖本紀〉， 위의 책, pp. 376~377.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에서 ‘광무의 대치’ 장면은 서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항우본기>에서는 높은 도마를 만들어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고 한 항우의 말에 ‘형제가 되었으나 부친을 죽이겠다고 하면 나도 한 그릇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유방의 대답, 자웅을 결판내자는 항우에게 지혜가 아닌 힘으로는 싸우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유방의 대화를 광무의 장면 주요 줄거리로 하고 있으나 <고조본기>는 <항우본기>에서 기술된 대화의 내용을 ‘한 왕과 항우는 광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말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어 자웅의 결판을 내자는 항우를 꾸짖으며 말한 죄과 10가지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항우의 죄과 10가지는 반대로 <항우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항우본기>에서 자신의 부친을 죽이고자 하는 적에게 ‘부친을 죽이겠다고 하면 나도 한 그릇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유방의 대답은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웅을 겨루자는 항우에게 힘이 아닌 지혜로 싸우기를 원한다는 유방의 대응자세는 완곡하기도 하다. <항우본기>는 항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전기로 항우가 패왕이 되어가는 과정과 몰락해 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항우본기> 속의 유방이라는 인물의 전형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본기>에 수록되면 유방의 인생이 지녀야 하는 통일성을 자칫 해할 수 있는 대화는 <항우본기>에서는 구속 없이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고조본기>에서의 항우의 죄과 10가지는 패왕이 된 이후 항우가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이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유방에게는 항우를 제거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항우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인물의 특징을 분산하여 기록한 호견법은 사마천의 ‘허위로 꾸미지 않고 악함을 숨기지 않는다(不虛美, 不隱惡)’는 역사서술 태도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전기에서는 인물의 공업과 전형성을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인물의 성격을 창출하였고 해당 편에 기술되지 않는

성격을 다른 편에 분산 기술하여 인물의 또 다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25)</sup> 사마천의 이와 같은 서술기법으로 인하여 독자는 사마천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인물의 개성을 나타내는 조각을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에서 대조하면서 파악할 수 있고, 사마천은 같은 장면을 해당 인물의 전기에 동일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이면서도 생동감 있게 항우와 유방의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항우와 유방의 갈등양상과 인물의 성격은 작가 예술관의 반영이며 작가의 저술아래 완성되었다. 사마천은 부친 사마담(司馬談)의 유지를 받들어 부친이 완성하지 못하였던 저술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사마천은 부친 사마담의 유지에 따라 부친의 저술을 이어나가는 도중 뜻하지 않은 궁형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울분이 맺히게 되었다. 사마천은 《시경(詩經)》, 《주역(周易)》, 《춘추(春秋)》, <이소(離騷)>, 《국어(國語)》, 《여람(呂覽)》, <세난(說難)>, <고분(孤憤)>의 저자들이 마음 속 울분을 발산시키기 위하여 위의 저서들을 저술한 것을 예를 들며 ‘지난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는 비록 겁이 많고 유약하여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거취(去就)의 분별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sup>126)</sup>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사마천이 누구보다 구차한 삶과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사마천이 고민하였던 삶과 죽음, 하늘과 사람의 관계, 고금의 변화는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마천은 이를 역사적 사건과 역사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사기》에 담아내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마천의 의지는 《사기》에 수록한 인물유형에도 영향을 끼쳤다. 항우와 유방 역시 사마

125) 항우가 기록된 편목으로는 <項羽本紀> 외에 <高祖本紀>, <呂后本紀>, <淮陰侯列傳> 등이 있으며, 유방이 기록된 편목으로는 <高祖本紀> 외에 <項羽本紀>, <呂后本紀>, <蕭相國世家>, <留侯世家>, <魏豹彭越列傳>, <淮陰侯列傳>, <酈生陸賈列傳> 등이 있다.

126) 僕雖怯懦欲苟活，亦頗識去就之分矣。 陰法魯 지음, 위의 책, p. 302.

천의 저술의도에 의해 <본기><sup>127)</sup>에 수록된 인물이다. 사마천은 항우와 유방을 단순히 역사적인 전쟁의 패자와 승자로 기록하지 않았고, 동시대에 살았던 패왕에서 몰락의 길을 걸은 인물과 일반 백성에서 한 국가의 제왕이 된 인물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고 고금의 변화의 통달하고자’<sup>128)</sup> 하였다. 진말 제후들을 이끌고 천하를 제패하던 항우가 비극적 말로를 맞이하는 장면은 권력이 유방으로 이동해가는 장면이기도 하다. 사마천은 죽음을 맞이하는 패왕의 말로와 항우와 비교하여 보잘 것 없던 유방이 황제가 되는 과정을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에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다른 전기에 항우와 유방에 대한 인물의 특징을 분산 서술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인물의 형상을 완성하였다.

## 2. 영화 《왕적성연》 서사표현 이해

모스가 전신을 발명한 이후 전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눈부신 진보를 이루었다.<sup>129)</sup> 정보전달 방식이 활자에서 전

127) 항우와 유방이 수록되어 있는 <본기> 편찬에 대하여 사마천은 ‘천하에 흩어지고 유실된 구문(舊聞)을 망라하여 왕적(王積)의 시작과 끝을 살펴 흥성함과 쇠망한 것을 밝히고, 각 조대의 일을 고찰하여 대략 삼대를 미루어 판단하고 진(秦)과 한(漢)을 기록하되 위로는 현원(軒轅)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두본기>를 지었다(網羅天下放失舊聞, 王迹所興, 原始察終, 見盛觀衰, 論考之行事, 略推三代, 象秦漢, 上記軒轅, 下至于茲, 著十二本紀, 既科條之矣)’라고 하였다. 《한서(漢書)》는 통사인 《사기》와 달리 한(漢)의 성립에서부터 왕망(王莽) 사후까지 기록한 단대사(斷代史)로 한초(漢初)에서 한 무제까지의 시기가 《사기》와 중복된다. 반고는 항우를 <진승·항적열전>에 수록하였는데 《한서·열전》은 한나라의 공경장상(公卿將相), 변경의 민족, 난신적자(亂臣賊子)에 대한 전기이다. 사마천은 항우를 제왕의 전기인 <본기>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반고의 저술의도가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본기>에 항우를 기술했던 것은 전적으로 사마천이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28) 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陰法魯, 위의 책, 京大學出版社, 2011, p. 303.

자로 확대된 전자시대에서 정보전달 환경의 변화로 독자들의 정보 전달 수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시각 또는 청각으로 단일화되었던 이전의 인쇄계 미디어와 라디오<sup>130)</sup>에서 시각과 청각을 동반하는 영화의 등장은 문자로 정보를 수용하였던 독자를 새로운 대중문화로 안내하였다.

영화는 필름을 구성하고 있는 연속적인 이미지중의 하나이자 최소 단위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의 연속<sup>131)</sup>인 영화는 발명단계부터 도상적 기호를 지니고 있으며 관중들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들을 봄으로써 영화의 ‘서사’를 읽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라마의 6가지 요소 중 제6요소에 해당되는 ‘시각적 치장’은 작품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수단<sup>132)</sup>이라 하였듯이 영상을 보면서 영화의 서사를 읽게 되는 관중에게는 시각적 요소의 의존도가 높다. 또한 영화는 음향이라는 또 다른 전달방식을 가지는 복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자서사와 대별된다.<sup>133)</sup> 음향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드라마의 제6요소 중 제5요소인 음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향은 시각적 요소인 영상과 함께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왕적성연》은 영상 서사물로 언어 서사물인 《사기》와 또 다른 서사표현을 지니고 있다.<sup>134)</sup> 본 절에서는 영화 《왕적성연》의 카

129) 송태현, 위의 논문, p. 128. 재정리.

130) 정진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산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국내 대형 출판사들의 IT화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 9.

131) 영화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구성된 프레임이 일정한 속도(35밀리 사운드 영화의 경우 초당 24프레임)로 움직여야 영상을 볼 수 있다. 통상 90분짜리 장편 영화의 경우 총 129,600의 개별적인 프레임으로 구성이 된다. 이경기, 《영화예술용어사전》, 다인미디어, 1997, p. 465.

132) 김민경, <매체 전환에 따른 드라마 서사구조의 차이 연구:원작 만화 《조선여형사 다모》와 드라마 《다모》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56.

133) 이승연, <영상기호학을 통한 영상서사 텍스트 읽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8.

134) 영화의 서사에 대하여 채트먼은 ‘어떠한 서사적 전달 내용이든 그것을 사용되는 표현 수단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 속에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것을 운반하는 기법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본질적인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옮겨갈 수 있다. 이야기의 주제는 발레를 위한 줄거리로 쓰여질 수 있으며, 소설의 그것은 무대나 영화로 옮겨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영화에 대해 말

메라 구도, 색채, 음향을 분석하여 영화의 서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 1) 영화 《왕적성연》의 카메라 구도 분석

영화 《왕적성연》에서 시각적 치장 중 카메라의 구도는 유방과 항우가 갈등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영화 《왕적성연》은 화자인 유방의 시각으로 이 장면들을 촬영하였는데 영상 서사물인 영화는 언어 서사물과 같이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으므로 카메라의 구도를 통하여 간접적인 묘사를 하였다. 유방이 설읍(薛邑)에서 항우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살펴보자. 이 장면은 유방이 마을로 들어서는 항우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이를 롱샷(Long shot)이라고 하며 아서 버거는 롱샷이 ‘전후관계, 범위, 공적거리’를 의미<sup>135)</sup>한다고 보았다.



영상1. 멀리서 항우를 바라보는 유방



영상2. 말을 탄 항우를 보는 유방

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말이며, 우리가 보는 것은 영상이며, 우리가 해독하는 것은 몸짓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따라가는 것은 이야기이다. 서사화되는 것은 자체의 고유한 의미 있는 요소들, 즉 그것의 이야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말이나 영상이나 몸짓이 아니라 말과 영상, 몸짓들에 의해 암시되는 사건들, 상황들, 행위들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표현 수단, 즉 매체가 무엇이든 서사를 지니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서사 표현이 다를 수 있다. S. 채트먼 지음, 한용환 옮김, 위의 책, p. 20.  
135) 김민경, 위의 논문, p. 60. 표 III-7.

공적거리(Public Distance)라는 것은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에 위치한 두 지점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두 지점의 거리가 멀수록 두 지점의 친밀도는 떨어진다. 유방이 처음 항우를 보았을 때는 항우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아니한 상태였고 길가의 쥐와 같았던 유방에게 반진의군의 영수인 항우는 심리적으로도 감히 다가갈 수 없던 존재였다. 귀족이며 이미 제후들의 영수가 된 항우는 당시에 영웅적인 존재였으며 유방은 일개 백성이었기에 신분적으로 항우와 유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방이 항우에게 군대를 빌리러 갔을 때와 항우와 검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둘의 관계를 다른 구도로 담아내었다.



영상3. 항우를 마주한 유방



영상4. 갑옷을 하사받은 유방

유방은 항우에게 군대를 빌리러 찾아간다. 이 때 유방은 아직까지 항우의 군대와 위세에 비하면 하찮은 인물로 그려진다. 유방은 항우의 군영에서 항우군이 바라보는 가운데 상좌에 앉은 항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올려다본다. 유방이 항우에게 찾아가 군대를 빌리는 장면은 로우 앵글샷(Low-angle Shot)으로 처리하여 아직까지는 유방이 항우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방과 항우가 검무를 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이전과 다른 구도를 이용하여 유방과 항우와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유방과 항우가 항우 군영에서 함께 검무를 하는 장면에서는 두 인물을 함께 나란히 하

는 모습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유방과 항우의 얼굴을 극대화하여 인물들의 표정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유방과 항우의 거리는 영상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과 다르게 확연히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영상5. 항우와 검무 하는 유방



영상6. 미소 지으며 유방을 보는 항우

영화 《왕적성연》에서는 무릎이나 허리 위에서부터 인물을 잡는 미디엄 샷(Medium Shot)으로 하여 동작과 표정으로 대화하는 인물들의 관계<sup>136)</sup>를 보여주고 있다. 유방이 항우와 함께 검무를 하는 장면은 항우와 유방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는 설읍에서 말을 타고 가는 항우를 아래에서 바라보던 유방의 시선, 항우 군영에서 군사를 빌릴 때 상좌에서 유방을 아래로 바라 보던 항우의 시선과 이러한 항우를 꿰어앉아서 바라보던 유방의 시선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이로써 힘의 상하관계에 처해 있었던 두 인물이 수평의 관계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형제가 되었던 유방과 항우가 적의 관계로 변하자 카메라 구도는 다시 이전의 카메라 구도로 되돌아간다. 유방이 진왕 자영의 항복을 받아내고 진 왕

136) 김경애, 《문학과 영화》, 선인, 2012, p. 43.

궁에 먼저 들어가자 항우는 유방을 치려고 하고 유방은 항우에게 사죄를 하기 위하여 홍문연에 가게 된다.



영상7. 항우를 올려 보는 유방



영상8. 아래로 유방을 바라보는 항우

영상7과 영상8은 카메라를 하이 앵글 샷(High-Angle Shot)과 로우 앵글 샷(Low-Angle Shot)으로 하여 유방과 항우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이 관계는 항우가 진 자영을 죽이고 제후들에게 분봉하는 장면에서도 유지된다.

진궁에서 항우가 제후들에게 분봉을 할 때 유방과 항우는 유방이 항우를 설읍에서 처음 만났던 장면과 같이 롱샷으로 하였다.



영상9. 항우를 멀리서 바라보는 유방



영상10. 제후들에게 포고하는 항우

유방이 먼저 관중으로 들어간 사건으로 인하여 유방과 항우의 관계는 유방과 항우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와 같이 견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진궁에서의 장면이 끝날 때 쯤 유방은 항우가 자신을 왜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욕망은 홀시하는 항우에게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내레이션으로 이후 유방과 항우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임을 드러내었다.

<항우본기>와 <고조본기>에서 항우가 진왕을 죽이고 서초패왕이 된 이후 유방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영화 《왕적성연》에서는 항우와 유방이 벌였던 전쟁에 대한 장면은 생략된 채 항우가 분봉하였던 장면에서 바로 항우가 해하에서 패주하여 오강에서 단병으로 한군과 접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장면으로 전환된다. 항우는 자신을 향하여 진진해오는 유방군과 싸우고 있으며 유방은 이 모든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항우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사병들과 수많은 한군을 맞이하게 된다. 항우의 사병들은 하나 둘 죽어가고 항우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한군과 싸운다. 유방은 자신의 진영에서 항우가 접전하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항우와 한군이 치열하게 싸우다 마지막에 항우는 결국 자결을 한다.



영상11. 최후를 맞이하는 항우



영상12. 항우를 멀리서 바라보는 유방

유방은 이 모든 과정을 아무 말 없이 숨죽이며 바라보다 항우가 죽었음을 확인한 뒤 놀라움과 얼떨떨한 그리고 안도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표정을 짓는다. 영상12를 끝으로 항우에 대한 유방의 회상은 종료된다.

영상1~영상12의 카메라 구도를 통하여 유방이 항우를 회상하면서 항우와 관련된 사건들, 즉 항우에게 군대를 빌리러 간 장면, 함께 검무를 추는 장면, 흥문연에서의 회합, 진궁에서 분봉받는 장면, 해하의 전쟁에서 유방과 항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영상1~4에서는 항우가 진 반란군의 영수라는 자리에 위치하여 진왕 자영을 죽이고 천하를 제패해가는 영웅으로 비추어졌다. 이와 반대로 유방은 백성에서 반란군에 동참하는 세력에 불과하다. 영상5과 6에서는 항우와 유방이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라는 수평적 관계를 잠시 유지하였으나 영상7, 8에서는 항우와 유방의 관계가 적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변화됨을 보여준다. 항우와 유방의 대립적인 관계는 영상9, 10을 계기로 극적인 대립 관계로 치닫게 되며 이 대립은 영상11, 12에서 폭발하게 된다. 유방은 해하의 전쟁에서 서초패왕인 항우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항우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고 한의 황제로 오른다.

## 2) 영화 《왕적성연》의 색채 분석

영화의 시각적 치장 중 카메라의 구도는 유방의 시점을 담당하여 유방과 항우와의 관계변화, 유방과 항우의 관계변화에 따른 유방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시각적 치장 중 카메라 구도 외에 색채 역시 영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캐릭터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끌어내는 감성 표현기능을 갖고 있다.<sup>137)</sup> 영화 《왕적성연》은 색채로 서사 전개

를 암시하고 인물들의 성격, 심리, 인물간의 관계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영화 《왕적성연》은 유방과 항우, 한신의 대립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대립구도는 해당 영상의 색채에 반영된다. 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유방이 꿈속의 안개 숲을 헤매며 악몽이라고 하였듯이 영화의 영상을 대부분 안개처럼 주로 탁하고 어두운 색채로 표현하였다.

유방은 꿈속에서 안개가 가득 낀 숲을 헤매다가 자신을 쫓아오는 기병들을 보게 된다. 안개가 가득 낀 숲은 근거리조차 잘 보이지 않으며 이 숲을 두리번거리며 걸어 다니는 유방의 얼굴은 긴장감이 흐른다. 안개 숲을 헤매던 유방은 멀리 능선에서 말을 타고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쫓는 적들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다.

안개의 이미지는 회색으로 회색은 ‘차분, 쓸쓸함, 음울함, 우울한, 잔혹한, 오싹한’<sup>138)</sup> 등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영상13. 안개 숲에서의 유방



영상14. 유방을 쫓아오는 기병

유방은 기병에게 쫓기는 것에 대하여 ‘악몽’이라 표현하였고 이들을 피해 도망친다. 유방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숨이 차게 도망친다. 그리고 꿈에서의

137) 안지혜, <라우엔 스타인 형제의 ‘밸런스(Balance)’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색채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 31.

138) 함리라, <영화복식과 인물분석을 통한 색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영화 《위대한개츠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 31. 표4-1.

이미지는 꿈을 꾸고 있는 현재의 유방의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꿈속에서의 이미지는 영화 전체 이미지를 관통한다. 현재의 유방의 공간으로는 침실, 궁궐이 있다. 침실을 공간배경으로 한 장면으로는 유방이 죽은 한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장면, 밤중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장면, 유방이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신하들이 한신을 알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장면 등이 있고, 궁궐을 공간배경으로 한 장면으로는 소하, 장량, 항백을 만나 한신의 모반에 대해 묻는 장면, 한신을 감옥에서 만나는 장면, 소하가 사관들에게 홍문연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 등이 있다. 항우를 제거하고 황제가 된 유방은 한신을 적으로 여기고 한신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방 공간은 꿈속에서의 이미지와 같이 어둡고 무겁다.

유방이 장량, 소하, 번쾌, 항백을 만나 한신의 모반에 대하여 추궁하는 장면은 등장인물의 의복 색과 배경의 색은 비록 색채는 다르지만 모두 어두운 색이며 명도가 낮아 무거운 느낌을 준다.



영상15. 노신(老臣)을 만난 유방



영상16. 한신의 얼굴을 보는 유방

유방은 프롤로그에서 평생 두 명의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고 그 두 명은 항우와 한신임을 가리켰다. 자신의 적이었던 항우를 제거한 유방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의 적 한신으로 인하여 불안함을 느낀다. 유방은 끊임없이 한신의 모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장량, 소하, 번쾌, 항백에게 한신의 모반혐의를 묻는데, 침울하고 엄숙하며 비애의 감정을 일으키는 어둡고 무거운 색채로<sup>139)</sup> 유방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영상16은 유방이 죽은 한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 장면은 유방과 한신의 주변 배경을 어둡게 하고 오직 유방과 한신의 얼굴만 밝게 하였다. 화면은 유방과 한신의 얼굴에 조명을 비추어 클로즈업 하여 유방이 자신의 적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과 죽은 한신의 얼굴을 강조하였다. 한신의 죽음은 유방에게는 평생의 적이 모두 제거되는 일이었으며 이는 유방 인생에 있어서의 ‘홍문연’을 마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에서 가장 어두운 색채를 사용한 장면은 홍문연 장면으로 이 장면에서는 모든 화면을 검정으로 표현하였다. 홍문연으로 들어가면서 유방은 ‘거대한 위협이 천천히 다가옴을 보았다.’라고 말한다.



영상17. 홍문연 항우군영의 모습1



영상18. 홍문연 항우군영의 모습2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에게

139) 함리라, 위의 논문, p. 31. 표4-1.

홍문연이라는 곳은 공포의 대상이다. 홍문연의 장면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면을 어둡게 처리하여 홍문연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살기 가득한 일생 중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으며 홍문연이라는 공간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유방의 목숨을 노리며 검무를 하는 항장만 밝게 비추어 관객들로 하여금 항장의 칼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여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홍문연은 유방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잃을 뻔한, 항우에게 있어서는 우환을 남겨 전세가 기울어지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홍문연을 영화는 화자인 유방의 시각에서 해석하였고 감독은 홍문연을 가장 어둡게 표현하였다.

### 3) 영화 《왕적성연》의 음향 분석

카메라의 구도와 색채는 영상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방과 항우, 유방과 한신의 관계변화와 이로 인한 유방의 심리적 변화에 맞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카메라 구도와 색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음향은 인간의 지각 중 청각에 의존하는 기술로 각 장면의 정서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조성하거나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한다.<sup>140)</sup>

유방은 항우와 한신이라는 적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인다. 이 불안한 증상이 보일 때 마다 영화에서는 유방을 부르는 ‘패현 유계’와 함께 비웃음 소리가 들린다. ‘패현 유계’와 비웃음 소리는 유방이 군대를 빌리러 항우 군영으로 찾아갔을 때 들었던 소리로 이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유방은 불안해하고 칼을 들고 궁궐을 헤매기도 한다. 영화에서 비

140) 김민경, 위의 논문, p. 67.

웃음소리와 ‘패현 유계’가 울려 퍼지는 횃수는 세 차례나 된다. 첫 번째는 유방이 항우에게 군대를 빌리러 갔을 때며, 두 번째는 소하와 장량이 한신의 공로를 이유로 들며 죽일 수 없다고 하여 유방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이어서 홍문연의 장면으로 전환될 때이며, 어느 날 밤 잠에 든 유방이 비웃음소리와 ‘패현 유계’를 듣고 일어나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 항우에게 받은 갑옷 옆에서 척부인에게 발견되는 것이 세 번째이다. 이 소리가 삽입되는 장면을 이해하기 전 먼저 유방이 처음 비웃음소리를 들었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방은 군대를 빌리기 위하여 항우를 찾아갔을 때 당시 유방은 항우에 비하면 하찮은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인 유방이 항우의 군영에 들어서자 유방의 출생지와 이름이 울려 퍼지고 모든 제후들은 유방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후 범증이 유방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구름을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얘기하자 유방은 부인이 지어낸 얘기라고 답하였고 이에 장내에 있던 범증과 군사들은 크게 비웃는다. 이렇게 유방은 자신이 가장 보잘 것 없던 시기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었기 때문에 이 소리는 유방에게 비애의 감정과 나약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자신을 비웃었던 인물들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비웃음소리가 삽입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살펴봐야 한다. 음향은 영상에 전적으로 의존<sup>141)</sup>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웃음 소리가 삽입된 영상은 모두 항우와 관련된 영상이다. 비웃음 소리가 삽입된 영상은 항우에게 군대를 빌리러 갔던 썬,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 홍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썬, 그리고 항우에게 받은 갑옷 옆에서 아직도 자신의 적이 살아있다고 두려워하는 썬으로, 비웃음 소리는 이 세 영상에서 느꼈던 세 가지 심리, 즉 군대를 빌리러 갔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로

141) 노병국, <사운드의 위상분석을 통하여 본 영화 음향의 역할 및 구조분석>,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 43.

인한 비애의 심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였던 공포의 심리, 한신이라는 적으로 인하여 불안에 떠는 심리를 모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향은 인물의 내부 심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sup>142)</sup>을 가진다. 유방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홍문연이라고 말하였다. 홍문연에서 유방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항장이 검무를 하면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마침내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쳤던 순간을 가리킨다. 이 때 유방에게 불안하고 죽음을 느끼게 하였던 소리는 바로 항장이 들고 있던 칼과 방패가 서로 부딪치면서 내는 날카로운 소리이다.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유방에게 칼과 방패가 부딪치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는 홍문연이라는 공간을 공포라는 공간임을 인식시킨다.

항장이 검무를 시작한 후부터 번개가 균영으로 들어와 검무가 멈출 때 까지 약 4분<sup>143)</sup>동안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4분 동안 영상은 오직 검무를 하는 항장의 모습, 항장이 들고 있는 칼과 방패 그리고 두려워하는 유방의 얼굴만 비춘다.



영상19. 유방을 향해 칼을 겨누는 항장



영상20. 검무를 하는 항장

142) 강수정, <버나드 허먼의 영화음악에 나타난 특정장면과 음악기법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 4.

143) 영화 41:31~45:40

이 때 음향은 항장이 움직일 때 내는 발소리, 칼과 방패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겁에 질린 유방의 급박해진 숨소리<sup>144</sup>로만 이루어져 있다. 불안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은 흔히 심장 박동의 증가, 가쁜 호흡, 떨림, 땀 흘림<sup>144</sup>)이 있으며 홍문연에서의 칼과 방패소리, 유방의 가빠른 숨소리는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홍문연에서 항장의 검무는 유방을 죽이기 위한 것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유방이 과연 죽음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관객의 긴장감을 홍문연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홍문연에서의 음향이 긴박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음향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영상에서 들려지는 칼과 방패가 부딪치는 소리와 이에 반응하는 유방의 숨소리는 이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음향이며 번개가 균장으로 난입하여 항장의 검무가 멈추었을 때 비로써 관객의 긴장감은 종료된다.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처해졌던 유방이 삶의 순간으로 이동하게 된 홍문연의 의미는 에필로그 유방의 내레이션으로 영화 전체의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다. 유방은 한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삶을 마감한다. 유방은 내레이션으로 “많은 이들이 나의 운명은 홍문연에서 시작됐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틀렸다. 내 인생은 홍문연이었다.”라고 말한다. 홍문연은 죽음에서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죽음을 맞이한 유방이 홍문연은 이제야 끝났다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삶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항우와 한신이라는 적으로 인해 겪었던 심리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영화의 전반적인 의미를 꿰뚫고 있는 홍문연을 루찬 감독은 음향을 이용하여 유방의 당시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이 심리는 영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초한전쟁(楚漢戰爭)은 중국인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역사적 사건이며 초

---

144) 강수정, 위의 논문, pp. 11~12. 재정리.

한전쟁의 주요인물인 항우와 유방 역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영화 《왕적성연》이 개봉되기 1년 전 동일 소재로 영화 《홍문연전기(鴻門宴傳奇)》(2011)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루촨 감독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초한전쟁을 카메라에 담아야 했다. 루촨 감독은 제작단계에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허구성을 감미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sup>145)</sup> 루촨 감독은 항우와 한신과의 대립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역사적 사건 이면에 가려졌던 이러한 만년의 유방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였고,<sup>146)</sup> 주요 사건들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구현하였다.<sup>147)</sup>

영화는 《사기》를 원작으로 한 만큼 많은 내용을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화 《왕적성연》이 《사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각색하였

145) 각색은 문학작품의 서사구조를 충실히 옮기는 충실한 각색, 원작을 재해석하거나 비틀거나, 왜곡 혹은 해체하여 변형시킨 대략적 각색, 그리고 원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티프만 가져와서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각색이 있다. 김경애, 위의 책, p. 13.

146) 看完《史記》中高祖那段記載之后,最觸動我的有幾個點,一是韓信被殺後的情節。在《淮陰侯列傳》中,高祖回來了,聽說呂后殺了韓信,高祖反應:“喜且愴之”。就這麼一句話,道盡了很多很多故事。其實劉邦肯定不是一個心腸特別硬的人。能看出來,凡酒色之徒都不是心腸硬的人,這是毫無可能的事。“喜且愴之”,喜就是後事無憂了,但是愴,說明他心裡還是有“人”的情懷。其次,我開始發揮我的想象,就是蕭何怎麼去見韓信,請他吃“最後的晚餐”。從表演上,這是挺好看的一個戲。然後,形而上的就是,在看《史記》的時候,我突然明白,劉邦後半生是在恐懼中度過的。劉邦除了年少的時候到處除酒,過了幾天橫行鄉里的好日子之外,一旦開始起兵,見到了項羽,他就開始經歷巨大的顛簸、流離和恐慌。而且這種恐慌沒有隨着他獲得天下而消解,反而加劇了。《史記》里面有一句話,晚年的時候他跟呂后說:“我建國以後天天幹什麼呢?天天殺人,我能不能不殺人,我能不能回芒山。”我看的時候心裡咯噔一下。劉邦每天都在平叛亂,每天都在殺人,煩了。最後發現,我想講的就是恐懼,就是這麼一個獲得政權的人——帝王的心理恐懼,特別想觸碰這種恐懼。陸川(《王的盛宴》導演);楊遠嬰(北京電影學院教授);陳墨(中國電影藝術研究中心研究員);趙宇宇(中國傳媒大學教授),〈《王的盛宴》〉,《當代電影》第01期,2013,pp. 44~45.

147) 짜오닝위(趙宇宇) 중국전매대학(中國傳媒大學) 교수는 영화 《왕적성연》의 표현적 가치에 대해 “영화 《시황제암살》 이후 시청각언어에 있어 매우 혁신적이며, (...생략...) 영화 《시황제암살》이 편집, 미장센, 쇼트 기법 방면에서 큰 변혁을 이끌었다면 영화 《왕적성연》은 비약을 이루었다(這部電影藝術價值上最大的特點之一,就是在《刺秦》以後,視聽語言方面最有創新的一部電影。剛好十多年過去了,《刺秦》里面的剪接方式、組合方式和景別組合方式,與之前的電影相比有一個巨大變化,而《王的盛宴》又實現了一次飛越)”고 평가하였다. 陸川(《王的盛宴》導演);楊遠嬰(北京電影學院教授);陳墨(中國電影藝術研究中心研究員);趙宇宇(中國傳媒大學教授), 위의 잡지, p. 43.

는지 논의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영화 《왕적성연》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화 《왕적성연》은 《사기》라는 원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의 문학적 가치와 영화의 표현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sup>148)</sup> 홍문연 장면, 해하의 전쟁 장면을 예로 들어 《사기》와 영화 《왕적성연》을 살펴보면, <항우본기>에서는 홍문연 사건을 유방을 돕는 인물—항백, 장량, 번쾌의 대화와 행위를 묘사하여 유방이 이들의 도움으로 홍문연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공포의 질린 유방의 모습을 클로즈업 하고 어두운 색채로 유방 일생에 있어 가장 두려웠던 순간으로 조성하여 유방의 심리상태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였다. <항우본기>에서 해하의 전쟁 장면은 항우가 급박하게 해하에서 탈출하였으나 한군에게 쫓겨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영화는 <항우본기>의 서술보다 <고조본기>의 서술을 틀로 하여 항우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과 이러한 항우의 모습을 지켜보는 유방의 모습을 교차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 일부 장면들은, 예를 들어 유방이 설읍에서 항우를 처음 만났던 장면, 항우와 유방이 함께 검무를 하는 장면<sup>149)</sup>과 같은 내용은 감독의 상상이 발휘된 부분이다.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화 《왕적성연》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가치는 그 매체적 특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전달<sup>150)</sup>되고 있다.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본기>, <고조본기>의 서사구조를 기초로 하였고 매체적 특성을 이용하여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하였고, 영화 《왕적성연》의 탄생은 원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48) 박지희, 위의 논문, 379~380. 재정리.

149) <고조본기>에는 '(유방은) 항량이 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백 여기를 이끌고 가서 알현하였다. 항량은 병사 5천과 오대부 작위를 가진 장수 10명을 주었다(聞項梁在薛，從騎百餘往見之。項梁益沛公卒五千人，五大夫將十人)'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항우와 유방이 함께 검무를 한 장면은 <항우본기>, <고조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150) 김종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3집, 1995, p. 425.

한 것인 만큼 원전인 《사기》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가치는 입증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화 《왕적성연》의 원전인 《사기》의 범위를 <항우본기>, <고조본기>로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나,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화 《왕적성연》은 이질적 존재가 아닌 상호보완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체가 발전하면서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사기》는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전환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사기》가 다른 매체로 전환 가능한 것은 《사기》가 지니고 있는 서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모든 서사는 모티프가 존재하며 모티프들이 모여 서사를 구축해간다. 필자는 《사기》가 매체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였고, 영웅 모티프로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서사표현을 비교분석하면서 영상시대에 《사기》가 지니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웅 모티프로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서사표현을 분석하기 전, 항우와 유방의 영웅성에 대해 접근해보았다. 러시아 민담으로 31가지 이야기 모티프를 제공한 프로프, 문학작품의 신화적 수준을 제시한 프라이, 한국의 설화를 분석하여 영웅의 의미를 분류한 조동일의 의견을 종합하면, 영웅은 지혜를 지니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룬다. 항우와 유방은 진말 혼란에 빠진 시기에 일어난 인물로 진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 영웅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와 유방의 일생을 담은 영웅 서사물이다. 조셉 캠벨, 크리스토퍼 보글러, 노스롭 프라이의 이론으로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항우와 유방의 영웅적 면모, 영웅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인물

의 영웅적 면모와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항우본기>는 뛰어난 능력으로 서초패왕으로 올랐지만 몰락의 길을 걸은 항우의 이야기에 부합한 비극적 영웅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고조본기>는 영웅이 출생하여 모험에의 소명을 받아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마침내 귀환하게 된다는 영웅서사구조와 일치하여 유방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보글러의 영웅서사이론으로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를 분석했을 때, 서사구조는 <고조본기>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이야기는 <항우본기>, <고조본기>가 혼합되어 있었다. 이로써 항우와 유방을 주인공으로 하는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와 유방의 일생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사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항우본기>, <고조본기>는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영웅의 특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은 서사전달매체는 다르지만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화 《왕적성연》은 전달매체의 특성으로 서사표현은 달리한다. <항우본기>, <고조본기>의 서사전달은 오로지 문자에 의존한다. 항우는 서초패왕에서 비극적 말로를 맞이한 영웅으로 해하의 전쟁은 영웅이었던 인물이 어떤 말로를 밟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사마천은 해하의 전쟁을 초가를 부르는 한군의 모습, 사면초가로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항우의 모습, 한군에게 맹렬하게 쫓기지만 제압하며 다시 도망치는 모습, 강동으로 도망칠 것을 권하는 오강 정장과의 대화 등을 삽입하여 비극적 영웅이 지니는 결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고조본기>는 비범하게 출생하고 신화화된 일상을 살았으며 유덕함과 인재를 통하여 얻은 지혜로 민심을 얻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한의 황제가 된 유방의

일생을 주도면밀하게 담아내어 한 왕조의 시조 유방이 지닌 영웅적인 모습을 부각시켰다. 또한 사마천은 항우와 유방이 수록되어 있는 해당 전기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전기에 수록하여 더욱 입체적인 인물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영화는 영상과 음향으로 서사를 전달한다. 영화 《왕적성연》은 유방과 항우, 한신의 대립, 인물간의 관계 변화, 인물의 심리상태를 카메라의 구도와 색채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유방이 항우와 한신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 공포는 해당 영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향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영화 《왕적성연》은 《사기》를 각색한 영화이기 때문에 항우와 유방이 갈등을 겪었던 사건들은 등장하지만 루환 감독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영화적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항우본기>, <고조본기>와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표현을 분석하여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서사’가 어떻게 이야기의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는 영웅모티프로 <항우본기>, <고조본기>, 영화 《왕적성연》의 서사구조와 서사표현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창작 원천으로서 《사기》의 문학성과 예술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마천은 훌륭한 문학적 서사기법과 이를 기틀로 인물 형상을 부각시키는 서사구조로 《사기》를 저술하였고, 영화 《왕적성연》은 매체의 성격에 따라 《사기》를 수용 및 변용하여 영상 매체가 더욱 친근한 시대에 수용자들에게 현대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사기》가 영화 《왕적성연》이라는 현대적 매체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은 ‘이야기’를 공통분모로 하는 서사물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더욱이 원작의 우수성으로 인해 《사기》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폭넓게 넘나들 수 있다.

문자로 이야기를 읽어나가야 하는 문학 작품이 전자 매체와 병존하게 되면서 문학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문학의 위기가 아닌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것으로 수용자들은 익숙한 매체를 선택하여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사기》와

같은 고전 문학이 영상화되는 것 역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이러한 흐름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결국 고전 문학과 현대적 서사물의 예술적 가치는 문화의 주도적 역할에 국한 된 것이 아닌 다매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냐의 문제이다.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 유방이라는 전형적 등장인물의 이면적 면모, 이야기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장면을 추가 또는 생략하여 《사기》의 내용이 변형되었지만, 이는 고전 문학을 현대 의식에 맞게 각색한 것으로 오늘날 고전 문학의 콘텐츠화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기》와 영화 《왕적성연》의 서술 특성과 수용방식을 알아보고 《사기》의 서사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자매체 보다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시대에 《사기》의 활용사례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부 록

### 1. <항우본기>, <고조본기> 이야기 분석 비교

| 단<br>계                     | <항우본기>   | <고조본기>  |
|----------------------------|--|---|
| 모<br>험<br>에<br>의<br>소<br>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의 가문은 대대로 장군을 지낸 가문이다.</li> <li>· 어렸을 적 항우가 서도와 검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자 항량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만인의 적을 대항하는 법을 청하자 항량은 항우에게 병법을 가르쳤다.</li> <li>· 항량이 살인을 하여 항량과 항우는 오중(吳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li> <li>· 항량과 항우가 함께 진시황제의 순행을 보았는데 항우가 “저놈을 대신해서 내가 들어서야겠다.”고 외치자 항량이 입을 막았으나 기특해하였다.</li> <li>· 항우의 신장과 힘과 재기로 오중의 젊은이들이 모두 항적을 두려워했다.</li> <li>· 진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항량은 항우에게 회계군 군수(會稽郡郡守)를 뺏 것을 말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고조본기&gt;는 유방의 비범한 출생으로 전기의 시작을 알린다. 유방의 모친 유온(劉媪)의 배 위에 교룡(交龍)이 꿈틀거린 뒤 유방이 태어남과 높은 콧마루와 용안(龍顏)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유방이 패현에서 현령으로 오르기 전의 유방의 삶은 출생뿐만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일상세계를 지니고 있다. 자주 의상으로 술을 마셨으나 취하여 쓰러진 유방의 몸 위에서 용의 모습이 보인다가나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길을 막아선 뱀을 죽인 일화, 한 노인이 유방에게 귀하게 될 관상이라고 한 것 그리고 진시황이 동방으로 순행할 때 산중 바위에 숨어도 유방이 있는 곳에서는 운기(雲氣)가 있어 찾을 수 있는 일 등이 모두 유방의 비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li> </ul> |
| 소<br>명<br>의<br>거<br>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회계군 군수를 뺏 것을 요구하는 항량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주저없이 회계군 군수의 머리를 베었다.</li> <li>· 회계군 군수가 죽자 관저 내 무리들이 어지러워지니 항우는 1백 여인을 죽였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시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li> <li>· 항량은 회계군 군수가 되고 항적은 부장(副將)이 됨으로써 항량과 항우는 진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섭이 일어나 진(陳)에서 왕이 되자 제군현에서 그들의 관리들을 죽이고 이에 호응하고자 했다.</li> <li>· 패현(沛縣)의 현령도 두려워하여 호응하려고 하였고 소하와 조참(朝參)이 변패를 명하여 유방을 불렀다. 그러나 패현의 현령은 이를 후회하여 소하와 조참을 주살하고자 하였고, 소하와 조참은 도망쳐 유방으로 갔다.</li> </ul>  |

|  |  |   |
|--|--|---|
|  | <p>반란 흐름에 뛰어들게 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은 제후들이 패현을 쉽게 무찌를 것이니 현령을 죽이고 적합한 인물을 세워 제후들에게 응하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편지를 써 성 안으로 쏘아 보냈다.</li> <li>· 패현의 사람들이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현령인 패공으로 추대하였다.</li> </ul>   |
| <p>초<br/>자<br/>연<br/>적<br/>인<br/>조<br/>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항량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고 항량과 함께 모의하여 회계군수를 빼고 오(吳)에서 거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에게 항량은 언제나 함께 하는 조력자였다.</li> <li>· 항량 외에 범증(范增)이라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범증은 항량에게 진승이 먼저 거사하였으나 세력이 장구하지 않은 것은 초왕의 자손을 세우지 않고 자립한 것 때문이라 하였고, 항량은 범증의 계책에 따라 초 회왕 자손 심(心)을 세워 초 회왕으로 삼아 민의를 따랐다. 이에 초군의 위세는 점차 커져간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고조본기&gt;에서는 유방을 돕는 조력자로 는 소하, 조참, 변패, 장량 등이 있다. 패공이 된 이후 소하, 조참, 변패가 패현의 자제 2~3천을 모아 호릉(胡陵)과 방여(方輿)를 공격하고 돌아와 풍읍(豊邑)을 지켰으며, 장량은 유방이 관중의 서쪽을 공격하라는 초왕의 명을 받아 서진하면서 완(宛)을 무너뜨리지 않자 후환이 될 것이므로 수복할 것을 진언한다. 또한 남양군수(南陽郡守) 기(龔)의 문객 진회(陳恢)의 계책으로 인하여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li> </ul>   |
| <p>첫<br/>관<br/>문<br/>의<br/>통<br/>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에서 거병한 뒤 항량과 항우는 세력을 점차 넓혀간다. 성양(城陽), 복양(濮陽), 옹구(雋丘)를 차례로 격파하고 이유(李由)를 빼었다. 승승장구로 교만한 빛을 보인 항량은 결국 정도(定陶)에서 진군에서 대과당하여 전사하였다.</li> <li>· 회왕은 항량의 전사로 인해 두려워하여 항우와 여신의 군권을 빼앗아 자신이 수장이 되었다. 항량의 전사로 인하여 초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항우 역시 거병 이후 위기를 맞게 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원년 10월 유방의 군대가 가장 먼저 패상에 이르렀다. 진 자영(子嬰)이 수레를 끌고 나와 목에 인끈을 걸고 황제의 새(璽), 부(符), 절(節)을 봉인해 지도정(軹道亭) 옆에서 항복했다.</li> <li>· 많은 장수들이 진왕을 주살해 버리라고 했으나 회왕이 본인을 보낸 것이 관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죽이지 않고 형리에게 넘기고 여러 현의 유지들과 호걸들에게 '범은 3장 뿐'이라는 것을 선언한다.</li> <li>· 백성들이 기뻐하며 고기와 술을 헌상하려고 했으나 유방은 사양했고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여 패공이 진왕이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li> <li>· 어떤 유지가 항우가 장한을 관중의 왕으로 삼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항우가</li> </ul> |

|                     |   |   |
|---------------------|---|---|
|                     |   | <p>도착하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니 함곡관을 지켜 다른 제후들이 입관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유방에게 간하니 유방은 이를 따랐다.</p>   |
| <p><b>고래의 배</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왕이 전사한 후 조(趙)가 구원을 요청해오자 초왕은 송의(宋義)를 상장군으로, 항우를 차장으로, 범증을 말장으로 삼아 조를 구하게 했다.</li> <li>· 초군이 안양(安陽)에 이르러 46일간 진 발하지 않자 항우가 조왕이 거록(鉅鹿)에 포위되어 있으니 초군이 성 밖에서 공격하고 초군도 호응하면 진군이 격파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송의는 진과 조를 싸우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며 듣지 않았다.</li> <li>· 항우는 기근으로 식량이 바닥났으며 강대한 병력의 진군은 조를 쳐 이기고 더욱 강해질 것인데 송의는 사사로운 일에 힘을 들인다고 말하며 이른 아침 송의의 목을 베었다. 제장들이 떨며 굴복하였고 항우를 세워 대장군으로 삼았다.</li> <li>· 회왕은 항우를 대장군으로 삼았으며 당양군(當陽君)과 포장군(蒲將軍) 등이 항우에게 소속되었다. 송의를 죽인 후 항우의 위세가 초에 떨쳐지고 명성이 제후사이에 들리게 되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의 군이 입관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유방이 이미 관중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하여 경포 등을 보내어 함곡관을 공격했다.</li> <li>· 항우군이 회(戲)까지 진출하자 패공의 좌마사 조무상은 항우가 노하여 유방을 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유방이 관중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자영을 재상으로 삼고 보물들을 다 차지하였다고 말하며 이로써 봉을 받고자 하였다.</li> <li>· 항백이 장량을 살리고자 밤중에 장량을 만나러 갔고, (항백이) 항우에게 “패공이 먼저 입관하지 않았으면 공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대공(大功)이 있는 자를 치는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항우는 유방을 치려는 것을 그쳤다.</li> <li>· 유방이 1백 여기를 이끌고 홍문으로 이르러 항우를 만나 사죄하였다. 이에 항우는 유방의 좌사마 조무상이 말하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그랬겠는가라고 한다. 유방은 변패와 장량으로 인하여 벗어나 진중에 되돌아갈 수 있었고, 진중에 들어가 조무상을 죽였다.</li> </ul> |
| <p><b>시련의 길</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가 함곡관(函谷關)에 도달했으나 병사들이 문을 수비하여 닫고 있어 입관할 수 없었고, 유방이 이미 함양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항우는 대노하여 유방을 치고자 했다.</li> <li>· 항백은 이 소식을 장량에게 전하였고, 유방은 다음날 항우에게 사죄하기로 한다. 항우는 유방을 위해 주연을 베푼다.</li> <li>· 범증이 자주 눈짓하여 항우에게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으나 항우는 응하지 않</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가 자립하여 서초 패왕이라 하고 9개 군의 왕이 되어 팽성으로 도읍하였다. 항우는 약속을 위배하고 패공을 한왕(漢王)으로 삼아 남정(南鄭)에 도읍시켰는데 유방이 남정에 도착했을 때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도망쳐버렸고 병사들도 노래를 부르며 동쪽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li> <li>· 한신은 유방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진하여 천하를 쟁탈할 것을 말한다. 유</li> </ul>   |

|                                      |   |   |
|--------------------------------------|---|---|
|                                      | <p>왔다. 범증이 항장(項莊)을 불러 검무하다가 유방을 죽이라 한다. 항장이 검무를 청하여 춤을 추었으나 항백이 검을 빼어 춤을 추면서 몸으로 유방을 보호해 치지 못했다.</p> <p>· 군문에 있던 번쾌는 장량에게 위급한 상황인 것을 듣게 되고 주연 자리에 난입한다. 얼마 안 되어 유방이 일어나 번소로 가는 척 하며 도망쳤다.</p> | <p>방은 한신의 말을 따른다. 유방이 낙양에 이르러 의제가 항우에게 시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후들에게 항우를 칠 것을 전한다.</p> <p>· 항우와 유방은 팽성(彭城), 형양(滎陽), 성고(成皐), 광무(廣武)에서 접전하였다. 유방은 항우와 광무에서 대치할 때 항우가 행해은 죄과 10가지를 꾸짖으며 항우를 토벌할 것임을 선포한다.</p> <p>· 한 5년, 유방은 제후의 군과 초군을 공격했고 항우와 해하에서 승부를 내고자 했다. 유방은 초군을 공격했고 초군은 해하에서 대파당했다. 유방은 기장 관영(灌嬰)을 시켜 항우를 추격하여 동성(東城)에서 죽였고 초군 8만 명을 베고 초 지역을 점령하였다.</p> |
| <p>여신과의 만남 / 유흥자로서의 여성 / 아버지와 의화</p> | <p>· &lt;항우본기&gt;에는 항우가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여신과 성장하면서 부딪치면서 화해하게 하는 인물, 즉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항우는 자신의 능력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으며 신이 아닌 패자(覇者)로 추앙되어진다.</p>                                       | <p>· &lt;고조본기&gt; 역시 &lt;항우본기&gt;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여신과 성장과정에서 대립관계를 이루지만 화해하게 되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유방은 여신이 아닌 장량, 한신, 번쾌, 진평 등의 조력자들에게서 장애를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으며 천자의 위에 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7단계~10단계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p>   |

|          |  |  |
|----------|--|--|
| 해 / 신 격화 |  |  |
| 홍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함양을 무찌르고 진의 항복한 왕인 자영을 살해했으며 진의 궁실을 불사른 뒤 진의 보화와 부녀자를 몰수하여 동행(東行)했다.</li> <li>· 항왕이 회왕을 높여 의제로 삼고 자신은 서초 패왕이 되었으니 천하를 분할해 제장을 세우고 후왕(侯王)으로 삼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2월 갑오일(甲午日), 유방은 사수(泗水) 북쪽에서 황계 위에 올랐다. 천하는 모두 평정되었고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 계후 모두 신하로서 유방을 따랐다.</li> </ul> |
| 회귀의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사람이 관중은 사면으로 막혀있고 비옥한 땅이니 도읍하면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항우는 진의 궁실이 타서 파괴된 것을 본 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하여 부귀하게 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말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은 천자의 위에 올라 낙양에 도읍하였다. 유방이 낙양에 영구히 도읍을 하려 하자 장량이 관중으로 도읍을 할 것을 간하였고 유방은 바로 관중으로 도읍하였다.</li> </ul>   |
| 불가사의한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은 마땅히 관중의 왕이 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관중을 되찾고자 하였다.</li> <li>· 항우와 유방은 팽성(彭城), 형양(滎陽), 성고(成皋), 광무(廣武)에서 집전하였다. 항왕과 유방은 해하를 사이에 두고 포진하였다. 항우는 병사의 수도 적고 식량도 다하자 밤을 틈타 도망쳤다.</li> <li>· 한군이 이를 알아차리고 항우를 추격했다. 한군이 바짝 뒤쫓아 오고 따르는 기병 수도 적어지자 항우는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항우는 따르는 기병에게 곤궁하게 된 것은 하늘이 망하게 한 것이지 전투에서 약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죽음을 무릅쓰고 적장을 베어 이를 알려주겠다고 말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은 환을 세우고 난 이후 끊임없이 반란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되며 이들을 평정하기 위하여 출정하게 된다.</li> </ul>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한군의 도위(都尉)를 베고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다. 항우는 다시 동으로 향하여 도망쳤다.</li> </ul>  |  |
| 외부로부터의 원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동으로 가 오강(烏江)을 건너려고 했다. 오강의 정장이 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며 한군이 이르더라도 건너지 못할 것이니 강동의 땅이 작지만 왕자가 되기에는 충분하니 서둘러 강을 건너갈 것을 말한다.</li> <li>· 항우는 정장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 가게 되면 강동의 왕이 될 수 있지만 정장의 도움을 거절하며 스스로 위험을 선택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정벌할 때 대부분 친절하여 멸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방을 돕는 지원군은 등장하지 않는다.</li> </ul>   |
| 귀환관문의 통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기사들에게 명하여 말에서 내려 보행하게 하고 단병(短兵)으로 한군과 접전했다. 항우 혼자서 죽인 한의 군사만 해도 수백 명이 되었다.</li> <li>· 항우가 한의 기사마(騎司馬) 여마동(呂馬童)을 보고 옛 친구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여마동이 항우를 보고 왕예(王翳)에게 이 사람이 항왕이라고 말했다.</li> <li>· 항우는 이에 자신의 머리에 걸린 상금을 그대를 위해 베풀겠다고 말한 뒤 자결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은 장도(臧荼), 이기(利豸), 한신(韓信), 신(信), 관고(貫高), 진희(陳豨), 조리(趙利), 팽월(彭越), 경포(鯨布) 등의 반란을 차례로 진압하고 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li> </ul>   |
| 두세계의 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우는 귀환을 도와주고자 하는 정장의 도움을 거부하고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한다. 이는 항우의 죽음으로 영웅이 마땅히 완성해야 할 여정이 완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이 경포를 정벌할 때 화살에 맞아 병상에 눕게 되었다. 의사가 병을 고쳐드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유방은 민간에서 일어나 삼척의 검으로 천하를 얻었는데 이것이 천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치료를 받지 않고 금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li> <li>· 여후가 백년 이후에 소(蕭) 상국이 죽으면 누가 대신하여 상국이 되면 좋을지 묻자 조참이라고 답하였다. 여후가 조참 이후에는 누가 좋을지 묻자 왕릉이 좋지만 강직한 진평이 보좌해야 하나 혼자서 힘들 것이니 문재(文才)가 미약하나 신중한</li> </ul> |

|       |   |
|-------|---|
|       | <p>주발이 유씨(劉氏) 도와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이니 태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여후가 재차 묻자 고조는 이후의 일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p>  |
| 삶의 자유 | <p>· 4월 갑진일(甲辰日) 유방이 장락궁에서 봉어했다. 군신들이 유방은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난세를 평정하고 정도(正道)로 돌이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한의 개국황제이자 공로 역시 가장 높으니 고허제(高皇帝)라 칭하였다.</p> |

## 2. 영화 《왕적성연》 이야기

| 단계              | 서사 내용   |
|-----------------|---|
| 일상 세계           | <p>프롤로그에서 유방은 자신을 한(漢)의 황제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자신의 두 적을 지목하며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롤로그에서의 유방의 내레이션은 유방이 자신의 신분과 적대자를 이야기 도입부분에서 설정을 하면서 이야기의 배경과 서사의 진행을 설명해주고 있다. 유방의 일상세계는 설읍의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다. 장량, 번쾌 등과 어느 저자거리를 거니고 있는 유방은 위풍당당한 기병과 함께 사람들이 보내는 존경의 시선을 받으며 등장하는 항우를 보고 반진의군의 영수이자 살아있는 전기인 항우와 자신을 비교한다.</p> |
| 모험의 소명 / 소명의 거부 | <p>14년 전 항우 군영에 군대를 빌리러 간 것은 모험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명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항우에게 형제와 처자식들을 위하여 군대를 빌리고자 했던 유방은 항우에게서 군대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갑옷을 하사받게 된다. 또한 항우와 함께 검무를 추며 '진을 멸망시키자'라고 외치는 유방의 모습에서는 자발적 영웅의 모습이 두드러진다.</p>   |
| 정신              | <p>신화와 민담에서 영웅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단련시키는 정신</p>  |

|                  |   |
|------------------|---|
| 적 스승과의 만남        | 적 스승이라는 지혜로운 보호자가 등장하여 영웅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꼭 있어야 할 필수품, 지식, 용기를 얻게 한다. 그러나 영화 《왕적성연》에서는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영화 중간 중간 유방의 대사와 내레이션을 통하여 유방이 지혜를 얻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유방이 고비를 맞이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유방이 천하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한신과 소하를 꼽은 장면, 오랫동안 장량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수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장면 등이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다. |
| 첫 관문의 통과         | B. C. 207년 유방이 진왕 자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진 왕궁에 입성하게 되었으나 항우의 입관을 막아 항우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항우와 형제 같은 관계에서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 없는 적의 관계가 된 유방이 입관하게 된 후 유방은 시험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
| 시험, 협력자, 적대자     | 진 왕궁의 물건과 여인을 탐하던 유방은 항우의 40만 대군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장량의 말로 인하여 홍문연이라는 시험의 국면에 부딪힌다. 영화에서는 이 홍문연을 어두운 느낌과 빛이 거의 들지 않은 장막 안 그리고 항장이 검과 방패를 두드리는 소리로 표현하여 유방이 겪는 시험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나타내었다. 유방은 장량과 변패, 항백의 도움으로 홍문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칼로 내리치는 항장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항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여 각 인물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
| 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 홍문연 이후 항우는 진 왕궁에 입성하게 되고 진왕 자영을 모든 이가 지켜보는 곳에서 사형을 시킴으로써 진의 멸망을 알렸다. 유방은 항우가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내레이션을 통하여 의문을 던진다. 또한 진 왕궁에서 호적을 훔치려던 한신 역시 죽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유방은 항우가 자신의 광명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욕망은 홀시하는 인물이며 이것이 항우의 착오였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면은 해하의 전쟁으로 넘어간다.   |
| 시련               | 해하의 전쟁 장면에서 영화 《왕적성연》은 항우가 한군과 접전하는 장면과 전쟁을 위하여 우미인이 항우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교차하여 항우가 최후를 맞는 장면을 만들어내었다.  |
| 보상               | 항우를 제거한 뒤 유방이 검 또는 영약 같은 보상을 받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방은 아직 항우를 죽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장량, 항백, 소하에게 한신이 자신에게로 온 이유를 추궁하고 자신의 최대 적 한신과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
| 귀환의 길            | 여후는 유방의 주도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며 유방의 모험을 돕는다. 늙은 자신들과 비교해 젊은 한신 그리고 유방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항우의 말로를 상기시켜 주는 여후에게 장량은 한신의 위세를 약하게 할 만한 계책들을 내놓는다. 유방은 장량의 계책으로 자신의 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적의 세력은 완벽히 사그라지지 않았고 유방 역시 적대 세력이 추격  |

|                   |   |
|-------------------|---|
|                   | 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
| <b>부활</b>         | 유방을 두려움에서 귀환의 길을 이끄는 또 다른 조력자 소하는 유방의 적인 한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유방으로 하여금 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였다. 유방은 죽은 한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의 평생 적인 항우와 한신을 제거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
| <b>영약을 가지고 귀환</b> | 유방은 한신의 죽음을 확인한 뒤 곧 죽음을 맞는다. 에필로그에서 유방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홍문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홍문연 그 자체였다고 말한다. 유방은 홍문연에서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홍문연이고 이제 홍문연이었던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비록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였지만 유방의 인생은 적으로부터 벗어나 귀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방은 한신의 죽음을 확인한 뒤 곧 죽음을 맞는다. 에필로그에서 유방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홍문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홍문연 그 자체였다고 말한다. 유방은 홍문연에서 죽음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홍문연이고 이제 홍문연이었던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비록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였지만 유방의 인생은 적으로부터 벗어나 귀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 參 考 文 獻

### 1. 단행본

- 司馬遷, <項羽本紀>, 《史記》第一冊, 中華書局, 1959.
- 司馬遷, <高祖本紀>, 《史記》第二冊, 中華書局, 1959.
- 漢 班固 撰, 唐 顏師古 注, 《漢書》, 中華書局, 1997.
- 陰法魯, 《古文觀止譯註(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11.
-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 김학주, 《중국문학개론》, 현대문화사, 1992.
-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이경기, 《영화예술용어사전》, 다인미디어, 1997.
- 조셉 캠벨 지음,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 유재형, 《영화영상기술용어집》, 영화진흥위원회, 1999.
- 노스롭 프라이 지음,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 크리스토퍼 보글러 지음, 함춘성 옮김,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무우수, 2005.
- 박지향,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어건주 옮김, 《민담형태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한일섭, 《서사의 이론》, 한국문화사, 2009.
- 김경애, 《문학과 영화》, 선인, 2012.

한교경,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2013.

## 2. 논문류

### (一)

李荷蓮, <淺析《史記》的悲劇人物及其精神>, 《貴陽民族學院學報》 第5期, 2011.

### (二)

이승신, <《史記·列傳》人物形象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인호, <史記人物描寫研究(1)>, 《중국어문논총》 제7집, 1994.

김중철, <소설과 영화의 서사전달 방식 비교:<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 제13집, 1995.

박선희, <西漢 帝國의 建國과 序二等 封建>,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이인호, <史記人物描寫研究(2)>, 《중국어문논총》 제13집, 1997.

정진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산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국내 대형 출판사들의 IT화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노병국, <사운드의 위상분석을 통하여 본 영화 음향의 역할 및 구조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박지희, <활자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의 다시쓰기:플로베르의 《마담보바리》

- 와 두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2005.
- 송태현, <문자와 이미지>, 《프랑스학 연구》 제33집, 2005.
- 양중석, <《史記·列傳》의 重出事件 敘述 樣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배주영, 최영미, <게임에서의 ‘영웅 스토리텔링’ 모델화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6집 4호, 2006.
- 김민경, <매체 전환에 따른 드라마 서사구조의 차이 연구:원작 만화 《조선여 형사 다모》와 드라마 《다모》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노윤희, <사마천의 생애와 작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이승연, <영상기호학을 통한 영상서사 텍스트 읽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제42집, 2008.
- 김병건, <한문교육의 측면에서 본 향우의 두 가지 판단>, 《漢文學報》 제23집, 2010.
- 어건주, <프로프의 《민담 형태론》과 동화 분석: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대상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2집, 2010.
- 안지혜, <라우엔 스타인 형제의 ‘밸런스(Balance)’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색채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하진, <사마천의 사기 저작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강내영, <중국영화의 6세대와 포스트 6세대 사이:루환감독론>, 《중국문학연구》 제44집, 2011.
- 강수정, <버나드 허먼의 영화음악에 나타난 특정장면과 음악기법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중목, <애니메이션의 통과의례 서사 연구:《마당을 나온 암탉》과 《쿵푸팬

- 터》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정지원, <《사기·열전》과 《삼국사기·열전》·《오카가미·대신열전》의 비교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최정은, <NHK 드라마 《요시쓰네》에 나타난 영웅서사구조의 원형과 변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집 2호, 2012.
- 김공숙,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웅서사구조 분석: 《시크릿가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안예선, <중국 고문의 서사론 연구:선진양한역사산문의 서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59집, 2013.
- 이후석,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영웅의 유형별 스토리텔링 연구>, 세종대학교 문화 예술콘텐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용하, <秦의 統一과 分立傾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조성윤, <《사기》의 감생신화 수용과 의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함리라, <영화복식과 인물분석을 통한 색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영화 《위대한 개츠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 기타

陸川 (《王的盛宴》導演); 楊遠嬰(北京電影學院教授); 陳墨 (中國電影藝術研究中心研究員); 趙宇宇 (中國傳媒大學教授), <《王的盛宴》>, 《當代電影》第01期, 中國電影藝術研究中心;中國傳媒大學, 2013.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ABSTRACT

A Study on narration of *《Shiji·Xiang Yu Benji》* ,  
*《Shiji·Gao Zu Benji》* ,  
Movie *《Wang de sheng yan》*

Lee Hye Wo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at how *《Shi ji》* work by Si ma qian could have been handed down to us beyond 2000 years. *《Shi ji》* is a rich mine of narration and motif, as 112 chapters of 130 chapters comprise biographies of different type people from ordinary people to emperor. The movie *《Wang de sheng yan》* released in 2011 is based on *《Shi ji》* and attracts the public eye reinterpreting *《Shi ji》* from perspective of Liu Bang. This thesis tries to investigate *《Xiang Yu Benji》*, *《Gao Zu Benji》*, movie *《Wang de sheng yan》* , which are about Xiang Yu and Liu Bang's life having been the main subjects and themes of work.

In chapter II, I have three theoretical approaches. Xiang Yu and Liu Bang were contemporaries and had different life's, but they both have been called 'hero'. First of all, I classified the meaning of the hero, and recognized whether Xiang Yu and Liu Bang can apply with the hero or not. Secondly, To analyze the structure <Xiang Yu Benji>, <Gao Zu Benji>, movie 《Wang de sheng yan》 and types of heroes, Chris Vogler's Writer's Journey, Joseph Campbell's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and Northrup Frye's modes of hero are considered.

In chapter III, Depending on <Xiang Yu Benji>, <Gao Zu Benji>, Xiang Yu belongs to an High-Mimetic hero with the superior strength and natural ability. But removed from society by committing suicide, he is an Tragedy High-Mimetic hero. Liu Bang initially served as a minor patrol officer in his hometown, later, he engaged Xiang Yu in a power struggle. The war concluded with victory for Liu Bang and Liu Bang became the first emperor of the Han dynasty. Liu Bang was "one of us", was not superior to other people, however he led to victory and established the Han dynasty. so Liu Bang can be called an Comedy Low-Mimetic hero. In the movie 《Wang de sheng yan》, Xiang Yu and Liu Bang also tend to an Tragedy High-Mimetic hero and an Comedy Low-Mimetic hero since the movie is based on 《Shiji》. On the other hand, As Liu Bang has a cynical attitude toward Xiang Yu's death, the factor of an Comedy Ironic Hero influence on Xiang Yu. Liu Bang is in fear because of his enemies—Xiang Yu and Han Xin, an Tragedy Ironic Hero and Comedy Low-Mimetic hero are combined to make audience have compassion on Liu Bang.

All narrative have different manifestation. Chapter IV covers comparison of narrative expression between <*Xiang Yu Benji*>, <*Gao Zu Benji*> and the moive 《*Wang de sheng yan*》. Even though <*Xiang Yu Benji*>, <*Gao Zu Benji*> and the movie 《*Wang de sheng yan*》 are about Xiang Yu and Liu Bang's life, there are differences on narrative express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Xiang Yu Benji*>, <*Gao Zu Benji*> which are formed through language vividly described scenes of showing and focusing Xiang Yu and Liu Bang's features. The moive 《*Wang de sheng yan*》 writes the conflicts and psychological changes caused by Liu Bang and his enemies using the camera composition and color, also get audience absorbed to the movie by the sound interacting with the story.

With the long history, the study relating to 《*Shiji*》 have been investigated deeply and various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enhance the value of 《*Shiji*》, which still have dignity as 'motif-provider' in the age of mass media.

**KEYWORD** Xiang Yu, Liu Bang, Si ma qian, Shi ji, Narration, Hero